

韓國古代史學會  
제198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25년 11월 8일(토) 13:3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604호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
- 후원 : 휴먼앤북스(Human & Books)



## 한국고대사학회 제198회 정기발표회 일정표

13:30 ~ 13:40	개회사: 여호규(한국고대사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 정동준 (국민대학교)
13:40 ~ 14:40	■ 제1주제 고구려 別都 漢城 연구 발표: 권순홍(항공대학교) / 토론: 기경량(가톨릭대학교)	사회: 정동준 (국민대학교)
14:40 ~ 15:40	■ 제2주제 신라의 神宮 설치와 郊廟 제사의 구성 발표: 김의명(성균관대학교) / 토론: 박초롱(이화여자대학교)	
15:40 ~ 16:00	휴식	
16:00 ~ 17:00	■ 제3주제 新羅 稟典考 -월성해자 출토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이경섭(충북대학교) / 토론: 하시모토 시게루(경북대학교)	
17:00 ~ 18:00	■ 제4주제 新羅 西原小京의 입지와 관방체계의 활용 발표: 이연희(전쟁기념관) / 토론: 최경선(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목차

### [제1주제] 고구려 別都 漢城 연구

발표: 권순홍(항공대) .....	7
토론: 기경량(가톨릭대) .....	23

### [제2주제] 신라의 神宮 설치와 郊廟 제사의 구성

발표: 김의명(성균관대) .....	26
토론: 박초롱(이화여대) .....	43

### [제3주제] 新羅 稟典考-월성해자 출토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이경섭(충북대) .....	46
토론: 하시모토 시게루(경북대) .....	별지

### [제4주제] 新羅 西原小京의 입지와 관방체계의 활용

발표: 이연희(전쟁기념관) .....	63
토론: 최경선(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82



# 고구려 別都 漢城 연구

권순홍 | 항공대학교

- I. 머리말
- II. 고구려 중·후기 平壤以南 간선도로와 漢城의 입지
- III. 漢城의 '도시권'
- IV. 別都의 설치와 재편
- V. 맺음말

## I. 머리말

6세기 중반경부터 운영된 고구려의 三京은 東魏의 兩京과 함께, 동아시아의 多京 운영 사례 가운데 가장 이른 편이다.<sup>1)</sup> 이후, 唐 역시 三府 형식의 三京을 운영하였고, 신라와 발해도 각각 五小京과 五京을 운영하였으며, 일본 또한 8세기에 일시적으로 平城京과 難波京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6~8세기에 동아시아 각국이 多京을 운영했던 배경에 관해서는 唐 三府에 대한 해석이 주목된다. 關中의 배후지로서 洛陽의 경제적 기능과 突厥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太原의 군사적 기능이 도성 長安과 關中을 보완하였고, 이러한 당의 三府는 關中의 확대이자 전국 통제를 위한 근거지였다는 설명이다.<sup>2)</sup> 이러한 해석에 따라 東魏-北齊의 兩京 운영에 대해서도 西魏-北周와의 대립 상황에서 교통의 요충이자 경제적 거점이었던 鄴과, 유목왕조의 根本之地이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晉陽의 상호보완적 성격이 지적될 수 있었다.<sup>3)</sup>

한편, 京은 관료에게 택지를 발급하기 위한, 다시 말해 관료제의 지표와도 같은 공간이라는 점이 유의된다.<sup>4)</sup> 京의 범위는 도성의 격자형 가로구획의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격자형 가로구획은 관료의 거주지를 일정한 계획성 아래 배치하기 위한 도시 설계방식이기 때문이다.<sup>5)</sup> 바

1) 多京의 의미와 複都와의 구분에 관해서는 권순홍, 2019 「동아시아의 複都制와 多京制 구분」 『中國古中世史研究』 54 참조.

2) 朴漢濟, 2000 「中國歷代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唐·宋 變革期』를 중심으로-」 『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pp.59~64 ; 崔宰榮, 2002 「唐 前期 三府의 정책과 그 성격」 『東洋史學研究』 77.

3) 박한제, 2019 『중국 중세도성과 호한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374~383 ; 권순홍, 2019 앞의 글, pp.131~136.

4) 권순홍, 2017 「도성 관련 용어 검토-『都·郭·京』을 중심으로-」 『사람』 62, pp.51~58.

5) 矢守一彦, 1970 『都市プランの研究』, 大明堂, p.115 ; 山中章, 1997 『日本古代都城の研究』, 柏書房, p.45.

뛰 말해, 관료제가 공간적으로 구현된 京이 여러 개 설치·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관료제를 한층 확대·재편하려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확대·재편된 관료제를 지방에까지 관철시키려는, 권력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8세기 일본이 일시적으로 兩京을 운영했던 배경으로 관료공급처로서 難波의 기능이 지적된 이유이기도 하다.<sup>6)</sup> 즉, 6~8세기 동아시아의 多京 운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된다. 관료의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전국 통제의 거점을 구축하는 양적 확대의 측면과, 각각의 京이 도성의 각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京의 연결이 곧 도성일 수 있는 질적 확장의 측면이다.

고구려의 三京 중 하나인 別都 漢城 운영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別都 漢城은 지방지배의 거점이자, 남부전선의 군사적 거점이었다는 해석<sup>7)</sup> 이래, 지방세력의 효율적 편제를 통한 지배층의 저변 확대와 그를 토대로 하는 지방 통제의 기능이 주목되었다.<sup>8)</sup> 낙랑·대방 이래 평양의 배후지였던 황해도의 지배세력을 편제의 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漢城 운영은 지배 권력의 확대이자, 平壤의 확장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지역을 차지한 이후, 漢城은 해당 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평양으로 운송하기 위한 중간 집하장으로 조성되었고, 많은 인구가 집주하며 중부지역으로부터 운송된 물자의 관리·비축·소비의 복합기능을 수행한 도회지가 되었다는 해석이 주목된다.<sup>9)</sup> 別都에 편제된 지배세력이 지방으로부터 수취된 물자를 관리·소비하는 등과 같이, 도성의 일부 기능을 나누어 수행했던 사실을 통해 고구려의 漢城 운영은 平壤의 확장으로 이해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과 해석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첫째, 漢城의 입지가 갖고 있는 역사지리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漢城이 도성의 어떠한 기능을 나누어 수행했는지 확인하겠다. 둘째, 漢城의 ‘도시권’을 설정함으로써, 전국 통제의 거점으로서 한성의 도시성을 확인하겠다. 이로써 고구려의 三京 운영 역시 6~8세기 동아시아의 多京 운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南平壤’과 漢城의 관계, 別都 漢城의 설치 시점 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겠다.

## II. 고구려 중·후기 平壤以南 간선도로와 漢城의 입지

427년의 평양 천도는 광개토왕 이래의 남진정책 등 대외전략도 중요한 배경이었지만,<sup>10)</sup> 사회경제적으로 반농반렵 사회에서 농업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농업생산력 제고와, 정치적으로 귀족평의적 전통을 벗어나 대왕전제를 뒷받침할 관료군의 확보 및 관료제의 확대·재편 등 대내적 필요 역시 중요한 배경이었다.<sup>11)</sup>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양

6) 仁藤敦史, 2011 『都はなぜ移るのか』, 吉川弘文館, p.8.

7) 손영종, 1990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p.183~187.

8) 임기환, 2004 「고구려의 副都 漢城과 지방통치」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9) 여호규, 2020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pp.257~267.

10)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鐘路書院, p.203 ; 孫晉泰, 1948 『韓國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p.109.

11)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王權 및 中央集權의 支配體制의 強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취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초월적 대왕권은 증대된 생산량의 중앙 집중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양천도는 필연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 정비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475년, 고구려는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킴에 따라 한강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지역과 평양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정비는 해당 지역의 지배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대동강유역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서해안의 海路를 활용한 수로와 멸악산맥과 마식령산맥, 예성강, 임진강 등 자연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육로로 구분된다. 우선, 육로의 경우 아래 사료가 주목된다.

A-1. [2년(662) 1월] 왕이 金庾信과 金仁問·金良圖 등 아홉 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천여 대에 米 4천 석과 租 2만 2천여 석을 싣고 平壤에 가게 하였다. (중략) 23일에 七重河(임진강)를 건너 蒜壤에 이르렀다. (중략) 2월 1일에 김유신 등이 獐塞(수안)에 이르렀으니, 평양으로부터 3만 6천보 떨어진 곳이다. (중략) 6일에 楊隩에 이르렀다. 김유신이 阿浪 金良圖와 大監 金仁仙 등을 보내 군량을 가져다주며, 蘇定方에게 은 5,700푼, 세포 30필, 머리카락 30냥, 우황 19냥을 주었다. 소정방은 군량을 얻고서는 곧 전투를 멈추고 돌아갔다. 김유신 등은 唐軍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군사를 돌려 瓢川(임진강)을 건넜는데, 고구려군이 추격하자 군사를 되돌려 맞서 싸웠다.<sup>12)</sup>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A-2. [龍朔元年(661년)] 12월 10일 [김유신]이 副將軍 金仁問·眞服·金良圖 등 아홉 장군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군량을 실어서 고구려의 경계를 들어갔다. 임술 정월 23일에 七重河(임진강)에 이르렀다. (중략) 고구려인들이 大路에서 기다릴 것이 염려되어 끝내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였다. 이에 蒜壤에 이르렀다.<sup>13)</sup> (『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 中)

662년, 신라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는 蘇定方의 唐軍에게 군량을 전달해야 했다. A-1 에 따르면, 수송책임자 金庾信은 2천여 대의 수레에 군량을 가득 싣고, 평양으로 행군하였다. 임진강을 건넌 신라군은 수안을 거쳐 평양에 이르렀는데, 신계-수안 지점에서 멸악산맥을 통과하는 가장 북쪽의 방원령로를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주목할 것은 A-2이다. A-1(신라본기)과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A-2(김유신열전)에는 신라군이 고구려군이 지키고 있을 大路를 피해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다시 말해, 김유신이 택한 신계-수안의 방원령로는 당시 大路 즉, 주요 간선도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sup>15)</sup>

化』 2, pp.114~137.

12)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以車二千餘兩，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赴平壤。… 二十三日，渡七重河，至蒜壤。… 二月一日，庾信等至獐塞，距平壤三萬六千步。… 六日，至楊隩。庾信遣阿浪·良圖·大監仁仙等致軍糧，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細布三十匹·頭髮三十兩·牛黃十九兩。定方得軍糧，便罷還。庾信等聞唐兵歸，亦還渡瓢川，高句麗兵追之，迴軍對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3) “十二月十日，與副將軍仁問·眞服·良圖等九將軍，率兵載糧，入高句麗之界。壬戌正月二十三日，至七重河。… 慮麗人要於大路，遂自險隘以行。至於蒜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 이상훈, 2012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pp.103~113.

15) A-2의 해당 구절에 대해, 김유신이 방원령로를 따르되 경로상의 거점이나 성읍을 지나지 않는 우회로를 택했다고 보기도 한다(이상훈, 2012 앞의 글). 이렇게 볼 경우 본래의 방원령로는 大路일 수 있다. 단, 이

평양에서 멸악산맥을 넘어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가는 경로 가운데 위의 방원령로를 제외하면, 두 가지 경로가 남는다. 두 경로는 평양을 출발하여 그 남쪽의 황주와 재령강 유역을 지난 뒤 갈라져, 하나는 동쪽의 서흥-평산을 잇는 지소고개를 통과하여 금천 혹은 토산을 지나 임진강 유역의 장풍으로 향하고(절령로/자비령로), 다른 하나는 남쪽의 재령-신원-해주를 잇는 평탄한 고개를 넘어, 연백평야를 가로질러서 개성으로 향한다(재령로).<sup>16)</sup> 서흥의 대현산성(둘레 약 7km)과 평산의 태백산성(둘레 약 2.5km) 등이 절령로/자비령로의 고구려 관방시설이라면, 신원의 장수산성(둘레 약 10km)과 해주의 수양산성(둘레 약 8km) 등은 재령로의 관방시설인 셈이다. 이는 조선 초 驛路網을 통해 다시 방증된다.<sup>17)</sup>

단, 재령로의 경우 예성강·임진강 하구의 넓은 강폭으로 인해 도하가 쉽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다.<sup>18)</sup> 다시 말해, 평양에서 멸악산맥을 넘어 한강유역에 도달하기 위한 간선도로는 예성강과 임진강의 도하지점을 고려하여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임진강 하구에서 도하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이 호로그루라는 사실이 주목된다.<sup>19)</sup> 임진강 중하류 유역에서 호로그루는 고구려 최대의 거점성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장 주요한 도하지점이었다.<sup>20)</sup> 도하 이후의 경로는 경기북부의 고구려 관방체계를 따라 양주분지와 중랑천로를 따라 아차산 일대의 한강유역으로 이어진다. 결국, 평양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평양-황주-서흥-평산-장풍-호로그루-양주-중랑천로-한강의 경로로 추정된다. 8세기 이후 신라의 간선도로 역시 이와 같은 경로로 복원된다.<sup>21)</sup>

한편, 평양에서 한반도 중부지역, 특히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수로의 경우, 대동강-서해안-한강으로 추정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대동강 수로에서 곧바로 재령강을 거슬러 올라, 앞서 본 재령-신원-해주의 육로를 거친 뒤, 다시 해주에서 해로를 통해 한강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선호되었다는 해석이 주목된다.<sup>22)</sup>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황해도 연안의 첨단부 장산곶 일대는 조선시대 내내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던 곳이었고, 이에 고려와 조선은 장산곶을 피해 그 남쪽에 漕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유의한 결과였다.<sup>23)</sup> 즉, 대동강 하구와 서해안을 따라 장산곶을 통과하여

---

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수송부대로, 2천여 대의 수레를 이끌고 가고 있으므로, 실제로 험하고 좁은 우회로를 지났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경로상의 거점이나 성읍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김유신에게는 군량을 기한 내에 수송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고, 신라 域外에서 예측 불가능한 우회로를 택하는 것은 기한을 맞추지 못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셋째, 만약 주요 거점이나 성읍을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멸악산맥을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방원령(신계-수안)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방원령로가 大路였다면 신계와 수안이야말로 고구려군이 지키고 있었을 주요 거점일 수 있다. 경로상의 다른 거점이나 성읍을 지나지 않는 효과가 작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면 A-2의 좁고 험한 길이 곧 본래의 방원령로를 의미하며, 이 길은 大路가 아니었다고 이해된다.

16) 徐榮一, 2004 「漢城時代의 百濟 北方交通路」 『文化史學』 21, pp.224~225.

17) 鄭栢根, 2008 『高麗·朝鮮初の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6.

18) 徐榮一, 2004 앞의 글, pp.224~225.

19) 심광주·김주홍·정나리, 1999 『연천 호로그루』,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p.48.

20) 백종오, 2022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pp.260~261.

21) 정요근, 2005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長湍渡路」」 『韓國史研究』 131, p.11.

22)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pp.257~261.

23) 정요근, 2014 「고려~조선전기 漕倉의 분포와 입지」 『韓國史學報』 57, pp.137~138.

해로를 남하하는 물길은 상시로 물자가 유통되는 간선도로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요컨대, 평양도성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평양-황주-서흥-평산-장풍-호로고루-양주-중랑천로-한강유역의 육로와 평양-대동강-재령강-재령-신원-해주-서해-한강의 수로, 이상 두 경로로 이해된다. 단, 앞서 언급했던 평양 중심의 수취체계 및 지방 지배와 관련해서는 수로가 육로보다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따라서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는 수로를 통해 한강-서해-해주-신원-재령-재령강-대동강-평양의 경로로 운송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sup>24)</sup> 唐에서 734년 이후 3년간, 운하 등의 水運을 통해 전국의 곡물이 도성 장안으로 운송됨에 따라 육로로 운송할 때에 비하여 40만관의 비용이 절약되었다는 『舊唐書』의 기록<sup>25)</sup>과 육로 운송비용을 수로보다 수십배 비싸게 책정한 『唐六典』의 기록<sup>26)</sup>이 참고된다. 즉,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한 지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는 평양-대동강-재령강-재령-신원-해주-서해-한강 노선이었다고 보아도 좋다. 그리고 바로 이 노선상에 別都 漢城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어렵다.

- B-1. 漢山州, (중략) 漢城郡, <漢忽이라고도 하고, 息城이라고도 하며, 乃忽이라고도 한다.><sup>27)</sup> (『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 B-2. 重盤郡: 본래 고구려 息城郡으로 景德王이 개명하였다. 지금의 安州이다.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新羅)
- B-3. 載寧郡, (중략)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息城郡이다. <漢城郡이라고도 하고, 乃忽이라고도 하며, 漢忽이라고도 한다.> (중략) 新增: 금상(조선 중종) 14년(1519), 옛 邑居에 전염병이 많아 지금의 治所로 옮겼다. 동쪽으로 옛 郡治와 60리 떨어져 있다.<sup>28)</sup>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
- B-4. 연혁: 본래 고구려의 漢忽로, <乃忽이라고도 한다.> 후에 漢城으로 고쳤다. <息城이라고도 한다.> (중략) 중종 14년(1519)에 劍山에 옮겨서 설치하였다. <옛 군치는 장수산 남쪽 5리에 있다.><sup>29)</sup> (『大東地志』 卷17, 黃海道, 載寧)

24)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pp.257~261.

25) “至[開元]二十一年, 耀卿爲京兆尹, 京師雨水害稼, 穀價踊貴, 玄宗以問耀卿, 奏稱, 昔貞觀永徽之際, 祿廩未廣, 每歲轉運, 不過二十萬石便足. 今國用漸廣, 漕運數倍, 猶不能支. 從都至陝, 河路艱險, 既用陸運, 無由廣致. 若能兼河漕, 變陸爲水, 則所支有餘, 動盈萬計. 且江南租船, 候水始進, 吳人不便漕輓, 由是所在停留, 日月既淹, 遂生竊盜. 臣望於河口置一倉, 納江東租米, 便放船歸. … 至二十二年八月, … 尋以耀卿爲黃門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充江淮. 河南轉運都使. … 凡三年, 運七百萬石, 省陸運之備四十萬貫.” (『舊唐書』 卷49, 志29, 食貨下; 1975 『舊唐書』, 中華書局, pp.2115~2116)

26) “凡天下舟車水陸轉運皆具爲脚直, 輕重. 貴賤. 平易. 險澀, 而爲之制. 河南. 河北. 河東. 關內等四道諸州運租. 庸. 雜物等脚, 每馱一百斤, 一百里一百文, 山阪處一百二十文, 車載一千斤九百文. 黃河及洛水河, 並從幽州運至平州, 上水, 十六文. 下, 六文. 餘水, 上, 十五文, 下, 五文.” (『唐六典』 卷3, 尚書戶部; 2003 『역주 당육전 상』, 신서원, pp.348~349)

27) “漢山州, … 漢城郡, <一云漢忽, 一云息城, 一云乃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8) “載寧郡, … 建置沿革: 本高句麗息城郡. <一云漢城郡, 一云乃忽, 一云漢忽.> … 新增: 今上十四年, 以舊邑居多癘疫, 移于今治. 東距舊郡六十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9) “沿革: 本高句麗漢忽, <一云乃忽.> 後改漢城. <一云息城.> … 中宗十四年移置于劍山. <古治在長壽山南五里.> (국립중앙도서관 MF 2700-1)

B-1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의 漢城郡으로 재편된 漢城은 漢忽, 息城, 乃忽 등으로도 불렸고, B-2에 따르면 息城은 고구려 때의 지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1의 漢忽·乃忽과 같이 고구려 계통 지명의 語尾가 활용된 사례의 경우, 고구려 당대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B-3은 이곳이 이후에 載寧郡으로 재편되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특히, B-3에 따르면, 1519년에 본래의 재령군 군치에 전염병이 많아서, 그 서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군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의 별도 한성 이래 조선시대 재령군의 옛 군치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지는 1519년에 옹기 새로운 군치의 동쪽 60리(약 22.5km) 쯤에 위치하는 셈이다. B-4는 구체적으로 옛 군치가 장수산 남쪽 5리에 있었다고 전한다. 이로써 현 재령 읍내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20.5km 떨어져 있는 장수산성 일대가 주목될 수 있었다.

황해도 신원군의 장수산성은 둘레 약 10km에 달하는 대형 석축 산성으로, 그 내부 곳곳에서 고구려시기의 붉은색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었다.<sup>30)</sup> 특히, 1984년 장수산성 남쪽의 아양리 일대에서 고구려 시기의 도시유적을 확인하였고,<sup>31)</sup> 이듬해부터 3년간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장수산성 남쪽에서 재령강을 사이에 둔 아양리 일대와 월당리 일대에서 동서로 약 4km, 남북으로 약 4.5km의 범위에 고구려시기의 건축군과 기와가 산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32)</sup> 또 2008년 발굴 조사에서는 월당리에서 강자갈을 20~25cm 두께로 깔아서 만든 포장도로가 약 120m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평행하게 조성되었고, 그와 교차하는 동서 도로의 흔적이 확인되었다.<sup>33)</sup> 기와에도 아양리 일대에 1980년대까지 남아있던 직교하는 돌담과 흙담을 통해 정연한 격자형 가로구획을 추정하기도 했다.<sup>34)</sup> 이에 따라 장수산성 남쪽의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가 격자형 가로구획이 조성된 고구려의 副都 혹은 別都 漢城의 중심지로 추정되었고,<sup>35)</sup> 명실상부한 京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sup>36)</sup>

특히, 해당 지역은 재령평야에서 해주로 넘어가는 재령로의 평탄한 고갯길 중간 쯤에 위치한다. 즉,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한 수취체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의 노선(평양-대동강-재령강-재령-신원-해주-서해-한강)상에서 두 개의 수로(평양-대동강-재령강의 수로와 해주-서해-한강의 수로) 사이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육로(재령-신원-해주)의 중간 기착지였다. 간선

30) 리승혁, 1985 「장수산성의 축조 형식과 년대」 『역사과학』 1985-4, p.35 ; 안병찬, 1990 「장수산일대의 고구려유적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pp.8~9.

31) 리승혁, 1985 앞의 논문, p.35 ; 최창빈, 1985 「신원에서 고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 『역사과학』 1985-4.

32) 안병찬, 1990 앞의 논문, p.9 ; 손영중, 1990 앞의 책, pp.179~180.

33) 최승택, 2009 「장수산일대의 남평양도시유적에서 새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 발굴」 『조선고고연구』 2009-4, p.45.

34) 최창빈, 1985 앞의 논문, p.47 ; 손영중, 1990 앞의 책, pp.180~181. 한편, 1980년대까지 남아있던 돌담 및 흙담의 경우, 동북-서남, 서북-동남 방향으로 직교했던 반면, 2008년에 조사된 도로구획의 경우 정남북-동서로 교차한다는 점에서 축선이 다르다는 특징이 포착된다(최승택, 2009 앞의 논문, p.45). 단, 남아있던 돌담 및 흙담의 경우 재령강 서쪽의 아양리 일대에서 주로 확인된 반면, 2008년에 조사된 도로구획은 재령강 동쪽의 월당리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재령강으로 구분된 양쪽 도시간 축선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35) 임기환, 2004 앞의 논문, pp.22~23 ;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pp.262~264.

36) 권순홍, 2020 「평양 도성의 경관을 통해 본 고구려 지배질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6, pp.237~241.

도로로 운송·유통되는 물자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충이었던 것이다.

### III. 漢城의 ‘도시권’

別都 漢城에 관해서는 『周書』(636)와 『隋書』(656) 등 7세기에 편찬된 사료가 전하고 있다. 435년에 고구려를 방문했던 李敖의 견문과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魏書』(554)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세기 중반 이후에 설치·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C-1. 도성은 平壤城이다. 그 성은 동서 6리이며 남쪽으로 溟水에 臨한다. (중략) 그 밖에 國內城과 漢城이 있으니, 또한 別都이다. 다시 遼東과 玄菟 등 수십 개의 성이 있다. 모두 官司를 두어 관할 통치하였다.<sup>37)</sup>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高麗)
- C-2. 平壤城에 道읍하였다. 長安城이라고도 한다. 동서 6리이며 산을 따라 굴곡이 지고, 남쪽으로 溟水에 臨한다. 다시 國內城·漢城이 있는데, 모두 都會之所이며 그 나라에서는 三京이라고 부른다.<sup>38)</sup>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 C-3. 丙戌年 2월 중에 漢城에 있는 後部 小兄 文達이 통제하여 여기서부터 서북쪽으로 진행하여 오른다.<sup>39)</sup> (<평양성 각자성석 제4석>)

C-1과 C-2에 따르면, 漢城은 別都이자, 京이었다. 궁실과 종묘를 갖추지 않음으로써, 正都/主都일 수 없었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격자형 가로구획이 조성됨에 따라 지배권력이 상주하는 京일 수 있었다. C-3은 漢城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으로, 丙戌年은 566년으로 이해된다. 특히, 漢城에도 도성과 마찬가지로 後部 등 방위명부의 도성 편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小兄의 관등소지자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京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생산에서 벗어난 지배권력의 집주처였으므로 소비 위주의 도시였고, 따라서 C-2와 같이 都會之所로 평가될 수 있었다.

도회지이자 대소비처로서 漢城의 도시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변 배후지에서 漢城으로의 공급망이 필수적이다. 바꿔 말해, 漢城 後部 小兄과 같이 생산활동에서 벗어난 비농업인구가 밀집 거주하는 도시의 외부의존성과 비자급자족성을 유의하면, 漢城의 존립을 위한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위성취락/촌락과 漢城 간의 관계망이 짐작된다. 생산뿐 아니라, 종교·여가·매장·군사방위 등 도시의 여러 기능은 도시 바깥의 ‘지역’ 공간에 분산적으로 배치되는데, ‘도성권/도시권’은 이처럼 도시/도성의 각종 기능을 나눠 갖고 있는 주변의 지역공간을 포괄하는 일종의 관계권을 의미한다.<sup>40)</sup> 직접 사료가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방증자료를 통해 漢城을 중심으로 하는

37) “治平壤城. 其城, 東西六里, 南臨溟水. … 其外有國內城及漢城, 亦別都也, 復有遼東玄菟等數十城, 皆置官司, 以相統攝.” (1971 『周書』, 中華書局, p.884)

38) “都於平壤城, 亦曰長安城, 東西六里, 隨山屈曲, 南臨溟水. 復有國內城漢城, 並其都會之所, 其國中呼爲三京.” (1973 『隋書』, 中華書局, p.1814)

39) “丙戌二月中, 漢城下後 小兄文達節, 自此西北行[徠]之.” 판독안은 기경량, 2017 「평양성 출토 고구려 刻字城石의 판독 및 위치 재검토」 『사학연구』 126, pp.187~192 참조.

40) ‘도성권’의 개념에 관해서는 권순홍, 2019 「‘도성권’의 개념과 고구려 ‘도성권’의 등장」 『고구려발해연구』

‘도시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우선, 한성 거주민들의 매장지가 주목된다. 1980년대 조사 당시, 아양리와 월당리 주변에는 1천여기 이상의 고구려 무덤이 산재하였고,<sup>41)</sup> 구체적으로, 장수산 남쪽 기슭과 긴재동, 월당리의 룡호산 등지에 고구려시기의 석실봉토분이 1천여기 확인되었다.<sup>42)</sup> 격자형 가로구획 바깥으로 주민의 매장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의 매장지 외에, 漢城에서 100리 거리에 조성된 벽화고분의 존재 역시 주목된다. 만약 京으로서의 漢城에 관료들의 택지가 발급되었다면,<sup>43)</sup> 택지를 발급 받고 한성에 거주했던 관료/귀족들의 매장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마행렬도나 귀족들의 생활풍속도가 그려진 벽화의 내용과, 벽화를 그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벽화고분의 피장자는 부와 권력을 지닌 귀족/고위관료로 추정된다. 특히, 벽화고분의 분포가 중국 집안권과 평양권, 두 권역에 밀집해 있다는 것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피장자들이 대개 도성 거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단, 평양권으로 분류되는 안악일대 벽화고분의 경우, 도성 평양보다는 漢城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안악일대의 고구려 벽화고분은 13기 정도이고, 이 가운데 평양으로 천도한 5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해석되는 고분은 4기이다.<sup>44)</sup> 이들의 위치는 각각 안악군 대추리/평정리(안악 2호분[5세기 후반]·평정리고분[6세기 전반 이전])와 월정리(월지리 1호분[6세기 전반]·월지리 2호분[6세기 전반])로 평양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70~75km 떨어져 있는 반면, 장수산성 일대에서는 약 31~41km 떨어져 있다. 漢尺으로는 100리가 약 42km, 고구려적으로는 약 36~63km이므로, 한성으로부터 100리 거리에 해당한다. 즉, 안악일대 벽화고분의 피장자는 한성 거주자였을 가능성이 있다.<sup>45)</sup>

漢城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은 帶方郡과 屬縣 간의 관계망으로 방증된다. 『樂浪郡 戶口簿』에 나오는 낙랑군의 25개현은 지역에 따라 넷으로 구분되는데,<sup>46)</sup> 그 가운데 屯有縣 이남의 ‘2구역’은 帶方·列口·長岑·海冥·昭明·提奚·含資로, 낙랑군 남부도위의 관할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7)</sup> 『後漢書』 郡國志에도 여전히 ‘2구역’의 7개현이 존속했고,<sup>48)</sup> 建安 연간에 公孫康은 둔유현 이남의 ‘2구역’을 대방군으로 재편하였다.<sup>49)</sup> 남부도위 편제와 대방군 설치의 해당 지역과 낙랑의 평양간 지

64 참조.

41) 최창빈, 1985 앞의 논문, p.47.

42) 안병찬, 1990 앞의 논문, p.10.

43) 권순홍, 2020 앞의 논문, pp.237~243.

44) 축조연대에 대한 해석은 전호태, 2020 『고구려 벽화고분의 과거와 현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참조.

45) 임기환, 2004 앞의 논문, pp.16~17. 단, 안악일대의 벽화고분 가운데 안악3호분 등 평양 천도 이전, 다시 말해 別都가 설치되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의 경우, 그 피장자의 거주지가 漢城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6)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20~121.

47) 손영중, 2006 앞의 책, p.121 ; 윤용구, 2010 『낙랑군 초기의 군현 지배와 호구 파악』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189~196.

48) “樂浪郡: 武帝置. 雒陽東北五千里; 十八城, 戶六萬一千四百九十二, 口二十五萬七千五十. 朝鮮 誦邯. 涓水. 含資. 占蟬. 遂城.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 鑊方. 提奚. 渾彌. 樂都.” (『後漢書』 卷37, 志23, 郡國 5 : 1965 『後漢書』, 中華書局, pp.3529~3530)

49)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 韓 : 1959 『三國志』, 中華

리적 격절과 정치적 공간 구분을 의미한다. 한편, 안악을 포함한 황해도 지역의 전실묘가 평양일대의 전실묘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sup>50)</sup>을 통해 대방군 설치 이래 재령강 유역과 그 이북의 평양지역은 문화적으로도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안악일대는 평양권과는 구분되는 정치적·문화적 전통을 가졌고, 따라서 안악일대에 매장지를 둔 주민집단의 거주지는 평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대방군치로 비정되는 봉산의 지탑리토성을 중심으로 군치와 6개의 속현간 도로연결을 포함한 수취체계 및 물자유통 등의 관계망이 짐작된다. 단, 대방군이 축출됨에 따라, 대방군 고지의 중심은 봉산에서 신원(한성)으로 교체되었고, 기왕의 군치 중심 관계망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봉산은 대동강-재령강을 거쳐 서흥-평산으로 넘어가는 절령로/자비령로의 중간에 위치하며, 평양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간선도로 노선상 교통의 요지에 있던 반면, 신원은 앞서 지적한대로 재령-해주-서해-한강으로 이어지는 물류 중심 간선도로 상 중간 기착지였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전략에 부합하였다. 단, 대방군 고지를 하나의 문화적·경제적 권역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정서는 존속했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314년 대방군 축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에 대한 해석이 주목된다. 대방군 고지에 오랜 기간 살아온 토착세력을 지배하기 위한 이례적 방식으로 고구려는 중국계 망명인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이해되는데,<sup>51)</sup> 4세기 이래 화북지역의 유이민 파동과 그에 따른 고구려를 포함한 주변국의 이주민 수용에 주목하여, 유입되는 중국계 이주민을 대방군을 포함한 2군 고지에 ‘안치’시켰던 상황을 고려하기도 한다.<sup>52)</sup> 장무이묘, 안악3호분 묘주와 같은 중국계 망명인 유력자가 고구려왕으로부터 인정·부여받은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며 해당지역을 관할했다는 해석이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인정한다면, 대방군 고지에는 고구려의 용인 하에 중국계 망명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정치적·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수 있고, 이는 이후 고구려의 別都 漢城 설치의 토대/기반일 수 있었다.

漢城 ‘도시권’의 또 다른 방증사료로, 고구려 멸망 직전에 漢城이 그 예하 성들과 함께 唐에 투항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668년 6월] 22일에 都督府城의 劉仁願이 貴干 未盼을 보내, 고구려의 大谷<sub>ᄃᆞᆫ</sub>과 漢城 등 2郡 12城이 귀복하였다고 고하였다.<sup>53)</sup>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위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하기 3개월 전인 668년 6월에 고구려의 대곡<sub>ᄃᆞᆫ</sub>과 한성 등 2개 郡이 예하의 12개 城을 이끌고 唐의 熊津都督府에 투항하였다. 『翰苑』所引 『高麗記』와 『舊唐

書局, p.851)

50) 오영찬, 2003 「帶方郡의 郡縣支配」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204~208.

51)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歷史學報』 147 ; 김미경, 1996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 『學林』 17.

52) 안정준, 2016 「高句麗의 樂浪·帶方郡 故地 지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3) “二十二日, 府城劉仁願遣貴干未盼, 告高句麗大谷<sub>ᄃᆞᆫ</sub>·漢城等二郡十二城歸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書』·『新唐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구려 후기의 지방행정단위는 大城(儂薩)-城(可邏達 등)의 위계로 구성되는데,<sup>54)</sup> 別都 漢城은 儂薩이 관장하는 최상위급 군사/행정단위로서 大城으로 파악된다.<sup>55)</sup> 위의 대곡은 大谷城으로 추정되는데, 處閭近支급 행정단위로 파악된다.<sup>56)</sup> 12개 성은 한성과 대곡성 예하의 可邏達 혹은 屢肖급의 행정단위로 이해된다. 왕을 배신하는 반란행위였으므로, 12개성이 대곡과 한성을 따른 이유가 단지 행정적 종속이나 군사적 위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운명공동체였는데, 정치·행정적 단위를 포함하여 경제적·문화적 지역공동체라는 정서가 개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漢城 예하 城들의 구체적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城은 군사적 기능뿐 아니라 지방행정단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유의하면, 한성을 방위하는 衛城이 곧 한성의 위성취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성 분포가 장수산성 중심의 관방체제로 설명되기도 하는데,<sup>57)</sup> 특히 서북쪽의 구월산성과 동북쪽의 대현산성, 남쪽의 수양산성이 주목된다. 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관문 역할을 중대형 산성들로서, 한성으로부터 약 100리 거리에 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해도 은율과 안악 경계에 있는 구월산성은 대동강 하류를 방어하는 산성으로 대동강과 재령강을 거슬러 한성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한성으로부터 서북쪽 약 50km 거리에 있다. 서흥의 대현산성은 절령로/자비령로의 관문으로 한성에서 동북쪽 약 44km 거리에 있고, 해주의 수양산성은 재령로의 관문으로 한성에서 남쪽 약 20km 거리에 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한성 거주 관료/귀족들의 매장지가 한성에서 100리 거리의 안악 일대에 있었던 사실과 함께, 한성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방위성이 100리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한성의 ‘도시권’, 즉 한성의 위성취락과 한성 주민의 매장지가 반경 100리 범위에 분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고구려 후기 한성은 別都이자 京으로서 외부의존적·비자급자족적 도시였고, 따라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망이 필수적이었다. 안악일대에 분포하는 벽화고분과 주요 관문에 위치하는 방

54) “高麗記曰, … 又其諸大城置儂薩, 比都督, 諸城置處閭區刺史, 亦謂之道使. 道使治所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 (『翰苑』 卷30, 蕃夷部, 高麗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2018, 210~212쪽) “外置州縣六十餘城. 大城置儂薩一, 比都督. 諸城置道使, 比刺史.”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 『舊唐書』, 中華書局, 1975, 5319쪽) “其州縣六十. 大城置儂薩一, 比都督, 餘城置處閭近支, 亦號道使, 比刺史.”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 『新唐書』, 中華書局, 1975, 6186쪽) 단, 小城(可邏達)과 城(婁肖)에 대한 해석에 따라 4단계설(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p.147), 3단계설(武田幸男, 1980 「朝鮮三國의 國家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7, pp.41~43 ; 金賢淑, 1997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的 地方統治體制的 發展過程」 『한국고대사연구』 11, pp.341~350), 2단계설(盧泰敦, 1996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 pp.214~227) 등 이견이 있다.

55) 盧泰敦, 1996 앞의 논문, pp.203~227.

56) 大城(儂薩)으로는 遼東城.烏骨城.柵城.國內城.漢城의 5개 성이 비정되며(이성제, 2018 「儂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한국고대사연구』 92), 北扶餘城.建安城.新城을 포함하여 8개 성으로 보기도 하고(盧泰敦, 1996 앞의 논문), 卑奢城.夫餘城까지 포함하여 10개 성으로 보기도 한다(金賢淑, 1997 앞의 논문, p.59). 대곡성은 大城(儂薩)으로 보기 어려운데, 예하에 城을 거느린 것으로 보아 處閭近支급으로 이해된다.

57) 최승택, 2010 「장수산성에 관한 연구」 『고고학연구논문집 24(조선사회과학학술집 292)』, 사회과학출판사, pp.224~235 ; 신광철, 2011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제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 35, pp.201~207.

위성/위성취락들은 한성 ‘도시권’의 범위를 짐작하게 하였다. 특히, 대방군 이래 형성되어 온 재령강 유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공동체성이 한성 ‘도시권’의 존재를 방증하였다.

#### IV. 別都의 설치와 재편

別都의 설치 시점에 관해서는 크게 4세기설<sup>58)</sup>과 5세기중반설<sup>59)</sup>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 중 4세기설의 주요 근거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장수산성 남쪽 아양리의 평지성 유적 내부에서 확인된 ‘永嘉七年(313)’銘 전돌이다.<sup>60)</sup> 해당 유물이 붉은 기와 문화층, 즉 고구려시기 문화층에서 확인되었고, 앞서 언급했듯 이 문화층은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했으므로 4세기 초에 이미 고구려의 주요 도시가 이 지역에 조성되었다고 본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 지리지와 『삼국유사』 등에 나오는 백제의 고구려 공략 기사이다.

- D-1. 古典記를 살펴보니, (중략) 13世 近肖古王(재위 345~376)에 이르러 고구려의 南平壤을 빼앗고, 漢城에 도읍하였다. 105년을 지냈다.<sup>61)</sup>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 백제)
- D-2. 古典記를 살펴보니, (중략) 13世 近肖古王때인 咸安元年(371)에 이르러 고구려의 南平壤을 빼앗고, 漢城<지금의 양주이다.>에 도읍하였다. 105년을 지냈다.<sup>62)</sup>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전백제·북부여)
- D-3. 41년(371), 겨울 11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막았는데,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다. 이 달 23일에 죽었다. 故國之原에서 장사지냈다.<sup>63)</sup>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 D-4. 26년(371) (중략)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고, 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斯由(고국원왕)가 힘써 싸우며 막았는데,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근초고왕이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sup>64)</sup>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58) 리승혁, 1985 앞의 논문, p.36 ; 안병찬, 1990 앞의 논문, p.11 ; 손영중, 1990 앞의 책, pp.174~187 ; 최승택, 1991a 「장수산성 1호건물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p.38.

59)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pp.264~267. 한편, 475년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한강유역에 부수도로서 남평양을 설치했다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551년 이후 부수도를 장수산성 일대로 이치했다는 해석(김훈, 2022 「고구려 ‘남평양’ 위치와 변천에 관한 검토」 『전북사학』 66, pp.23~25) 역시 別都의 설치를 5세기 중후반으로 본 셈이지만, 앞서 지적했던 『삼국사기』 지리지 등의 ‘남평양’에 대한 해석 문제 등에 대한 사료 비판이 결여되어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특히, ‘남평양’이 부수도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학계와 같은 선형적 판단을 따르고 있다.

60) 안병찬, 1990 앞의 논문, p.9 ; 최승택, 1991b 「장수산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3, p.18.

61) “按古典記, … 至十三世近肖古王, 取高句麗南平壤, 都漢城. 歷一百五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2) “按古典記, … 至十三世近肖古王咸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壤, 移都漢城<今楊州>. 歷一百五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3) “四十一年, 冬十月, 百濟王攀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薨. 葬于故國之原.”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4)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국사편찬위원회)

D-1과 D-2에 따르면, 백제 근초고왕이 4세기 말에 고구려의 남평양을 공격했다고 전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남평양은 ‘남쪽의 평양’이자 ‘또 다른 평양’ 즉, 부수도일 것이라는 선험적 판단과 함께, 남평양을 장수산성 일대로 비정함으로써, 이 일대가 고구려의 남부지방 지배의 거점이자 부수도로서 기능하였다고 해석한 것이었다.<sup>65)</sup> 그러나 ‘평양’은 반드시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구축한 거점’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로 주로 활용되었으므로,<sup>66)</sup> ‘남평양’이 꼭 부수도일 필요는 없다. 특히, 같은 내용을 전하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D-3)와 백제본기(D-4)에 따르면, 근초고왕이 공격한 것은 남평양이 아닌, 평양성이었다. 이에 따라 D-1과 D-2에서 인용한 古典記의 기록, 즉 근초고왕이 공략한 곳이 고구려의 남평양이라는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된다.<sup>67)</sup>

당시 백제가 멸약산맥 곳곳에 배치된 고구려 방어선을 뚫고 평양까지 침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 판단에 따라 D-3과 D-4의 평양성이 오히려 남평양의 오류라고 보기도 하지만,<sup>68)</sup> 앞서 언급했듯 4세기 당시 고구려의 2군 고지 지배의 특수성과 거점 중심 지배의 한계, 침공 이후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백제의 빠른 철수 등을 근거로 D-3과 D-4의 평양성은 현재의 평양으로 보더라도 문제없다고 판단된다.<sup>69)</sup> 이에 따라 황해도 황주에서 확인된 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백제토기가 이때 백제의 평양성 침공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70)</sup> 다시 말해, D-1과 D-2의 남평양은 오류이고, 따라서 371년에 ‘남쪽의 평양’으로 불릴만한 고구려의 주요 도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오히려 D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371년 당시에 평양성 이남에는 백제가 공략할 만한 고구려의 주요 거점 혹은 別都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국 4세기설의 남은 유일한 근거는 아양리에서 확인된 ‘永嘉七年’명 전돌뿐인데, 이 전돌은 4세기 초에 해당 지역이 고구려의 주요 거점일 수 있다는 사실만을 전할 뿐 別都의 설치를 입증하지 않는다. 즉, 別都의 설치가 4세기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미 지적한대로, 『위서』에는 別都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別都는 李敖가 고구려를 다녀간 435년 이후에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세기 후반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 장에서 검토했던 漢城의 입지를 유의하면서 5세기 중반 이래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공략과 그에 따른 이 방면에 대한 간선도로 설치 및 수취체계 정비 등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475년 고구려의 한강유역 석권 이후 別都가 본격적으로 조영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었다.<sup>71)</sup> 李敖가 다녀간 435년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이전이므로,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한 수취를 전제로 하는 別都 漢城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점일 수 있었다. 단, 한강 유역을 장악한 것은 475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한강 유역을 공략하고 있었다는 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5) 손영종, 1990 앞의 책, pp.183~187.

66) 여호규, 2021 「고구려의 ‘남평양’ 건설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p.47.

67) 임기환, 2002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p.19.

68) 손영종, 1990 앞의 책, pp.176~177.

69) 정재운, 2012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4, p.62.

70) 崔鍾澤, 1990 「黃州出土百濟土器例」 『한국상고사학보』 4, p.334.

71)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pp.264~267.

에서 別都의 설치는 475년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別都 漢城의 설치에는 위와 같은 한반도 중부지역 통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재편 과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성의 위치는 帶方郡 故地에 해당했던 사실이 유의된다. 314년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은 427년 평양 천도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즉, 314년 이후 약 1백여 년간은 대방군 이래 군현계 토착세력 및 중국계 망명 엘리트를 활용하여 이 지역을 경영하였고,<sup>72)</sup> 평양 천도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그 이남의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재편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지역의 유력자들을 일원적 관료체계로 편입시키며, 지역의 거점에 別都를 설치하고 택지를 발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단, 장수산성과 그 일대는 대방군이 축출된 직후 고구려가 건설한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永嘉七年(313)’명 전돌이 주목된다. 해당 전돌은 아양리토성 내부의 붉은 기와층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붉은기와 문화층과 그 아래 청회색기와 문화층 사이에서 ‘영가칠년’명 전돌과 같은 회색전돌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sup>73)</sup> 붉은기와 문화층이 4세기초부터 조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의 도시유적은 맨 위에서부터 회색기와 문화층, 붉은기와 문화층, 청회색기와 문화층으로 구분되는데,<sup>74)</sup> 붉은기와 문화층이 고구려시기라면, 그 이전에 청회색기와로 조성된 도시가 선행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4세기 초 중국계 망명 엘리트들에 의한 도시 건설이 추정된다. 대방군의 속현 가운데 이곳에 현치를 두었던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방군 축출 직후 고구려가 활용했던 중국계 망명 엘리트들이 대방군 고지 경영을 위해 신설한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대로, 이를 통해서는 4세기 초에 고구려의 거점이 신설되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別都 설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앞 장에서 본대로, 別都의 설치는 평양 천도를 계기로 하는 5세기 중후반에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전략의 경제적·정치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다. 즉, 장수산성 일대는 별도 설치 이전에 이미 고구려의 대방군 고지 경영의 거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아래의 청회색기와 문화층이 바로 이 시기의 흔적일 수 있다. 앞서 본 B-1과 B-2가 다시 주목된다.

- B-1. 漢山州, (중략) 漢城郡, <漢忽이라고도 하고, 息城이라고도 하며, 乃忽이라고도 한다.><sup>75)</sup>  
(『三國史記』卷37, 雜誌6, 地理4, 高句麗)
- B-2. 重盤郡: 본래 고구려 息城郡으로 景德王이 개명하였다. 지금의 安州이다. (『三國史記』卷35, 雜誌4, 地理2, 新羅)

72) 窪添慶文, 1981 「樂浪郡と帶方郡の推移」『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歷史學報』147 ; 김미경, 1996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學林』17 ; 안정준, 2016 「高句麗의 樂浪·帶方郡 故地 지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3) 최승택, 2010 앞의 논문, p.176.

74) 안병찬, 1990 앞의 논문, p.10.

75) “漢山州, … 漢城郡, <一云漢忽, 一云息城, 一云乃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성의 별칭 가운데 息城이 주목된다. 漢忽과 乃忽 등 고구려 지명 어미가 붙은 경우는 행정단위명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계 망명인 지배층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3에서 보았듯, 늦어도 6세기 중반경부터 漢城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고, 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가 해당 지역을 재편할 때까지도 한성이라는 지명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息城은 한성 이전의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대방군과 그 속현 중 息城이라는 지명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결국 息城은 대방군 축출 이후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단위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대방군 시기에는 변방이었던 장수산성 일대에 4세기 이후, 息城이 설치되어 대방군 고지의 거점으로 기능하였고, 5세기 후반에 이르러 別都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붉은기와 문화층이 조성된 것은 이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別都가 신설된 5세기 후반부터 漢城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의할 것은 한성 인근의 재령강은 漢으로 지칭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漢을 ‘크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지만,<sup>76)</sup> 漢山과 漢城의 경우 ‘큰 산’, ‘큰 성’이 아니라, ‘漢水 인근의 산’, ‘漢水 인근의 성’이라는 의미로 파악되므로,<sup>77)</sup> 비록 처음에는 ‘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더라도, 4세기 중반경 漢은 漢水(한강)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551년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이 주목된다. 이른바 ‘남평양’으로 비정되는 아차산 일대를 거점으로 한강유역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지배했던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 연합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였고, ‘남평양’은 철수하였다. 그리고 거점으로서 ‘남평양’의 기능은 분산되어 한성으로 이관·재편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sup>78)</sup> 아래의 사료와 같이 한강 남안의 백제 漢城과 북안의 고구려 ‘남평양’은 하나의 권역으로 이해될 소지가 컸다.

- E-1. 이해(551)에 백제 성명왕이 몸소 군사 및 두 나라<두 나라는 신라임나를 말한다.>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서 漢城의 땅을 획득하였다.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다. 모두 6군의 땅으로, 마침내 고지를 회복하였다.<sup>79)</sup>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
- E-2. 이해(552)에 백제는 한성과 평양을 포기하였다. 신라가 이로 인해 한성에 入居하였다. 현재 신라의 牛頭方, 尼彌方이다.<지명은 미상이다.><sup>80)</sup>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E-1와 E-2에 따르면, 551년 백제는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성과 평양을 공격하여 수복하였는데, 이듬해(552)에 포기함에 따라 신라가 한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 등에 전하는 553년 7월, 신라의 新州 설치가 바로 그 결과였다.<sup>81)</sup> E-1에서 백제가 고지를

76) 今西龍, 1912 「百濟國都漢山考」 『史學雜誌』 23-1 :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p.279.

77) 津田左右吉, 1913 「百濟慰禮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pp.45~48.

78) 손영종, 2007 『조선단대사(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85~186.

79)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坂本太郎 外, 1965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p.101)

80)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 未詳.>” (坂本太郎 外, 1965 앞의 책, p.103)

81)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滄武力爲軍主.”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14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31년 :

회복하였다고 하므로, 여기서 한성과 평양은 옛 백제 땅으로 이해되고, 특히 한성은 백제의 초기 도성을 가리킨다.<sup>82)</sup> 주목할 것은 E-1에 나오듯, 551년에 백제가 옛 도성이었던 한성을 수복한 뒤,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때 평양을 현재의 평양<sup>83)</sup> 혹은 4세기 이래의 남평양 즉, 장수산성 일대로 보기도 하지만,<sup>84)</sup> E-1의 문장 구조상 한성과 평양을 포함한 6군의 땅이 곧 백제의 고지로 해석됨에 따라,<sup>85)</sup> 이때 평양, 즉 ‘남평양’<sup>86)</sup>은 백제 한성에서 멀지 않은 한강 이북으로 이해된다.<sup>87)</sup> 그 구체적 위치로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보루의 분포양상을 고려함과 동시에 고지형을 검토함으로써, 중랑천변의 장안평을 주목하기도 한다.<sup>88)</sup> 이처럼 E-1의 ‘남평양’이 백제 한성에서 멀지 않은 한강 이북이라면, 한성과 ‘남평양’은 비록 중심지의 구체적 위치는 한강이남과 이북으로 다를지라도,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주요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같았다.

別都 漢城이라는 지명이 566년에 처음 확인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강유역의 ‘남평양’이 철수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남평양’이 평양 가까이의 장수산성 일대로 이치됨에 따라, 같은 권역의 지명 漢城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요컨대, 장수산성 일대는 대방군 축출 이후(4세기 초), 대방군 고지 경영을 위한 거점(息城)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한강 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지역을 경략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효율적 지배를 위해 5세기 후반 경 息城은 別都로 재편되었다. 한편, 6세기 중반경 한강 유역을 상실함에 따라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의 거점이었던 ‘남평양’의 여러 기능이 別都로 이관되었고, 이와 동시에 별도의 명칭 역시 한강 유역의 지명 漢城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을 통해 평양이남 간선도로의 구성을 확인하고, 고구려 별도 한성의 입지와 기능, 도시성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2) 백제 초기 도성에 대한 통칭은 475년까지 ‘위례성’이었으나,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475년 이래 백제 고도에 대한 통칭이 ‘한성’으로 바뀌었다(余昊奎, 2002 「漢城時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백제연구』 36, pp.10~17).

83) 임기환, 2002 앞의 논문, pp.18~20.

84) 양기석, 2005 「5~6세기 百濟의 北界-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 20, pp.48~49.

85) 전덕재, 2009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서울과 역사』 73, pp.9~11(pp.107~109) ; 여호규, 2021 앞의 논문, pp.42~44.

86) 근초고왕대 등장했던 ‘남평양’은 평양성의 오류였던 반면, 이때의 ‘남평양’은 E-1과 E-2 등의 평양으로, 6세기 중반에 한강 이북에 있던 고구려의 거점을 가리킨다. 평양이라는 지명은 ‘평지에 구축한 거점’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라는 점과, 현재 평양에 도성이 있던 6세기 당시에는 도성을 의미하는 ‘國城’ 등의 일반명사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한강 이북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었다(여호규, 2021 앞의 논문, p.47). 단, 현재 평양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사료에 나오는 6세기 평양을 ‘남평양’으로 표기한다.

87)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p.185 ;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pp.33~37.

88) 여호규, 2021 앞의 논문, pp.48~61.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평양-대동강-재령강-재령-신원-해주-서해-한강으로 이어지는 수운 중심의 간선축이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지배·수취하기 위한 주축이었고, 장수산성 일대는 수로와 육로가 교차하는 내륙 교통 결절부로 기능하였다. 둘째, 아양리와 월당리 일대의 격자형 가로구획은 이곳이 비자급적 소비도시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구월산성·수양산성·대현산성 등 관문 방위성의 연계, 안악일대 고구려 벽화고분의 100리 범위 내 분포는 도시 중심과 주변에서 생산·의례·방위가 분담되는 ‘도시권’의 실재를 방증한다. 셋째, 4세기 초 대방군 고지를 경영하기 위한 중국계 망명 엘리트의 거점으로서 息城의 신설, 5세기 후반 관료에 대한 택지 반급과 그를 통한 지배 네트워크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別都로의 재편,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상실 이후 ‘남평양’ 기능의 일부를 別都로 이관·재편하고, 한강 유역의 지명 ‘漢城’을 전용한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개가 상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에서 제기한 6~8세기 동아시아 多京 운영과의 비교 속에서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동아시아의 多京 운영은 대체로 관료 공간의 양적 확대와 기능의 질적 분담을 통한 도성의 확장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될 수 있었고, 중앙 권력의 전국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였다. 고구려 삼정의 하나인 한성 역시 관료의 상주와 소비가 가능한 ‘京’임과 동시에, 수운 기반의 집산·비축 등의 기능을 분담한 다핵적 도성체제의 한 축이었다. 낙랑 이래 한성의 ‘도시권’ 범위는 평양의 배후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 한성의 설치 및 운영은 곧 도성 평양의 확장으로도 이해된다.

## 「고구려 別都 漢城 연구」에 대한 토론문

기경량 | 가톨릭대학교

3~6쪽 : 고구려 간선도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지도 등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당 도로망에 대한 사전 지식과 지리적 감각이 없다면 텍스트만으로는 독자가 쉽게 따라가기 어렵다.

10쪽 : 한성의 도시권의 설정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인 산성, 주요 고분들, 구 대방군 치소, 간선 교통로 등의 지리 정보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쪽 : 장안성 외성 축조 구간을 검증하여 확인한 고구려 척리법을 감안하면, 1리=1,000척=356m 가량이다. 이에 따르면 안악 일대 고구려 벽화고분 4곳은 장수산성 일대에서 31~41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고구려척으로 100리(35.6km) 가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발표자는 ‘漢尺으로 100리가 약 42km, 고구려척으로는 약 36~63km이므로 한성으로부터 100리 거리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였는데,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토론자의 방식을 활용하는 편이 발표자의 논지 구성에도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10쪽 : 발표자는 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통로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산성들이 한성으로부터 100리 거리에 축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월산성을 한성의 서북쪽 약 50km 거리, 서흥 대현산성은 동북쪽 약 44km 거리, 해주 수양산성은 한성 남쪽 약 20km 거리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각 산성의 거리차가 크며, 앞서 살펴보았듯 고구려의 100리를 35.6km 정도로 파악한다면, ‘한성으로부터 100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10쪽 : 안악 지역의 벽화 고분의 존재를 들어 아양리 일대 한성에 거주하는 귀족들의 무덤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악 일대는 안악 3호분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성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이 일대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그렇다면 굳이 ‘한성에 거주하는 귀족 무덤’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안악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귀족 집단의 무덤군으로 보는 것이 실상에 가깝지 않을까?

발표자는 한성으로부터 100리 거리 이내에 있는 ‘도시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발표한 바 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성권’ 개념의 연장 내지 확장으로 할 수 있다. 100리라는 단위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 등을 볼 때 과거 제기한 도식화된 모델에 너무 구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 발표자는 한성의 경우는 평양의 ‘도성권’과 구분되는 ‘도시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애초에 한성 역시 3경의 하나이며 도성의 확장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굳이 ‘도시권’이라고 달리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한성 역시 ‘도성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가 3경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권’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14~15쪽 : 장수산성 일대를 한성이라고 지칭하게 된 이유로 한강 유역의 ‘남평양’(한강이 북)과 ‘한성’(한강이남)을 상실함에 따라 장수산성 일대로 그 기능이 이치되며 붙은 지명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한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나 漢水로 인해서 파생된 지명인데, 이를 굳이 한수 유역도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양리 일대가 평양 도성의 확장이라는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차라리 ‘남평양’이라는 지명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 신라의 神宮 설치와 郊廟 제사의 구성

김의명 | 성균관대학교

- I. 머리말
- II. 神宮 설치와 郊祀의 수용
- III. 神宮과 始祖廟 제사의 郊廟 제사 체계
- IV. 始祖廟 제사의 구성과 서열
- V. 맺음말

## I. 머리말

『三國史記』 제사지에 따르면, 신라의 始祖廟 제사와 神宮 제사는 宗廟之制로 분류된다.<sup>1)</sup> 이는 『三國史記』 찬자가 두 제사를 신라의 종묘 제사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라에서 유교식의 종묘 제사는 중대 왕실이 중국으로부터 종묘 제도를 수용한 이후 시행되었으므로,<sup>2)</sup> 그 이전부터 거행되고 있던 두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식의 종묘 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시조묘, 신궁 제사의 성격을 규명하여 두 제사가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시조묘 제사의 경우 『三國史記』 제사지에 혁거세라는 주신과 남해차차웅대라는 설치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제사의 성격과 정치적 기능을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시조묘 제사는 왕실의 조상제사이면서도 천신제사였고, 왕의 즉위의례로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3)</sup> 이와 달리 신궁 제사의 경우 여전히 연구자 간 견해가 분분하다. 이는 『三國史記』 제사지와 신라본기에서 전하는 신궁 제사의 내용이 다소 다르며,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신라본기에서는 신궁의 설치 시점을 소지마립간대로 기록하지만,<sup>4)</sup> 제사지에서는

1) 『三國史記』 卷32, 「雜志」 第1, 祭祀 “按新羅宗廟之制”

2) 신라에서 종묘제가 시작된 시점으로는 무열왕대, 문무왕대, 신문왕대가 제시되었다. 주로 종묘의 존재가 최초로 확인되는 문무왕대 혹은 5신위가 확인되는 신문왕대를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박초롱, 「新羅國家禮制 研究」,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42쪽 참조)

3) 변태섭은 시조묘의 주신이 혁거세이며, 박, 김씨 집단이 하나의 씨를 형성하고 있었을 당시 시조묘는 두 집단의 왕에게 奉祀되었다고 보았다.(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이후의 견해는 대체로 시조묘의 주신이 혁거세이며, 3성 집단의 왕이 모두 시조묘에 친사하였음을 전제하였다.(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한편, 시조묘 제사가 곡령신앙의식이라고 주장도 있다.(三品彰英,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1973;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1978)

지증왕대라고 전하고 있다.<sup>5)</sup> 또한 두 기록은 모두 신궁에서 제사지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궁이 설치된 시점에 대해서는 소지마립간대 설치설,<sup>6)</sup> 지증왕대 설치설,<sup>7)</sup> 소지마립간대 설치-지증왕대 제도설<sup>8)</sup>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으며,<sup>9)</sup> 신궁의 주신에 대해서도 박씨 집단의 시조인 혁거세라는 견해,<sup>10)</sup> 김씨 집단의 조상인 알지,<sup>11)</sup> 나물,<sup>12)</sup> 미추라는 견해,<sup>13)</sup> 인격신이 아닌 천지신이라는 견해<sup>14)</sup> 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신궁 제사의 시점과 주신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분하지만, 신궁 제사가 시조묘 제사와 동일하게 왕의 즉위의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는 편이다.

시조묘, 신궁 제사가 모두 왕의 즉위의례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은 두 제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궁이 설치된 이후 신궁 제사가 시조묘 제사의 즉위의례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시조묘 제사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라 짐작하였다.<sup>15)</sup>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제사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궁 설치 이후에 시조묘 제사가 존속하였다는 사실 이상의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비록 사료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두 제사의 상관관계는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두 제사의 상관관계를 살핍으로써 중고기 국가 제사의 체계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제사의 관계 설정에 따라 중고기 국가 제사의 체계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시조묘 제사와 신궁 제사가 동일한 시조인 혁거세를 모심으로써 두 제사가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신궁 설치 이후 신궁 제사가 조상제사이자 천신제사로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며, 시조묘 제사는 주된 기능을 신궁 제사에 넘겨주어 기존에 비해 그 위상을 확연히 잃게 된다. 이에 따르면 중고기 국가제사 체계 안에서 혁거세를 모시는 조상제사이자 천신제사인 신궁 제사가 가장 상위의 제사로 인식된다. 둘째, 신궁 제사가 알지, 나물, 미추 중 한 명을 모시는 김씨 집단의 조상제사로 분류되어, 시조묘 제사와 조상제사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엄밀하게는 모시는 대상이 달라 두 제사가 구분되는 경우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고기에 박씨 집단 이외에

4)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第3, 昭知麻立干 9年.

5) 『三國史記』卷32, 「雜志」第1, 祭祀.

6) 邊太燮, 앞의 글, 1964, 59쪽.

7) 金杜珍,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1999, 340쪽.

8) 최광식, 앞의 책, 1994, 199쪽.

9) 그 이외에도 나물이사금-눌지마립간 사이의 시기에 초기적인 형태로 신궁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鄭再教, 「新羅의 國家的 成長과 神宮」, 『역사와 세계』 11, 1987, 24쪽)

10) 나희라, 앞의 책, 2003, 131-170쪽; 채미하, 앞의 책, 2008, 80-110쪽.

11) 김병근, 「古代 三國의 始祖觀 成立과 變遷」, 『역사민속학』 29, 2009, 24-25쪽; 박초롱, 앞의 논문, 2022, 24-25쪽.

12)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26쪽;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79쪽; 辛鍾遠, 앞의 책, 1992, 84쪽.

13) 邊太燮, 앞의 논문, 1964, 61-63쪽.

14) 鄭再教, 앞의 논문, 1987, 30쪽; 최광식, 「왜 신라는 신궁에서 제사를 지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8, 2007, 174쪽; 앞의 책, 1994, 195-216쪽.

15) 기존 연구는 대체로 신궁이 설치된 후 시조묘 제사가 조상제사 기능을 담당하였고, 시조묘가 맡게 된 조상제사의 기능이 이후 중·하대의 오묘 제사로 이어진다고 본다.(최광식, 앞의 책, 1994, 207쪽; 나희라, 앞의 책, 2003, 172-173쪽; 채미하, 앞의 책, 2008, 107-110쪽) 이에 따르면, 신궁이 설치된 이후 시조묘 제사가 상고기보다 격하된 위상을 가진 채 형식적으로 거행되었거나(채미하, 앞의 책, 2008, 107-110쪽), 시조묘에서 역대 왕의 제사를 합사하였을 것이라고 이해된다.(나희라, 앞의 책, 2003, 136-137쪽)

도 석씨, 김씨 집단의 廟가 각기 존재하여 이들에 대한 제사가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16)</sup> 그렇다면 이 경우 신궁 제사는 혁거세를 모시는 시조묘 제사와 연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고기 김씨 집단의 조상제사에 연속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중고기의 제사 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위상을 갖는 제사는 김씨 집단의 조상제사가 되며, 혁거세를 모시던 시조묘 제사는 그보다 낮은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상의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모두 중고기 국가제사 체계에서 조상제사의 성격을 기본으로 갖는 제사를 가장 상위의 제사로서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에 세 번째의 양상은 중고기 국가제사의 체계 안에 천지신 제사라는 새로운 범주의 제사를 설정한다. 이 경우 시조묘 제사는 조상제사, 신궁 제사는 천지신 제사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애초에 두 제사는 다른 범주의 제사로 나뉜다. 신궁 제사와 시조묘 제사는 다른 성격의 제사로 분류되어 두 제사는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따른다면 중고기 국가제사로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갖는 제사는 천지신 제사인 신궁 제사이며, 시조묘 제사는 그와는 다른 층위의 조상제사로서 존속된다.

이렇듯 시조묘, 신궁 제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중고기 국가제사의 체계 설정과 긴밀히 연결된다. 본 발표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궁 제사가 시조묘 제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둬으로써, 신궁 설치 이후 중고기 국가제사 체계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둘 것이다. 두 제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료는 보이지 않지만, 신궁 설치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채 두 제사와 관련하여 단편화, 파편화된 사료들을 모아 검토해본다면, 두 제사 간의 상관관계는 일정 정도 규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새로운 국가제사인 신궁 제사가 필요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집중하여 신궁 제사가 郊祀로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것이다. 시조묘 제사가 존재하던 와중에 신궁 제사가 신설되어야만 했던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신궁 설치 이후 시조묘 제사의 변화를 확인하여 두 제사의 병존 양상을 파악하고, 이것이 『三國遺事』 천사옥대조에 나오는 표현인 ‘郊廟’에 반영되어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郊廟大祀’라는 표현이 중고기 국가제사의 체계를 드러낸다는 이해 위에서, 신궁 제사와 시조묘 제사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郊廟 제사의 체계 안에서 ‘廟’ 제사로 분류되는 시조묘 제사에 집중해 볼 것이다. 왕실의 조상제사가 『國史』 편찬 과정을 거치며 체계화되었음을 밝히고, 그 구성이 어떠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상제사의 연속성이라는 보편성과 박, 석, 김씨 중에서 김씨 집단이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하였던 신라 중고기의 특수성을 두루 살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神宮 설치와 郊祀의 수용

16) 박남수는 석씨 일족의 祖廟와 김씨 일족이 따로 모시는 陵廟의 존재를 상정하였고, 석씨와 김씨 왕들이 이들 일족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 보았다. 다만, 석씨 일족의 조묘는 석씨의 始封君인 탈해의 묘를 가리킨다고 보았으나, 김씨 일족의 경우 미추이사금의 부친인 仇道의 능묘일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박남수,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 - 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2020, 6-7쪽) 김나경은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시기에 각각의 조상들만을 모신 廟가 있었다고 이해하였으며(김나경,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韓國古代史研究』 97, 2020, 115쪽), 박초룡은 집단별로 종묘를 운영했을 것임을 짐작하면서, 석씨 집단이 조상 제사를 지냈던 별도의 건축물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박초룡, 앞의 논문, 2022, 146쪽) 백동인은 석씨 이사금은 혁거세에 올리는 시조묘 제사를 간소화하고 탈해 제사를 확대하였을 것이라 추측하였다.(백동인, 「新羅 上古期 제사의 정치화」,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25, 107-114쪽)

박, 석, 김씨 집단이 공존하여 왕위에 오르던 시기를 지나, 나물이사금 이후 김씨 집단에 의하여 왕위가 독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지마립간 시기부터는 신궁 제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사가 등장하였다.

- A-1. [소지마립간 9년(487)] 봄 2월에 神宮을 奈乙에 두었다. 奈乙은 始祖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sup>17)</sup>
- A-2. 제22대 智證王이 始祖가 탄강한 땅인 奈乙에 神宮을 창립하여 제사를 지냈다.<sup>18)</sup>
- A-3. [소지마립간 17년(495)] 봄 정월에 왕이 神宮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sup>19)</sup>
- A-4. [지증마립간 3년(502)] 봄 2월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sup>20)</sup>

A 사료군은 신궁이 설치되고, 신궁 제사가 신설되었음을 밝힌다. A-1, A-2는 각각 신라본기와 제사지의 신궁 설치 기록이며, 두 기록으로 인해 설치 시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설치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A-3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지마립간 17년(495) 신궁 친사의 기록은 신궁 제사가 소지마립간 시기부터 이미 시행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sup>21)</sup> 즉 A-3을 참고하면, 신궁의 최초 설치는 소지마립간대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소지마립간이 신궁 제사를 신설한 목적은 국가체제의 정비와 관련될 것이다. 소지마립간 9년에는 신궁 설치 이외에도 여러 국가체제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그해 3월에는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官道를 수리하였으며,<sup>22)</sup> 7월에는 月城을 수리하는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sup>23)</sup> 소지마립간은 김씨 집단의 왕위 독점과 이사금 시기보다 강화된 마립간 시기의 정치권력을 토대로 하여,<sup>24)</sup> 신궁 제사를 국가체제 정비의 일환으로써 고안하였을 것이다.<sup>25)</sup>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지증왕은 A-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502)에 신궁 제사를 지냈다.<sup>26)</sup> 지증왕 이후, 진흥왕을 제외한 중고기의 모든 왕은 즉위한 지 2-3년 안에 신궁에서 제사를 지냈다. 소지마립간이 신궁 제사를 신설하였다면, 지증왕은 신궁 제사를 즉위의례로서 실현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三國史記』 제사지의 기록인 A-2는 신궁 제사가 즉위의례로 시행되어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시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그런데 신궁 제사가 시조묘 제사의 즉위의례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하여, 신궁 제사의 성격을 시조묘 제사와 동일한 조상제사였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三國史記』 제사지와 신라본기에 나타난 신궁의 설치 장소는 신궁 제사가 조상제사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제사였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조상제사는 대체로 시조의 죽음과 관련된 무덤 근처에서 이루어졌다.<sup>28)</sup> 이에 반해 신궁

17)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9年.

18) 『三國史記』 卷32, 「雜志」 第1, 祭祀.

1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17年.

2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3年.

21) 최광식, 앞의 책, 1994, 198쪽.

2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9年.

2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9年.

24) 여러 干 중에 으뜸가는 干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립간이라는 왕호의 변화에서부터 이전에 비해 증대된 왕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재미하는 이사금시기에는 대사, 중신 임명이 시조묘 친사와 같은 해에 행해졌으나, 마립간시기에는 대사와 중신 임명이 시조묘 친사에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마립간의 정치적 권한이 이사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판단하였다.(재미하, 앞의 책, 2008, 76쪽)

25) 최광식, 앞의 책, 1994, 197-198쪽.

2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3年.

27) 최광식, 앞의 책, 1994, 197-199쪽.

은 시조가 처음 태어나고 탄강한 奈乙에 설치되었다. 여기에서의 나을은 蘿井을 지칭한다고 여겨진다. 나을은 건국 신화에서 혁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장소인 나정과 음운상 통하며,<sup>29)</sup> 나정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나을이 나정을 지칭하는 표현일 가능성을 높인다. 2002년부터 경주 나정 유적을 발굴 조사한 결과, 나정 원내에서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나정 원내에서 확인된 나정 관련 유구는 4차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sup>30)</sup> 4차 시설 중에서 신궁이 설치된 시기와 맞물린다고 추정되는 2차 시설은 소지마립간대 처음 설치되었던 신궁의 건물지일 것으로 추정되며, 팔각건물지인 3차 시설은 문무왕대에 중창된 신궁으로 추정된다.<sup>31)</sup>

신궁 설치 장소가 혁거세의 ‘죽음’과 관련된 공간이 아닌 ‘탄생’과 연관된 장소인 나을 곧 나정이라는 사실은<sup>32)</sup> 신궁 제사가 조상신 혁거세를 기리는 조상제사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제사로 고안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화에서 혁거세의 탄생은 하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신궁 제사는 조상 혁거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신설되었다기보다는, 천신 혁거세의 탄생을 부각하는 제사로서 마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3)</sup>

그렇다면 소지마립간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왜 천신 제사의 성격이 강조되었던 신궁을 설치했을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郊祀 의례가 주목된다. 중국에서 국가제사의 중심은 하늘을 섬기는 제천의례인 교사 의례에 있었다.<sup>34)</sup> 교사는 황제인 천자가 도성의 교외에서 天에 제사지내는 의례를 지칭하며, 漢代에 기존의 잡다한 上帝와 太一 등에 대한 제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sup>35)</sup> 교사는 圓丘, 方丘, 南郊, 北郊에서 지내는 제사를 통칭한다.<sup>36)</sup> 天圓地方의 원리에 따라 祭天하는 곳을 圓丘(圓丘)라고 하고, 祭地하는 곳은 方丘(方澤)라 지칭하였으며, 도성 남쪽에서 제천하는 곳을 南郊, 북쪽에서 제지하는 곳은 北郊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제천의례가 거행되는 남교는 특수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의 등극 의식 등이 남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魏晉南北朝의 南朝 개창 황제는 이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禪位の 策과 璽書를 반포하고 황궁을 떠나면, 이로부터 3-4일째 되는 날 남교에 壇을 만들고 靑을 태우며, 자신이 受禪을 통해 황제의 자리

28) 나희라, 앞의 책, 2003, 75-78쪽.

29) 梁柱東, 「鄉歌의 解讀, 특히 「願往生歌」에 就하여」, 『梁柱東全集 3』, 東國大學校出版部, 1995, 59쪽.

30)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경주 나정 정비사업부지 내 경주 탑동 703번지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96쪽. 수혈유구를 가운데에 두고 주혈-구상유구-목책순으로 배치된 1차 시설은 초기철기시대에, 1차 시설의 구상유구를 복토하고 그 상부에 축조한 평면 원형의 초석건물지인 2차 시설은 6세기 전반을 전후하여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3차 시설은 팔각건물지와 담장 회랑 등의 석축 건물지로, ‘儀鳳四年皆土’명 명문와가 발견되어 문무왕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팔각건물지와 중첩된 석열과 적심건물지 일부인 4차 시설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나정 정비와 관련된 시설로 여겨진다.(황인호, 「신라 도성 내 국가제의 공간 연구-경주 나정 유적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56, 2022, 85쪽)

31) 황인호, 앞의 논문, 2022, 91-100쪽.

32) 나희라, 앞의 책, 2003, 150-151쪽.

33) 위의 책, 150-151쪽; 채미하, 앞의 책, 2008, 94쪽; 백동인, 「新羅 炤知麻立干의 神宮 설치와 親祀」, 『新羅史學報』 42, 2018, 201-204쪽.

34) 박미라, 「中國 郊祀儀禮에 나타난 天神의 性格과 構造 研究」, 『宗教學研究』 16, 1997, 57쪽; 金龍濂, 「秦·漢 帝國의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130쪽.

35) 金龍濂, 앞의 논문, 2018, 123쪽.

36) 남교와 북교 등의 ‘郊’ 및 원구와 방구 등의 ‘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郊丘異同 논쟁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6天을 모두 천제로 인정한 六天說을 주장하였던 정현은 원구, 남교, 방구, 북교를 모두 다른 제지 장소로 분리하였으나, 昊天上帝만이 제천교사를 받을 수 있다는 一天說을 주장한 왕숙은 남교와 원구, 그리고 북교와 방구 등의 교구는 형식만 다를 뿐 제천제지의 맥락이 같으므로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소현숙, 「中國 南北朝時代 國家祭禮와 祭禮空間」, 『백제문화』 62, 2020, 7-8쪽)

에 올랐음을 상제에게 고하였다. 北魏의 道武帝는 天興 元年(398) 평성에 도읍한 후, 남교에 壇兆를 건립하고 황제 즉위를 고하는 천지 告祭를 거행하였다.<sup>37)</sup>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신라의 김씨 왕실은 신궁 제사를 고안할 때 위와 같은 중국의 교사 의례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38)</sup> 4-5세기에 신라는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었고, 여러 측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고구려는 신라의 나물-실성-놀이로 이어지는 왕위계승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sup>39)</sup> 문물과 문화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4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적석목곽분에서는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sup>40)</sup> 그중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제의용 청동 용기 등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당시 신라가 고구려를 통하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특히 고구려의 기록 중 교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유리왕 19년(B.C.1)과<sup>42)</sup> 동왕 21년(2),<sup>43)</sup> 그리고 산상왕 12년(208) 기록에는<sup>44)</sup> 郊豕가 등장한다. 교사는 교사에서 희생제물로 사용된 돼지를 가리키므로,<sup>45)</sup> 교사의 존재를 통해서 고구려에서 교사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sup>46)</sup> 물론 고구려의 교사가 중국의 교사 의례와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47)</sup> 시기적으로 유리왕대부터 중국식의 교사가 시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이후의 사례에서도 제사 시기와 희생제물의 종류가 중국의 교사와 일치하지 않는다.<sup>48)</sup> 희생의 종류를 비롯하여 제사의 형식과 방법은 각국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정형화되었으므로,<sup>49)</sup> 고구려에서는 중국식의 교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37) 『魏書』 卷108, 「禮志」 第1 (北京: 中華書局, 1974, 2734쪽); 소현숙, 앞의 논문, 2020, 12쪽.

38) 조범환은 나물이사금대 신라가 前秦에 두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라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두가 전진에 파견되었던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여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이었다.(조범환,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涉과 그 정치적 배경』, 『신라사학보』 41, 2017, 22쪽)

39)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관계』, 신서원, 2009, 75-106쪽.

40)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대외관계 1-신라와 삼국』, 역사산책, 2020, 83쪽.

41) 위의 책, 87쪽.

42)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明王 19年.

43)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明王 21年.

44)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第4, 山上王 12年.

45) 徐永大,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2003, 18쪽.

46) 신종원은 郊豕가 보이는 사료를 통하여 고구려에 祭天의 장소인 郊가 있었고, 이때 희생으로 돼지를 썼으며, 고구려에서 동맹제와는 별도로 관념적 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祭天禮는 그 시기나 방법에서 중국의 郊祭와 다르지만, 王者의 제천이고 또 일정한 구역이 있다는 점에서 초기의 祭天禮까지를 포함하여 郊라는 중국적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보고, 祀典의 성립 후에는 郊祭로 통용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辛鍾遠, 앞의 책, 1992, 64-65쪽)

47) 이에 고구려의 교사는 중국식의 교사가 아닌 동맹제를 가리킨다는 견해와(徐永大, 앞의 논문, 2003, 18쪽), 고구려에서는 교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강진원,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2021, 91쪽)

48) 중국에서의 교사 의례는 대체로 동지 혹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漢代에는 동지에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남조에서는 교사의례를 북단과 남단에서 번갈아 매년 1월의 辛日에 수행하였고 하며, 북조에서는 11월 동지 때 원구단에서 호천상제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하워드 J. 웨슬러 저, 임대희 역, 『비단길과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246-249쪽) 또한 중국의 경우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태워 연기를 하늘에 보냈다고 전해지며, 제례에 사용되는 희생은 말, 소, 양, 닭, 개, 돼지의 여섯 종류였으며, 이 중에서 소, 양, 돼지가 자주 사용되었고, 소가 가장 귀하게 여겨졌다고 한다.(한영화, 앞의 논문, 2018, 142-145쪽)

49) 한영화, 앞의 논문, 2018, 142쪽.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여겨진다.

다만 신라는 고구려와의 교류 속에서 교사 의례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는 고구려를 매개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신라 왕실은 교사의 내용과 형식을 온전히 이해하여 중국식 형태 그대로의 교사를 도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50)</sup> 그러나 왕권 강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김씨 왕실, 그중에서도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소지마립간에게 천신제사라는 교사의 존재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소지마립간은 신궁 제사를 신라의 郊祀로서 신설하였다고 여겨진다. 나율이 신라 왕경의 南郊에 상응한다는 사실과,<sup>51)</sup> 중국의 남교 제사와 신궁 제사가 모두 즉위 의례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신궁 제사가 교사 의례의 존재를 염두에 둔 채 신설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라의 교사가 중국의 교사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사에서 모셨던 천신의 성격일 것이다. 중국에서 천신은 일찍이 조상신과 분리된 채로 인식되었다. 商代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至高天神은 인격신적 요소를 가지고 조상신으로 관념화되었다. 그러나 周代 이후 두 신격은 분리되기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천신에서 조상신적 요소가 소멸되고 천신 관념은 추상화되었다.<sup>52)</sup> 따라서 중국의 황제는 조상 혹은 다른 신들에 의해 중재되지 않고 하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황제 개인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었다.<sup>53)</sup>

중국과 달리, 신궁이 설치되었던 시점의 신라에서는 신 관념의 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신라에서 신 관념의 분화가 일어난 시기로는 대체로 중국의 종묘제가 수용되어 인격신인 직계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중대가 지목된다.<sup>54)</sup> 또한 중대 이래로 즉위 의례는 신궁 제사 대신 사면 의례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의 왕은 천신이 아닌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았던 것이다.<sup>55)</sup> 이와 같은 중대 이후의 변화는 도리어 그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신궁의 설치 기록에서 혁거세의 흔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소지마립간 시기에 왕은 천신에게서 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아야만 했고, 그 당시 신라에서 천신은 혁거세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김씨 왕실은 천신 제사인 신궁 제사의 대상으로 혁거세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50) 이와 달리, 신종원은 신궁 설치를 전후하여 신라에서 중국식 祀典 체제를 수용하였다고 보았다.(辛鍾遠, 앞의 책, 1992, 86쪽)

51) 박남수는 나율이 신라 왕경의 남교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라 김씨 왕실이 『禮記』 大傳 1章에 근거하여 漢代의 神宮이라는 명칭을 빌어왔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나율이 하늘에 대한 제사인 郊祭를 지내는 곳이면서도 박혁거세를 배향하였기 때문에, 박씨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고 김씨 왕들이 신궁에서 친사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밝혔다.(박남수, 앞의 논문, 2020, 12쪽)

52) 박미라, 앞의 논문, 1997, 79-80쪽; 羅喜羅, 「古代 東北亞 諸民族의 神話, 儀禮, 君主觀」, 『震檀學報』 99, 2005, 6쪽.

53) 하워드 J. 웨슬러 저, 임대희 역, 앞의 책, 2005, 245쪽.

54) 신 관념의 분화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신라는 당에 비해 신격 분화가 세분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본보다는 비교적 분화된 신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나희라는 신라인이 시조묘 제사나 신궁 제사에서 시조신을 통해 천신과 통하려 하였다는 점은 자연신(지고신)과 조상신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종교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나희라, 「7-8세기 唐, 新羅, 日本의 國家祭祀體系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310-311쪽) 한편, 한영화는 신라의 국가제사에 釋奠이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를 신라의 신 관념에서 비롯된 사회적 조건에서 찾았다. 신라는 국가제사의 대상에 천신, 지기, 인귀를 편성하였으나, 신성성이 배제된 先聖, 先師와 같은 위인은 제사의 대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한영화, 「신라 祀典 체계의 특징과 운영 -당,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역사와 경계』 110, 2019, 212-213쪽)

55) 한영화, 「신라 사면의 의례와 공간」, 『역사와 현실』 94, 2014, 92-93쪽.

### Ⅲ. 神宮과 始祖廟 제사의 郊廟 제사 체계

신궁 제사는 시조묘 제사로부터 즉위의례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이는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궁 제사가 ‘천신’ 혁거세를 강조하는 제사로 신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즉위의례의 기능을 넘겨준 제사이자 ‘조상신’으로서의 혁거세를 기본적으로 모시던 시조묘 제사는 신궁 설치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신궁 설치 이후 시조묘 제사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이 존재하는 한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는 유지된다는 조상제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조상을 모시는 시조묘 제사 또한 존속되었을 것임이 추정된다. 다음의 사료는 이와 같은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B-1. [소지마립간 7년(485)] 여름 4월에 몸소 始祖廟에 제사를 지내고 守廟 20家を 增置하였다.<sup>56)</sup>

B-2. 37世 惠恭王代 大曆 14年 己未 4월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庾信公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중략)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다더라면 김유신공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인즉, 왕이 국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사람들이 그 덕을 기리며 三山과 함께 제사지내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서열을 五陵 위에 두어 大廟라고 불렀다.<sup>57)</sup>

B 사료를 통하여 시조묘 제사가 신궁이 설치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위상을 가졌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B-1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지마립간은 7년(485)에 시조묘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소지마립간 9년(487)의 신궁 설치와 관련된 제사였다고 여겨진다.<sup>58)</sup> 소지마립간은 천신 혁거세를 모시는 신궁 제사를 신설하기 전에, 시조묘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신이자 국조인 혁거세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을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제사 이후의 조치이다. B-1에 따르면, 소지마립간은 제사를 지낸 후 시조묘에 守廟家を 증치하였다.<sup>59)</sup> 이 조치는 신궁 설치 이후에도 시조묘 제사가 국조묘 제사로서의 위상을 가진 채로 존속되었음을 방증한다. 시조묘에는 수묘하는 이들이 이미 존재하였는데,<sup>60)</sup> 여기에 20家の 수묘를 더했다는 것은 김씨 왕실이 혁거세의 위상을 여전히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B-2는 『三國遺事』 미추왕 죽엽군조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 혜공왕대에 들어서 미추이사금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대에는 미추가 김씨 왕실의 새로운 시조로서 대두하였고, 오묘의 수위에 모셔지기도 하였다.<sup>61)</sup> B-2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혜공왕대 미추이사금의 위상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라의 사람들이 미추이사금의 덕을 기리며 대묘의 서열을 오릉보다 위에 두었다는 부분이다. 오릉은 혁거세의 무덤을 가리키

5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7年.

57)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未鄒王 竹葉軍.

58) 재미하는 새로운 국가제사인 신궁을 설치하기에 앞서 당시 최고의 국가제사인 시조묘 제사에 예우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채미하, 앞의 책, 2008, 107쪽), 박초롱은 박혁거세에게 신궁 설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시조묘를 중심으로 결집해왔던 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배려 조치였다고 파악하였다.(박초롱, 앞의 논문, 2022, 25쪽)

59) 앞서 廟는 墓 주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B-1의 守廟家は 守墓家を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守墓人은 담당 능력과 봉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능역에서 거행되는 제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김현숙, 「고구려 수묘제 연구의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26, 2015, 24쪽) 다만, B-1 사료에서 守墓가 아니라 守廟라고 표현한 것은 무덤 자체보다는 혁거세에 대한 제사의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 서라고 여겨진다.(나희라, 앞의 책, 2003, 135-136쪽)

60)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125-126쪽.

61) 『三國史記』 卷32, 「雜志」 第1, 祭祀.

며,<sup>62)</sup> 대묘는 미추에 대한 제사를 지내던 廟를 지칭한다.<sup>63)</sup> B-2는 오릉보다 대묘의 서열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이는 국조인 혁거세와 그 제사의 지위보다 김씨 집단의 시조로 새롭게 등장한 미추 제사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단, 서열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중대 해공왕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공왕대 이전까지는 국조인 혁거세가 최상의 위상을 가진 시조로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B 사료를 종합하면, 신궁 설치 이후부터 중대 이전까지 혁거세를 모시는 두 제사인 신궁 제사와 시조묘 제사가 각각 천신 제사와 조상제사의 성격을 지닌 채 병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료는 이 두 제사의 병존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 제26대 白淨王의 시호는 眞平大王으로 김씨이다. (중략) [왕이] 즉위한 원년에 天使가 궁전의 정월에 내려와 말하기를 “上皇께서 나에게 명하여 이 玉帶를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왕이 친히 꿇어앉아 [그것을] 받으니 그 使가 하늘로 올라갔다. 무릇 郊廟大祀에는 항상 이것을 허리에 찼다.<sup>64)</sup>

C 사료는 『三國遺事』 천사옥대조의 일부이다. 이 사료는 진평왕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사료 C에 등장하는 玉帶는 황룡사 장육상, 황룡사 구층탑과 더불어 三寶 중의 하나였다.<sup>65)</sup> C에 따르면, 왕은 삼보 중 하나인 옥대를 郊廟大祀에서 허리에 착용하였다고 한다. 삼보 중의 하나를 착용하고 지낼 정도의 제사라면 郊廟大祀는 주요 국가제사였을 것이다. 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郊廟이다. 郊廟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sup>66)</sup> 첫 번째는 郊廟를 각각 郊祀와 廟制로 나누어 보는 것이며,<sup>67)</sup> 두 번째는 郊廟를 각기 나누어 보지 않고 郊廟 제사를 하나의 제사인 신궁 제사로 보는 것이다.<sup>68)</sup>

郊는 원래 중국에서 천지신을 제사하는 장소이며, 郊祀 또는 郊祭는 천지신에 대한 제사를 의미한다.<sup>69)</sup> 廟는 조상을 제사하는 장소이며, 廟祀 혹은 廟祭는 조상제사를 가리킨다.<sup>70)</sup> 위의 해석 중

62)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 居西干 61年.

63) 大廟를 太廟라고도 한다는 점에서 대묘는 종묘(오묘)의 시조묘(태조묘)를 가리킨다고 여겨진다.(채미하, 앞의 책, 2008, 190쪽)

64)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天賜玉帶.

65)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天賜玉帶.

66) 나희라, 앞의 책, 2003, 156쪽.

67) 서영대는 교묘대사를 ‘교사와 종묘의 제사와 같은 대사’라고 해석하였다.(徐永大,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45쪽) 김창석은 교묘대사를 ‘교사와 묘제의 큰 제사’라고 해석하였으나, 묘제를 신궁 제사라고 이해하고, 교사는 진한 이래 천신 제사의 계통을 잇는 제사로 파악하였다.(金昌錫, 「신라 始祖廟의 성립과 그 祭祀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26, 2007, 204-205쪽) 전덕재 또한 교묘를 묘제와 교제로 분리하여 해석하였으나, 교제는 선농제 등의 기원을 이룬 농경의례로, 묘제를 신궁 제사로 이해하였다.(전덕재, 「신라 초기 농경의례와 貢納의 수취」, 『강좌 한국고대사2: 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351쪽)

68) 신종원은 대사를 신라의 삼산 제사로 이해하였는데, 서열상 산신보다 앞서는 것은 천신이므로 교묘는 천신을 제사하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辛鍾遠, 앞의 책, 1992, 80쪽) 나희라는 신궁 제사가 제천의례와 시조제사의 성격을 아울러 가졌기 때문에 교사와 묘제를 합친 성격으로서 신궁 제사를 교묘라고 부른 것이라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교사를 지낼 때 조상을 配祭하여 교묘에 제사한다고 표현한 용례에 주목하였다.(나희라, 앞의 책, 2003, 157쪽) 채미하도 교묘를 신궁 제사라고 보았다.(채미하, 앞의 책, 2008, 85쪽)

69) 나희라, 앞의 책, 2003, 155쪽.

70) 위의 책, 156쪽.

후자는 신궁 제사를 천신제사이자 조상제사로 인식한 결과였다. 그런데 앞서 신궁 제사가 천신제사인 교사로서 설치되었음을 검토하였고, 조상신 혁거세를 제사지내는 조상제사는 B군 사료에서 보듯이 시조묘에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C의 郊廟는 교사인 신궁 제사와 묘제인 시조묘 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郊廟를 분리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C에서 보이는 천신의 성격에서도 찾을 수 있다. C를 통해서는 중고기를 지나면서 신궁에서 모시는 천신의 성격이 점차 변화되어 갔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신궁이 설치되었던 소지마립간 당시의 기록(A-1)에서는 혁거세의 흔적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 진평왕대의 사정을 전하는 기록인 C에서는 天과 관련하여 혁거세 대신에 上皇과 天使라는 존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天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는 결국 불교의 수용과 관련될 것이다. 불교는 천신 위에 지고한 존재인 佛을 상징하는 초월적 세계관을 가졌고,<sup>71)</sup> 중고기에 신라의 왕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인하였다. 특히 진흥왕대부터 왕실은 불교의 관념을 빌려 그들 가족을 신성시하였고,<sup>72)</sup> 진평왕대의 왕실은 釋迦族을 표방하여 성골로서 일반 왕족 신분인 진골과 차별화를 꾀하였다.<sup>73)</sup> 이처럼 불교가 수용된 이후 신라인들은 불교적 관점에서 천신을 이해하였고, 이 과정을 거치며 천신은 혁거세와 구분되어 인식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즉, 진평왕대를 전후하여 신궁 제사는 비로소 혁거세로부터 탈각된 천신 제사인 교사의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郊廟 제사가 병존하는 양상은 고구려와 중국, 백제에서도 발견된다. 앞서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 교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신궁 제사를 고안하였을 것이라 짐작해보았다.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에서 천신제사인 교사와는 구별되는 조상제사로서 시조묘와 종묘 제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sup>74)</sup> 이를 고려한다면, 신라가 고구려의 교사를 참고할 당시에 천신제사와 조상제사가 병존하였던 고구려의 제사 체계 또한 참조하여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생긴다.

고구려에 비하여 중국과 백제에서는 천신제사와 조상제사의 병존 양상이 한층 더 명확하게 확인된다. 중국에서 천신제사인 교사와 조상제사인 종묘 제사는 국가에 의해 제도화되어 황제가 거행하는 제사로서 행해졌다.<sup>75)</sup> 왕조를 개창한 황제는 즉위 후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스스로 天命을 받았음을 드러내었고, 황위를 계승한 황제는 즉위 후 종묘에 나가 예를 행하였다.<sup>76)</sup> 또한 『三國史記』 백제본기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온조왕대부터 天地 제사와 동명묘 제사가 병행되었다고 한다.<sup>77)</sup> 물론 중국에서 漢代 이후에 교사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온조왕대부터 천지 제사가

71) 徐永大, 앞의 논문, 1991, 253쪽; 徐永大, 「新羅의 佛敎受容과 天神觀念」, 『韓國思想史學』 10, 1998, 15쪽.

7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7年;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智王 元年. 진흥왕의 아들은 동륜, 사륜이다. 동륜과 사륜이라는 이름은 불교의 전륜성왕, 즉 금륜왕, 은륜왕, 동륜왕, 철륜왕과 연관된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의 이상적 제왕으로 소유한 輪寶에 따라 금륜왕, 은륜왕, 동륜왕, 철륜왕으로 구별된다.(徐永大, 앞의 논문, 1998, 16쪽)

7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元年. 진평왕은 이름이 백정인데, 이는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과 같고, 진평왕의 왕비인 마야부인은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과 같다. 진평왕의 동생은 백반과 국반이며, 이들의 이름은 석가모니 삼촌들의 이름과 동일하다. 이는 진평왕이 석가족을 표방하는 방법으로써 왕실을 신성함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74) 趙宇然, 『天帝之子 : 高句麗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2019, 427쪽.

75) 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지식산업사, 1987, 147-161쪽.

76) 소현숙, 앞의 논문, 2020, 13쪽.

7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元年;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20年. 大壇은 중국에서 제천하는 남교의 제단을 가리키며, 천지합제가 남교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은 중국의 교사와

중국의 교사 의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78)</sup> 그러나 대체로 鼓吹가 사용되었고,<sup>79)</sup> 남교 일대에 제단이 조성되었으며,<sup>80)</sup> 정월 치제가 굳어진 고이왕대부터는 중국의 교사와 유사한 천지제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sup>81)</sup> 백제에서 천신제사와 조상제사가 병존하는 양상은 사비기까지 이어진다. 6세기의 사정이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周書』에 따르면, 사비기에는 천과 오제의 신에 대한 제사, 그리고 시조 구태의 묘에 지내는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sup>82)</sup>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세부적 성격은 변화하였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백제의 왕실은 한성기부터 사비기까지 일관되게 천신제사와 조상제사를 국가적 차원의 제사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중국, 백제의 사례를 참고하면, 신라에서도 천신제사인 신궁 제사와 조상제사인 시조묘 제사가 국가제사인 郊廟 제사로서 병존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始祖廟 제사의 구성과 서열

III장에서는 『三國遺事』 천사옥대조에 등장하는 郊廟가 천신제사와 조상제사의 병존 양상을 반영하는 표현이었음을 고찰해보았다. 그런데 郊廟의 廟 제사가 과연 혁거세의 제사만을 가리키는 것일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신궁이 설치되기 이전, 신라 왕실의 조상제사는 혁거세를 모시는 시조 제사만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기에는 혁거세, 탈해, 알지를 시조로 모시는 3성 집단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들 세 명의 시조를 모시는 廟의 존재와 시조묘 제사의 존재가 짐작된다.<sup>83)</sup> 이들 외에도 상고기에 廟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시조로는 알영, 선도산 성모와 운제부인 등이 있다. 신라에는 이들 시조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양한 시조 전승이 전해진다. 이들을 시조로 모시는 집단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시조 제사의 존재 또한 추정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 각각을 모시는 시조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까지 제기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시조묘 제사는 신궁 설치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신궁이 설치될 당시, 신라의 왕실은 오직 김씨 집단에 의해서만 왕위가 계승되었던 김씨 왕실의 시기였다. 혁거세의 제사뿐 아니라 김씨 집단 시조인 알지의 제사를 포함한 다양한 시조에 대한 廟 제사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권력을 획득한 김씨 왕실이 그들 집단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전면내세우고 그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지는 않았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D-1. [놀지마립간 19년(435)] 2월에 역대 園陵을 수습하였다.<sup>84)</sup>

D-2. [진흥왕 6년(545)] 가을 7월에 伊滄 異斯夫가 아뢰기를, “國史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善惡을 기록하여 褒貶을 萬代에 보이는 것입니다.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가 어찌 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

비슷하다.(강진원, 「백제 天地畝祭의 추이와 특징」, 『서울과 역사』 92, 2016, 12쪽)

78) 중국에서도 애초부터 남교에서 제천, 제지의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한시기 이후에 유교적인 교사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온조왕대부터 중국식 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온조왕대의 천지제사 기록은 토착의례를 행했다는 전승이 후대의 문자화 과정에서 교사의 방식을 갖춘 천지합제 시행으로 윤색된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논문, 12-13쪽)

79)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古尔王 5年.

8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古尔王 14年.

81) 강진원, 앞의 논문, 2016, 18-19쪽; 金敬華, 「백제의 국가제사 연구-천신제사와 조상제사를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16, 39-41쪽.

82) 『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上 百濟 (北京: 中華書局, 1971, 887쪽)

83) 박남수, 앞의 논문, 2020, 6-7쪽; 박초롱, 앞의 논문, 2022, 146쪽; 백동인, 앞의 논문, 2025, 107-114쪽.

8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訥祗麻立干 19年.

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기고, 大阿滄 居柒夫 등에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편찬하게 하였다.<sup>85)</sup>

D 사료군은 김씨 왕실이 성립된 이후의 왕인 눌지마립간과 진흥왕대에 왕통 계보가 정리되었음을 보여준다. D-1에서 보이는 눌지마립간 19년(435)의 역대 원릉 수습 과정에서는 왕통 계보의 정리가 수반되었을 것이다.<sup>86)</sup> 역대 원릉의 수습은 역대 왕릉에 딸린 건물들을 보수, 정확하였음을 의미한다.<sup>87)</sup>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왕릉을 선택하여 어떻게 순서 지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역대 왕들의 계승 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다.<sup>88)</sup> 눌지마립간은 왕위의 부자계승을 지향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왕이다.<sup>89)</sup> 왕통 계보의 정리는 현재 왕의 위치를 확인시켜, 왕위의 정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sup>90)</sup> 즉, 왕통 계보의 정리는 눌지마립간의 의도에 부합하는 일이었고,<sup>91)</sup> 눌지마립간은 이와 같은 왕통 계보 정리를 통해 왕권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눌지마립간을 비롯한 김씨 왕들은 왕통 계보 정리 과정을 경험하며 김씨 집단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였다고 여겨진다.<sup>92)</sup> 이러한 정체성 인식에 대해서는 D-2에서 보이는 『國史』 편찬에 참여한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國史』 편찬을 주도하였던 이사부와 거칠부는 모두 김씨이며, 그들의 계보에는 공통적으로 나물이사금의 후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sup>93)</sup> 이처럼 중고기의 김씨 집단이 나물이사금을 중시하는 모습은 이전에 비하여 집단의 규모가 커져,<sup>94)</sup> 중고기를

8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6年.

86) 나희라, 앞의 책, 2003, 134쪽; 채미하, 앞의 책, 2008, 92쪽.

87) 채미하, 앞의 책, 2008, 92쪽.

88) 나희라, 앞의 책, 2003, 135쪽.

89) 김재홍, 「신라 마립간시기 왕위 계승과 적석목곽묘의 조성 원리」, 『한국상고사학보』 117, 2022, 81쪽.

90) 나희라, 앞의 책, 2003, 138쪽.

91) 위의 책, 138쪽.

92) 최병현은 역대 왕릉 정비의 주요 대상이 나물이사금의 직계 조상들이었고, 역대 왕릉 정비를 통해 나물왕계의 정통성을 과시하였다고 이해하였다.(崔秉鉉, 「新羅의 成長과 新羅 古墳文化의 展開」, 『韓國古代史研究』 4, 1991, 156쪽)

93)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4, 異斯夫. 다만 이들이 실제로 나물이사금의 후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거칠부의 경우, 『三國史記』 거칠부 열전에 따르면 “각간 仍宿의 손자이며, 이찬 勿力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계보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사부의 경우 『三國遺事』에서는 박씨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의 계보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이사부의 계보와 관련하여, 이천우는 이사부를 나물과의 혈연관계로 보기보다는 나물마립간 가계와 혼인을 통해 형성된 인척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李天雨, 「신라 진흥왕의 왕위계승을 통해 본 신라 중고 왕실의 ‘나물왕계’ 형성」, 『震檀學報』 134, 2020, 43쪽), 전덕재는 이사부를 파호갈문왕의 손자로 보아 이사부가 나물의 증손자였다고 주장하였다.(전덕재, 「異斯夫의 家系와 政治的位相」, 『史學研究』 115, 2014, 12쪽) 이기동은 이사부와 거칠부가 지증왕계를 제외한 나물왕계의 나머지 分枝 계열에 속한다고 보았다.(李基東, 앞의 책, 1984, 76-79쪽)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나물의 후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들이 나물이사금의 후손이라고 인식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정도로 나물이사금이라는 존재가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사부와 거칠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편찬한 『國史』에 나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들의 혈연의식이 반영되었으리라 짐작된다.(金義滿, 「新羅의 『國史』 編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115쪽) 대체로 나물로부터 이어지는 왕계는 ‘나물왕계’라고 지칭되며, 나물왕계라고 일컬어지는 나물이사금 중심의 혈연의식은 그동안 중고기 이래 신라의 정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었다.(李基東, 앞의 책, 1984, 54-90쪽)

94) 이종옥은 알지의 혈족후손집단이 시간이 지나며 성원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족의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가 분기하여 나갔다고 하였다. 그는 알지를 김씨족(Clan)의 시조로, 미추를 中始祖로, 나물을 派始祖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알지의 후손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성원수를 늘려나갔고, 미추가 하나의 가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후 나물마립간, 지증왕, 진지왕 등의 시기를

지나며 여러 집단으로 分枝되었던 김씨 집단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sup>95)</sup> 그러나 당시 분지된 김씨 집단이 그들의 계보에서 나뭇물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이 『國史』 편찬 과정에서 김씨 집단 전체의 시조로서 설정한 인물은 알지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추이사금의 즉위년 기사에는 알지로부터 이어지는 김씨 집단의 계보가 전해지며,<sup>96)</sup> 『三國遺事』에도 동일한 계보가 실려있다.<sup>97)</sup> 이처럼 현존하는 김씨 집단의 계보에서 알지가 시조로서 정점에 위치하는 모습은 김씨 집단이 그들의 뿌리를 알지로부터 찾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씨 왕실이 왕위를 독점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왕통 계보 정리와 김씨 집단의 계보 정리는 알지의 제사가 지닌 지위의 변화를 암시한다. 이는 국가제사로서 거행된 郊廟 제사 체계의 시조묘 제사에 알지의 제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씨 왕실은 그들의 시조인 알지에 대한 제사의 지위를 격상시켜 시조묘 제사의 구성에 편성하였을 것이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사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國史』 편찬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제사 체계의 정비는 역사서의 편찬과 맞물려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98)</sup>

『國史』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현존하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살펴보면 『國史』에 수록된 내용을 일정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sup>99)</sup> 『三國史記』는 신라 상고기 왕실의 삼성 교립을 인정하여 박, 석, 김씨 집단의 시조 신화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삼성 집단의 실재를 입증하며,<sup>100)</sup> 『國史』 편찬 당시 김씨 왕실이 삼성 집단을 왕실 집단으로, 삼성 시조를 왕실의 시조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國史』의 편찬은 한자식 성씨 사용, 삼성 시조 신화의 관계 정립과도 관련된다.<sup>101)</sup> 진흥왕대를 전후하여 국왕과 같은 왕실 최고 집단이 취득하기 시작한 성씨는<sup>102)</sup> 구비전승되던 삼성 시조 신화를 구체화, 문자화하였을 것이다.<sup>103)</sup>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삼성 시조 신화는 『國史』에 수록되었고, 편찬 과정에서 이들 신화의 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三國史記』에는 각 집단의 시조가 서로 연결된 채로 나타난다. 혁거세의 재위 기간에는 탈해가 등장하고,<sup>104)</sup> 탈해가 재위하고 있을 때는 알지가 발견되었다.<sup>105)</sup> 세 시조의 등장은 혁거세-탈해-알지의 순서로 시기상 연결된다.<sup>106)</sup> 또한 삼성 시조의 관계는 남해차차웅이라는 현실적 인물

거치며 왕족 가계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李鍾旭, 앞의 책, 1980, 142-145쪽)

95) 이기동은 인류학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고기의 분지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리니이지(Lineage)는 그 구성원들이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계보관계를 공유하는 單系血緣集團이다. 그는 하나의 리니이지가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2, 3의 리니이지로 분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본래 하나였던 리니이지가 많은 리니이지群을 형성한다고 밝히면서, 이 이론을 중고기 나뭇왕계의 분지화를 설명할 때 적용하였다.(李基東, 앞의 책, 1984, 57-58쪽)

96)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第2, 味鄒尼師今 元年.

97)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金闕智 脫解王代.

98) 박초롱, 「백제 泗泚時期 祭祀體系 변화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3, 14-15쪽.

99) 金義滿, 앞의 논문, 2012, 107쪽.

100) 朱甫暉, 「新羅國家 形成期 金氏族團의 成長背景」,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117-118쪽.

101)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한국사론』 6, 1980, 32쪽; 박상란,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2005, 95-96쪽.

102) 박상란, 앞의 책, 2005, 95-96쪽. 『北齊書』에 보이는 ‘김진흥’은 진흥왕대인 565년에 이미 한자식 성씨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北齊書』 卷7, 「帝紀」 第7(北京: 中華書局, 1972, 94쪽)

103) 李純根, 앞의 논문, 1980, 32쪽.

10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元年.

10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9年.

106) 박상란, 앞의 책, 2005, 87-88쪽.

을 매개로 한다.<sup>107)</sup> 남해차차웅은 혁거세의 적자이면서도,<sup>108)</sup> 알지를 거두어 기른 탈해의 장인이다.<sup>109)</sup> 이와 같은 삼성 시조의 시간적 연결성과 상호 관련성은 『國史』 편찬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성씨를 갖게 된 세 명의 시조는 『國史』 편찬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왕실의 조상으로 정립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110)</sup> 이 과정을 거치며 김씨 왕실은 그들 집단의 시조인 알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이전까지 유일한 국조였던 혁거세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격하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國史』 편찬 과정을 통해 왕실의 조상으로 공식화된 세 명의 시조는 모두 왕실 시조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시조의 위상은 시조 제사의 위상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렇다면 『國史』 편찬 과정을 거친 후, 세 시조에 대한 제사는 모두 국가의 조상제사인 시조묘 제사 체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郊廟 제사 중 시조묘 제사는 왕실의 세 시조에 대한 제사인 혁거세, 알지 제사, 탈해의 廟 제사로 구성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다만 세 시조가 모두 왕실 시조로서의 위상을 얻었다고 하여도, 각 시조가 갖는 위상 차이와 시조 제사의 위상 차이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혁거세의 廟 제사는 B 사료군에서 확인하였듯이 중고기까지 가장 높은 서열을 유지하였던 국조묘 제사였다. 따라서 시조묘 제사 중에서 형식상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제사는 혁거세묘 제사라고 여겨진다.<sup>111)</sup> 상고기의 지위보다는 격하되었을 것이지만, 중고기의 조상제사 체계 안에서는 여전히 형식상으로 혁거세묘 제사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였다고 추정된다. 그 뒤를 잇는 위상을 가진 제사는 알지의 廟 제사였을 것이다. 김씨 왕실은 정치권력과 혈연의식에 기반하여 알지묘 제사를 혁거세묘 제사의 바로 아래에 위치시켰을 것이다. 혹은 그들 집단의 시조인 알지의 제사에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위상을 부여하였을 수도 있다. 당시 김씨 왕실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중고기에 김씨 집단 제사의 격은 언제든지 격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상태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중대 이후 김씨 집단의 시조가 오묘의 수위에 모셔진 일과도 연결된다.<sup>112)</sup>

한편, 시조묘 제사 중 가장 낮은 지위는 탈해의 차지였을 것이다. 중고기 내내 석씨 집단의 활약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박씨나 김씨 집단의 시조에 비하여 미약한 세력 기반을 가진 석씨 집단의 시조 탈해는 타 집단의 시조에 비하여 지위가 낮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중대에 탈해의 제사가 토함산의 산신 제사로 격하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sup>113)</sup> 중대 왕실이 탈해의 제사를 시조묘 제사에서 산신 제사로 격하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고기에 탈해의 제사가 이미 세 시조의 제사 중에서 가장 낮은 격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며, 시간이 지나며 탈해가 지닌 왕

107) 위의 책, 91쪽. 이외에도 박상란은 세 명의 시조가 호공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세 시조 설화가 모두 성씨 유래담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라 건국신화가 한 문맥 속에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위의 책, 87-94쪽)

108)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南解次次雄 元年.

10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南解次次雄 5年.

110) 『國史』에 수록된 신라의 왕실 시조 신화는 왕 계보 정리의 일환이자 성씨 부여의 계기로서 최고 지배집단의 세력을 과시하는 의미를 지녔다. 박상란은 국사에 기록된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 탈해, 알지가 한 문맥에 등장하는 신화였다고 보았고, 애초에 세 신화가 하나로 통합된 채 존재하였을 것이라 하였다.(박상란, 앞의 책, 2005, 76-96쪽)

111) 변태섭은 신궁 설치 후 혁거세의 시조묘 제사가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국조로서의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 보았다.(邊太燮, 앞의 논문, 1964, 65쪽)

112) 『三國史記』 卷32, 「雜誌」 第1, 祭祀.

113)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第四 脫解王.

실 시조로서의 위상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신라 중고기의 왕이 삼보 중 하나인 옥대를 차고 지냈다는 郊廟 제사는 郊祀인 신궁 제사와 廟祭인 혁거세, 알지, 탈해의 始祖廟 제사로 구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중고기의 왕실은 『國史』 편찬 과정을 거치며, 신라 내에 존재하던 다양한 시조들 중에서 세 시조를 왕실의 시조로서 공인하고, 이들에 대한 廟 제사를 국가적 차원으로 지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를 만들며 중고기의 김씨 왕실은 천신제사와 조상제사라는 두 국가제사를 장악하여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신궁의 설치 이후 시조묘 제사와 신궁 제사가 중고기 郊廟 제사의 체계를 이루었음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제사의 구성까지 추정해보았다. II장에서는 소지마립간대에 신궁이 설치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궁 제사는 국가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소지마립간의 의도에 부합한 郊祀 의례, 즉 천신 제사였다. 다만 신궁이 설치될 시점에 신라의 신 관념은 천신과 인격신이 온전히 분리되지 못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신궁에서 모셔졌던 천신의 구체적 실체는 혁거세였다.

III장에서는 신궁 제사가 신설된 이후에도 시조묘 제사가 존속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시조묘 제사가 국조묘 제사로서의 위상을 유지한 채 조상제사로서 지속되었음을 검토하였다. 한편, 중고기에 불교가 수용되면서 천신 관념은 변화하였고, 이에 신궁 제사는 점차 혁거세와의 관련성을 잃어갔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신궁 설치 이후 신궁 제사와 시조묘 제사는 『삼국유사』 신라 중고기의 郊廟 제사 체계를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IV장에서는 郊廟 제사 체계 중 시조묘 제사가 어떠한 구성을 이루었는지 검토해보았다. 교묘 제사 체계 안에서 시조묘 제사는 혁거세묘 제사뿐 아니라, 알지묘 제사와 탈해묘 제사로 구성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강화된 김씨 왕실의 권력을 반영하는 체계이자, 『國史』 편찬 과정을 거치며 공인된 세 명의 왕실 조상에 대한 제사 체계였다. 이와 같은 시조묘 제사의 구성을 통해 김씨 왕실은 국조인 혁거세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한편, 그들의 시조인 알지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중고기 시조묘 제사 체계의 영향력은 중대까지 이어졌다. 중대 왕실의 조상제사였던 오묘의 수위에 김씨의 시조가 모셔질 수 있었던 토대는 바로 중고기 왕실의 조상제사였던 시조묘 제사의 구성에 있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魏書』  
『周書』  
『北齊書』

### 2. 연구서

三品彰英,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1973.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1978.  
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지식산업사, 1987.  
하워드 J. 웨슬러 저, 임대희 역,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강진원,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2021.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대외관계 1-신라와 삼국』, 역사산책, 2020.  
金杜珍,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1999.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박상란,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2005.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관계』, 신서원, 2009.  
趙宇然, 『天帝之子 :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2019.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2008.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 3. 논문

강진원, 「백제 天地合祭의 추이와 특징」, 『서울과 역사』 92, 2016.  
김병근, 「古代 三國의 始祖觀 成立과 變遷」, 『역사민속학』 29, 2009.  
金龍深, 「秦漢帝國의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김재홍, 「신라 마립간시기 왕위 계승과 적석목곽묘의 조성 원리」, 『한국상고사학보』 117, 2022.  
金昌錫, 「신라 始祖廟의 성립과 그 祭祀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26, 2007.  
김현숙, 「고구려 수묘제 연구의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26, 2015.  
金義滿, 「新羅의 『國史』 編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나희라, 「7-8세기 唐, 新羅, 日本의 國家祭祀體系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 \_\_\_\_\_, 「古代 東北亞 諸民族의 神話, 儀禮, 君主觀」, 『震檀學報』 99, 2005.
- 박남수,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 - 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2020.
- 박미라, 「中國 郊祀儀禮에 나타난 天神의 性格과 構造 研究」, 『宗敎學研究』 16, 1997.
- 박초룡, 「백제 泗泚時期 祭祀體系 변화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3.
- \_\_\_\_\_, 「新羅 國家禮制 研究」,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백동인, 「新羅 炤知麻立干의 神宮 설치와 親祀」, 『新羅史學報』 42, 2018.
- \_\_\_\_\_, 「新羅 上古期 제사의 정치화」,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25.
-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敎育』 8, 1964.
- 徐永大,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_\_\_\_\_, 「新羅의 佛敎受容과 天神觀念」, 『韓國思想史學』 10, 1998.
- \_\_\_\_\_,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2003.
- 소현숙, 「中國 南北朝時代 國家祭禮와 祭禮空間」, 『백제문화』 62, 2020.
- 梁柱東, 「鄉歌의 解讀, 특히 「願往生歌」에 就하여」, 『梁柱東全集 3』, 東國大學校出版部, 1995.
-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한국사론』 6, 1980.
- 李天雨, 「신라 진흥왕의 왕위계승을 통해 본 신라 중고 왕실의 ‘나물왕계’ 형성」, 『震檀學報』 134, 2020.
- 전덕재, 「신라 초기 농경의례와 貢納의 수취」, 『강좌 한국고대사2: 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_\_\_\_\_, 「異斯夫의 家系와 政治的位相」, 『史學研究』 115, 2014.
- 鄭再敎, 「新羅의 國家的 成長과 神宮」, 『역사와 세계』 11, 1987.
- 조범환, 「신라 奈勿王代 前秦과의 交涉과 그 정치적 배경」, 『신라사학보』 41, 2017.
- 朱甫暎, 「新羅國家 形成期 金氏族團의 成長背景」,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 최광식, 「왜 신라는 신궁에서 제사를 지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8, 2007.
- 崔秉鉉, 「新羅의 成長과 新羅 古墳文化의 展開」, 『韓國古代史研究』 4, 1991.
- 한영화, 「신라 사면의 의례와 공간」, 『역사와 현실』 94, 2014.
- \_\_\_\_\_, 「신라의 희생제의」, 『사림』 66, 2018.
- \_\_\_\_\_, 「신라 祀典 체계의 특징과 운영 -당,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역사와 경계』 110, 2019.
- 황인호, 「신라 도성 내 국가제의 공간 연구-경주 나정 유적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56, 2022.

# 「신라의 神宮 설치와 郊廟 제사의 구성」에 대한 토론문

박 초 룡 | 이화여자대학교

이 글은 신라의 국가제사 가운데 신궁과 시조묘 제사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고기(中古期) 국가제사 체계의 구성을 밝히려 하였다. 『삼국사기』 제사지와 신라본기에 보이는 신궁 설치 기록의 차이를 분석하여 신궁이 소지마립간대에 설치되었음을 주장하고, 신궁은 시조의 사후 제사 공간이 아니라 ‘誕降地’인 蘿井에 설치되었으므로 신궁 제사는 조상제사가 아니라 天神 제사, 즉 郊祀(郊祭)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궁 제사는 중국의 교사를 참조하여 도입된 것으로, 중국 황제의 교사 즉 위 의례와 같이 기존에 시조묘에서 이루어지던 즉위 의례를 대체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삼국유사』의 “郊廟大祀”라는 표현은 신궁과 시조묘 제사의 병존을 반영한 용어로 해석하여, 신라 중고기에는 천신 제사(신궁)와 조상제사(시조묘)가 병존하는 ‘郊廟 제사 체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국사』 편찬 과정과 현전하는 박·석·김성씨 시조 신화의 유기적 구조를 근거로, 시조묘 제사에는 혁거세뿐 아니라 알지, 탈해의 제사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통해 김씨 왕실은 교사(신궁)와 묘제(시조묘)를 모두 장악함으로써 천신·조상제사 양면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시조묘와 신궁은 불교·유교적 국왕권 정당화 논리가 체계화되기 이전, 신라 고유의 전통적 왕위 정통성을 지탱하던 제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제사의 실체와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은 중고기 국가제사 체계를 해명하는 데뿐만 아니라, 신라 왕권 정당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기존에는 소수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던 ‘중국 교사 참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궁과 시조묘가 병존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시조묘 제사에 박·석·김 시조가 모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 논지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바란다.

## 1. 중국식 ‘교사(교제)’의 ‘인지’와 ‘수용’ 문제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신궁 설치 후에도 신궁과 시조묘 제사가 병존했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신궁 제사의 성격이 조상제사가 아니라 천신에 대한 교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내용(천신적 속성을 갖는 시조신에 대한 제사 혹은 천신 제사로 이해)이나, 이를 중국식 교사를 인식하고 (고구려를 통해) 수용한 결과로 파악한 점은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국가제사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郊冢’를 통해 ‘교사’의 존재를 추정하고, 나아가 이를 중국식 교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다소 비약적 해석으로 보인다(신라가 前秦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방증 자료로 제시한 것도 지나친 감이 있다). 이미 저자도 지적했듯 고구려의 제천이 사료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중국식 용어/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식 교사의 핵심은 유교적 天을 제사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제천의례와 차이를 갖는다(서영대). 중국의 교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신궁이 중국의 교사를 참조한 것이라면 신라 사회 내에 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교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신궁의 주신을 혁거세로 보면서 시조 탄강지에 신궁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천신적 속성을 갖는다’고 파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5세기 신라의 천신 관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언급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2. 천신과 조상신의 분화 문제

위의 문제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다. 발표문 10쪽에서는 “불교가 수용된 이후 신라인들은 불교적 관점에서 천신을 이해하였고, 이 과정을 거치며 천신은 혁거세와 구분되어 인식되었을 것” “진평왕대를 전후하여 신궁제사는 비로소 혁거세로부터 탈각된 천신 제사인 교사의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평왕대를 전후하여 ‘천신이 인격신에서 관념적 존재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인가? 『삼국유사』라는 사료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까? ‘천사옥대’ 설화는 진평왕 당대에 형성된 것일까, 후대적 재구성의 가능성은 없을까?

## 3. 삼성(박·석·김) 시조의 제사 문제

『국사』 편찬의 과정에서 박·석·김성 시조에 대한 상관관계가 정리되었을 가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탈해와 알지가 모두 시조묘 제사 체계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신화적 계보 정립과 실제 국가제사의 제도화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추론 외에 탈해·알지 제사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비교 가능한 다른 사례 등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新羅 稟典考

## —월성해자 출토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섭 | 충북대학교

- I. 머리말
- II. 稟典 관련 목간의 출토 상황과 판독
- III. 稟典 업무와 典大等の 직무
- IV. 稟典의 설치와 조직 구성
- V. 稟典 前後의 신라 官制—맺음말에 대신하여—

### I. 머리말

경주 월성해자 유적에서는 현재까지 38점의 신라목간이 출토했습니다.<sup>1)</sup> 발표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새롭게 발견된 목간<sup>2)</sup>에서 稟典이라는 새로운 관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을 신라의 문서목간을 고찰한 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sup>3)</sup> 이후 필자의 견해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sup>4)</sup> 월성해자 목간 관련 자료집<sup>5)</sup>과 새롭게 출토한 목간의 보고서<sup>6)</sup>까지 발견되면서 새로운 판독안이나 연구의 관점들이 저 스스로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간이라는 자료는 너무나 零星하여 연구의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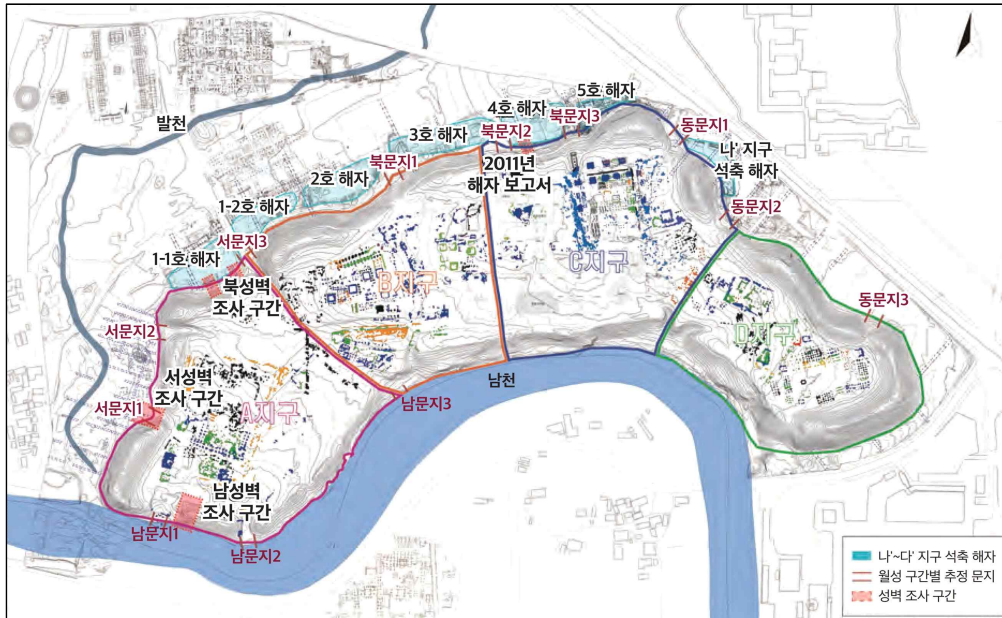
이에 월성해자 목간의 稟典 관련 목간을 분석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연구의 시각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한국고대사학회 제198회 정기발표회(2025년 11월 8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6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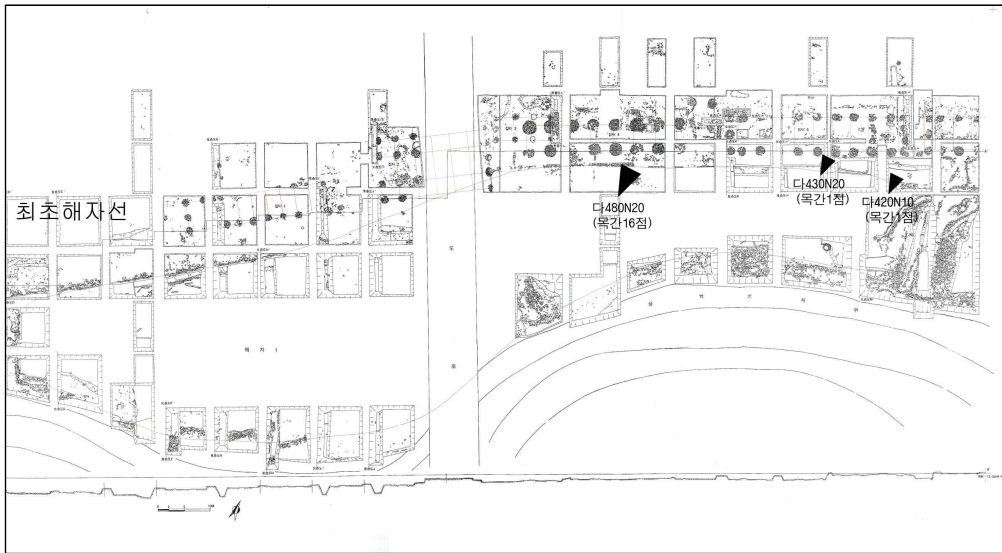
-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신라 왕경 목간』
- 2) 윤선태,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 주보돈, 2018 「월성 해자 출토 목간의 의미」, 『목간과 문자』 20
- 3) 이경섭, 2021 「신라 문서목간의 話者와 書者」 『신라사학보』 51
- 4) 橋本繁, 2024 「신 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재검토」 『신라사학보』 62
- 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신라 왕경 목간』
- 6)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2024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IV』 2

## II. 稟典 관련 목간의 출토 상황과 판독

월성해자 목간은 1985~1986년(29점), 2016~2018년(9점)에 걸쳐서 38점이 출토했다.<sup>7)</sup> 이 가운데 신라 官制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稟典, 稟典太等, 典中大等, 典太等 등이 목서된 목간이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이들 목간의 출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판독을 진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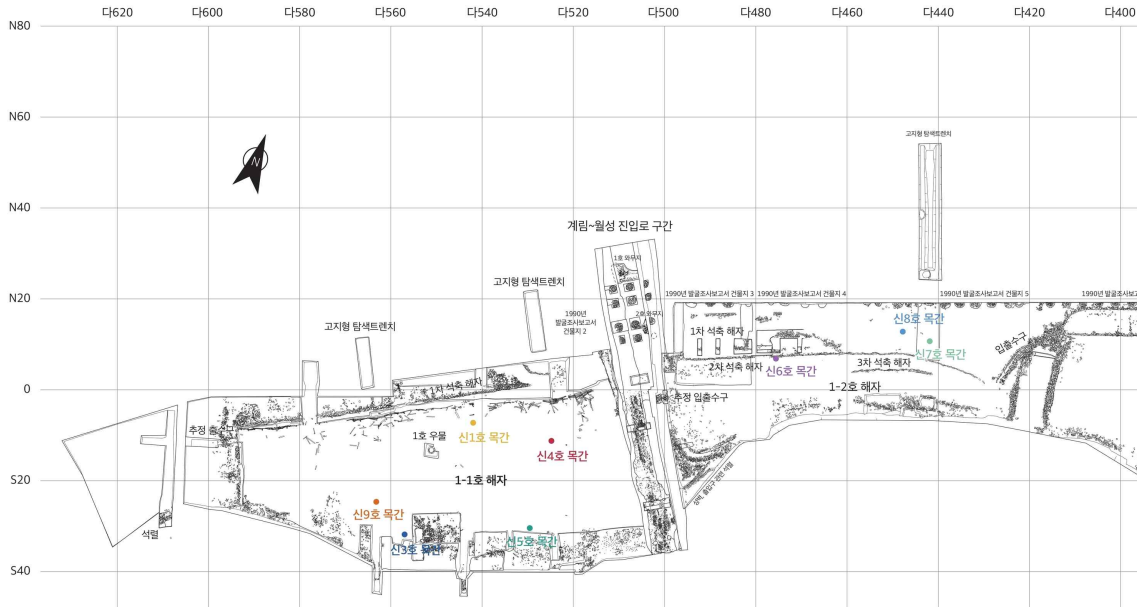


<그림 1> 월성 발굴 조사 현황과 구분



<그림 2> 월성 1호 해자 평면도 및 목간 출토 위치

7) 목간의 정의와 출토 목간의 상태에 따라 시기별 보고서나 자료집 등의 목간의 수는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22년에 간행된 『신라 왕경 목간』을 따른다. 월성해자 목간의 번호도 『신라 왕경 목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6~2018년에 새로 출토된 목간의 번호는 『보고서VI』를 집필한 전경효 2024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3> 신출토 목간의 발굴 지점(전경호 2024, 469)

[목간❶] 신8호 목간(2018) \*다면(3면)

(1면) • □□年正月十七日□□村在幢主再拜白□稟典太[等][前?]

(2면) • 喙部弗德智小舍[寻]稻参石粟壹石稗参石大豆捌石

(3면) • 金川一伐上内之 所白人 登彼礼智一尺 文尺智重一尺 38×5.1×3.8

이 목간은 2018년 월성 1-2호 해자의 수혈 해자 내부 퇴적층인 빨층에서 출토하였다. 부분 파손되어 출토되었으나, 적외선 사진의 목흔이 비교적 양호하여 간지(□□年)와 발신자의 지명(□□村<sup>8)</sup>)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글자들을 판독할 수 있다. 목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판독이 1면의 마지막 다섯 글자[稟典太等前]이다. 稟典의 경우 처음 목간을 보고한 연구에서는 廩典으로 판독하고서 稟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sup>9)</sup> 이 부분을 처음 품전으로 판독한 연구자는 橋本繁이었으며,<sup>10)</sup> 다음 글자인 太까지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어지는 等は 峯<sup>11)</sup>, 小舍<sup>12)</sup> 등으로 읽기도 하지만, 等 字라는 판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13)</sup> 전경호는 이를 小舍의 합자라고 보았는데, 글자별 적외선 사진에는 이 글자의 상부가 小인

8) 파손되고 남은 오른쪽 부분의 목흔으로 甘文촌으로 추독한 견해가 있다. 橋本繁 2021, 196~197; 2024, 535~536. 甘文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파손된 부분이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판독을 보류한다.

9) 전경호 2021, 294. 이후에 전경호는 『보고서』VI에서 稟典으로 확정 판독했다(2024, 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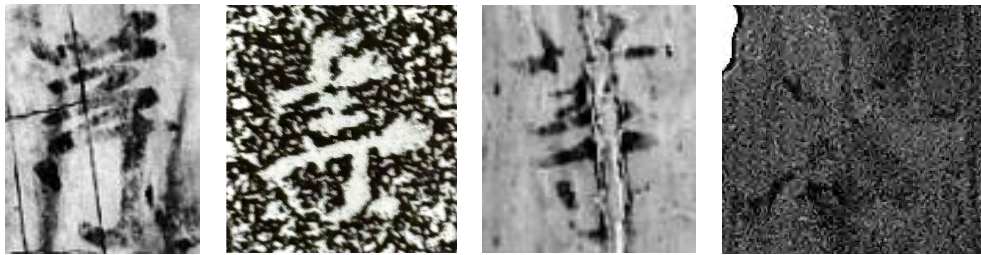
10) 橋本繁, 2020 「신라 문서 목간」, (심포지엄) '통일신라 문자의 세계' 발표자료집, 국립경주박물관; 2021, 194. 이후 稟典은 거의 인정되었다고 보인다. 이경섭 2021, 1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신라 왕경 목간』, 340.

11) 전경호 2021, 294.

12) 『신라 왕경 목간』, 340; 전경호 2024, 488.

13) 橋本繁 2021, 194에서는 [等?]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경섭도 [等?]으로 판독하였다(2021, 116~117).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sup>14)</sup> 그러나 소라고 읽은 가운데의 첫 획 <丨>부분은 목흔이 아니라 목간 표면의 흠집(아래 <그림> 참조)이 적외선 사진에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의 ㄴ 획 아래의 목간 표면이 거칠어 사진이나 적외선 사진에서 정확한 목흔 자형을 읽어내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等の 竹부를 ㄴ(월성해자 12호, <단양적성비>)와 卍(월성해자 신4호)로 쓰기도 하는 점, (稟)典太等を 묵서했을 것이라는 추론에 따라서 等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월성해자 12호      <단양적성비>      월성해자 신4호      전경호 2024, 489

<그림 7> 목간과 금석문의 等

1면의 마지막 글자는 等を 묵서한 부분처럼 표면이 거칠고 목간의 하단이 파손되어서 전체 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ㄴ 획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목간의 서식을 고려하여 [前?]으로 추독하였다.

나머지 2면과 3면의 글자는 대체로 판독이 가능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견이 제시된 글자는 2면의 여덟 번째 글자이다. 이 글자는 易<sup>15)</sup>이나 易<sup>16)</sup>으로 판독하거나 前으로 읽을 가능성<sup>17)</sup>이 되었다.

易과 易자의 하부인 勿과 적외선 사진의 아래 글자 자형을 비교하고 있다. 前으로 판독하기에는 ㄴ 획보다는 日의 마 획을 길게 쓴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아래 글자 자형은 11보 寸자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得으로 판독하였다. 이 글자 得 재 통용되는 得의 이체자이며, 得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차 이  
지 막  
다 는  
은 현

14) 전경호 2024, 489의 21~22자 적외선 사진 참조. 이 글자의 공간이 한 글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합자라고 간주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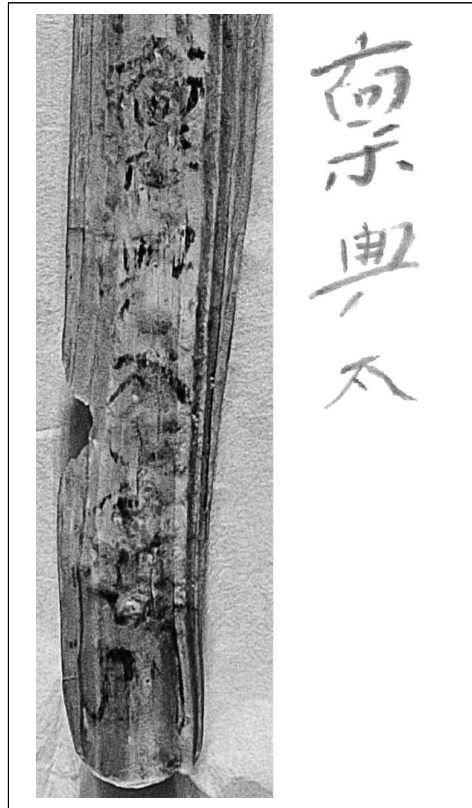
15) 전경호 2021.2024.

16) 『신라 왕경 목간』, 341.

17) 橋本繁 202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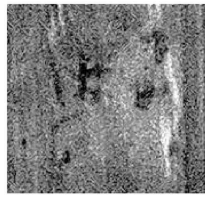
<그림 8> 1면 하부 : 稟典太等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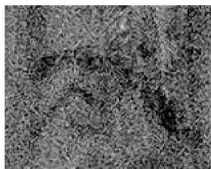
<그림 2> 橋本繁 2024, 537에서 인용



稟



典



太



等



前?

[목간 2] 일성해자 10호 목간(1986) \* 원주형

(1행) • 寺典大宮士等敬白稟典前□□

(2행) • 大□女寺□可□□□七

(3행) • □素□小□□□□□時四

(4행) • 田□此□□□□□□日□

(5행) • □還不后斤□

(6행) • 走□□□

20.8×3.3(직경)



<그림 10> ① 寺典大宮史等(보고서Ⅱ) ② 敬白稟典前(보고서Ⅱ) ③ 1면 하부  
실물(보고서Ⅱ)

이 목간은 완형의 원주형목간으로 6행에 걸쳐서 문자가 확인된다. 이는 제작 당시 꽤 많은 내용이 목간에 기입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1행 외에는 많은 글자들을 판독하기 어려워 그동안 연구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목간이다. 처음 적외선 사진이 공개된 『한국의 고대목간』(2004)과 『보고서Ⅱ』(2006)에서는 문서의 발신과 수신이 기록된 1행을 5행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1행의 경우 『보고서Ⅱ』에서 寺□大宮士等敬白范典利老의 판독안<sup>18)</sup>이 제시되었고, 이후 윤선태가 寺典大宮士等敬白[苑]典前先□으로 읽었다. 두 번째 글자를 典, 11번째 글자를 前으로 판독한 것은 이 문서목간의 발신과 수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9)</sup>

최근 橋本繁은 1행을 寺典大宮士等敬白稟典前先이라고 판독하여 수신처를 稟典이라고 새롭게 특정했다.<sup>20)</sup> 『신라 왕경 목간』의 월성해자 11호 목간 판독안 □□廩□에서 廩을 稟으로 판독하여 10호 목간의 稟과 같은 글자로 보았는데, 『보고서Ⅱ』의 10호 목간 적외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1행 아홉 번째 글자는 橋本繁의 견해를 따라 稟으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이 글에서 稟典前 다음의 글자를 □□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윤선태와 橋本繁은 先으로 판독했는데, 양자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보통 문서목간은 수신을

18) 이용현

19) 윤선태 2018, 89. 윤선태는 1행을 “寺典의 大宮士 등(等)이 삼가 아뢰입니다(敬白) [苑]典 앞(前)”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苑]典前 뒤의 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0) 橋本繁 2024, 546~548.

의미하는 ~前이 행이나 면의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 ~前先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先이 前과 유사한 의미가 있는 데에서 ~前先이 수신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前에서 일단락하고 先 이후가 문서 내용의 시작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면.원주형목간에서 행과 면은 내용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일찍이 목간 하부의 옹이 부분의 면이 균일하지 않아서인지 문자의 행이 교란되었다는 지적<sup>21)</sup>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목간이 습서용이나 새로운 문서로 재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稟典前 이하의 판독을 보류하였다.

[목간 3] 월성해자 신4호 목간(2016) \*다면(4면)

- (1면) • 典中太等敬白沙喙及伐漸典前
- (2면) • 阿尺[山]□[舟]□[至?]□□[白]□[事?]
- (3면) • 急墮爲在之
- (4면) • 文人周公智吉士. (25.9)×2.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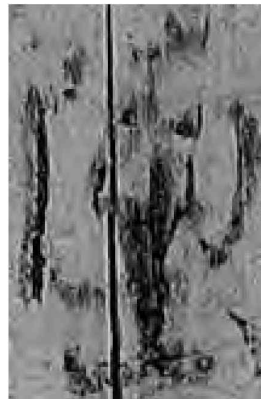
<그림> 신4호 목간 사진

이 목간은 상하단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까우며, 적외선 사진으로 많은 글자들을 판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의 주요 내용이 기록된 2면의 목흔이 흐릿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면의 판독은 첫 번째, 두 번째 글자인 阿尺 이하의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추독하였다. 다음은 2면-10의 白과 3면-2의 墮의 적외선 사진이다.

21) 『보고서 II』, 145.



2면-10 白



3면-2 墮

2면-10은 白으로 판독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읽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보고서VI』의 적외선 사진에서 白의 판독이 옳다고 생각된다. 3면-2의 경우 墮으로 판독하는 경우가 있지만<sup>22)</sup> 최근 橋本繁의 견해대로 墮로 읽어야 할 것이다.<sup>23)</sup> 우상단의 글자 획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므로 有 자를 묵서했다고 보이며, 전체적으로 墮의 𠂔(𠂔)라고 보기 어려운 자형이기 때문이다.

[목간 4] 월성해자 12호(1986) \*원주형목간

(1행) • 四月一日典太等教事

(2행) • [勺][舌]白故爲□教事□□

(3행) • □□□□□□□□ 24.4×5.1(직경)

이 목간은 典太等教事の 목서가 실물 자료에서 확인되면서 월성해자 목간 가운데 일찍부터 알려 졌다. 원주형 목간이며 3행에 걸쳐서 목서가 확인되는데, 1행 외에는 정확한 판독과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 Ⅲ. 稟典과 典大等の 업무

월성해자 목간의 품전은 『삼국사기』 등의 문헌자료나 금석문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이다. 목간의 품전태등, 전중대등, 전태등은 그동안 품주의 장관으로 밝혀진 전대등이라고<sup>24)</sup> 생각된다. 품주의 장관 이름이 전대등이었던 이유는 稟典太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품전은 품주와 관련이 있지만 품전이 곧 품주라는 이해는 다른 문제이다. 월성해자 목간에서 품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품전 조직과 그 정점에 있는 전대등의 설치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목간 판독을 토대로 稟典과 典大等の 담당 업무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22) 윤선태 2018, 96 ; 전경효 2021, 71. 다만 전경효 2024, 478에서 자신의 판독안을 □으로 수정했다.

23) 橋本繁 2024, 531.

24) 이기백, 1964 「稟主考」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1974, 134~148.

[목간1] 신8호 목간(2018)

- (1면) • □□년 정월 17일 □□촌 幢主가 再拜하며 아뢰입니다. 稟典太等 앞
- (2면) • 喙部 弗德智 小솨가 稻 參石 粟 壹石 稗 參石 大豆 捌石을 받았습니다(得).
- (3면) • 金川 一伐이 올렸고, 아뢴 사람은 登彼禮智 一尺이며 文尺은 智重 一尺입니다.

이 목간은 □□촌 幢主(발신)가 稟典太等(수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각 면마다 해당 내용이 완결적으로 서사되었다. 1면의 문서 수신자인 稟典太等은 목간2에서 稟典이라는 관부명이 보이고, 목간3의 典中太等이 ‘典의 太等’이라는 의미에서 稟典 관부의 太等이라고 생각된다. 幢主는 郡 단위의 중심 행정촌에 파견된 지방관으로서 軍官과 행정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데,<sup>25)</sup> 이 목간으로 조세 행정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다.

2면은 □□촌에서 納稅한 稻 1석.粟 1석.稗 3석.大豆 8석을 喙部 弗德智 小솨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得(得)은 나주 북암리 10호 목간의 郡得分의 사례에서 稅穀 등의 收納에 사용되었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喙部 弗德智 小솨는 稟典太等の 지휘를 받는 稟典의 관인으로 稅穀 收納의 담당자였을 것이다.

3면의 외위 소지자 3명은 □□촌에서 王京까지 세곡을 운송하여 납부한 실무 담당자였다고 보인다. 처음에 등장하는 金川 一伐(외위 8)이 뒤이어 나오는 一尺(외위 9)들보다 관등이 높기에 세곡 납부의 전체 책임자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上內之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內는 吏讀에서 과거형으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sup>26)</sup> 上內之는 ‘올렸다’·‘납부했다’라는 과거 완료형의 의미이다. 所白人은 세곡 납부의 현장에서 입말로 아뢴 사람(登彼禮智 一尺)이며, 이때 구두 보고와 함께 문서의 제출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文尺 智重 一尺을 관련 문서의 작성자로 생각하고 싶다.<sup>27)</sup>

그렇다면 왜 □□촌 幢主는 稟典太等에게 과거의 일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낸 것일까. 이는 아마도 세곡의 납부와 수납 이후 稅額의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檢納과 檢收의 과정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된다. 稅穀의 수량을 갖은자(壹.參.捌)로 쓴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삼국사기』 劔君열전에는 沙梁宮 唱翳倉穀의 보관과 절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전한다.<sup>28)</sup> 검군은 진평왕대에 沙梁宮 舍人이었는데, 궁의 여러 舍人들이 모의하여 唱翳倉의 곡식을 훔쳐서 나는 사건에 휘말려 죽음을 맞이했다. 倉穀의 도둑질은 창고 관리자들인 舍人의 문서(帳簿) 조작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만약 이러한 일을 바로 잡으려면 帳簿상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렇듯 목간1은 세곡의 납부와 수납 과정에서 전개되는 문자와 문서에 의한 지배를 생생하게 전하는 자료인 것이다.

[목간2] 월성해자 10호 목간(1986)

- (1행) • 寺典의 大宮士 등(等)이 삼가 아뢰입니다. 稟典 앞
- (2행 이하 내용 불명)

25) 주보돈, 1998, 110~130.

26) 이용 2013, 247~257.

27) 이경섭 2021, 118.

28) 『삼국사기』 권48 열전8 검군.

이 문서목간은 판독의 어려움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寺典의 大宮士들(발신)이 어떤 내용을 적어서 稟典 관부(수신)에 보낸 문서임은 분명하다. 품전은 목간<sup>1</sup> 품전대등에서 확인되듯이 관부의 이름이다.

寺典은 『삼국사기』 직관상 大道署의 분주에서 대도서의 다른 이름으로 內道監과 함께 기록되었다. 『삼국사기』 분주에 사전과 내도감이 함께 언급된 점에서 이들이 대도서보다는 원형적이거나 기원적인 이름이었을 것이다.<sup>29)</sup> 대도서는 禮部에 속한 관부였지만, 이전 시기 內道監이라는 별칭에서 寺典은 예부와 내성 성립 이전 왕실의 불교 관련 기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간의 발신자인 寺典의 大宮士라는 존재이다. 大宮은 진평왕 7년(585) 3궁에 각각 私臣을 두었다는 기록에서 확인되므로 大宮士는 大宮의 士라는 의미이다. 결국 大宮의 士는 『삼국사기』 검군 열전 등에서 확인되는 국왕 근시 관인인 솜인이었을 것이다. 대궁의 사인들이 근무하는 寺典은 왕실의 불교 관련 기구였음이 분명하다. 목간<sup>2</sup>는 바로 불교 관련 기구에 근무하는 왕실 근시 관인들이 품전이라는 관부에 발신했던 문서이다.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왕실 관련 기구인 寺典이 행정 업무상 稟典과 어느 정도 관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목간<sup>3</sup>] 월성해자 신4호 목간(2016)

- (1면) • 典中太 등이 삼가 아뢰입니다(敬白). 沙喙(의) 及 伐漸典 앞
- (2면) • 阿尺 山□가 [舟]로 와서 … (어떤) 일(事)을 아뢰기를(白)
- (3면) • 급히 보내달라고(墮) 했습니다(爲在之)
- (4면) • 文人 周公智 吉士

이 문서목간의 발신은 典中大等이며, 수신은 沙喙及伐漸典이다. 典中大等の 中은 ‘~의’라는 의미로 보인다. 『남산신성비』에서 확인되는 郡中上人和 郡上人的 용례가 근거가 된다. 沙喙及伐漸典은 ‘사탁과 급별점전’이거나 ‘사탁의 급별점전’이라는 의미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568, 진흥왕 29)의 隨駕人 職名 가운데 ‘及伐斬典’이 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及伐斬典喙部夫法知吉之(급별참전인 탁부의 부법지 길지)라고 기록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목간<sup>3</sup>의 沙喙及伐漸典은 사탁의 (職名인) 급별점전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탁의 실체가 의문인데, 「마운령비」에서 급별참전인 탁부의 부법지 길지는 국왕 근시집단을 나열한 執駕人 아래에 기록되었으므로 喙(梁)宮의 及伐斬典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목간<sup>3</sup>의 沙喙及伐漸典도 沙喙(梁)宮의 及伐漸典이었을<sup>30)</sup> 것이다. 탁궁과 사랑궁에는 그 담당 직무가 분명하지 않지만 及伐漸(斬)典이라는 관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及伐斬典인 夫法知의 관등이 吉之(경위 14)인데, 典中大 등이 삼가 아뢴다(敬白)는 서식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에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문서의 불분명한 내용이 사탁(량)궁과 깊이 관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탁(량)궁은 국왕의 권위에 假托한 대표적인 內廷기구였으므로 이러한 서식의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문서의 흐름은 지방민인 阿尺 山□가 稟典/典中大에게 사탁궁과 관련된 어떤 사안을 보고하면서 인력이나 물품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沙喙宮(及伐漸典)에 전달한 것이다. 墮에는 輸, 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sup>31)</sup> 이러한 이해에 크게 무

29) 직관지 분주에서 거론되는 관부(관직)의 이름이 해당 관명보다 원형적이거나 이른 시기의

30) 사탁궁 급별점전의 가능성은 박성현 2018, 261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31) 『漢語大詞典』 2, 1206.

리가 없다.

文人 周公智 吉士는 이 문서목간의 書者이며, 稟典 소속으로 典中大等の 예하 관인으로 근무했다. 吉士라는 京位 표기에서 「마운령비」(568)의 吉之보다는 이후 시기에 목간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목간4] 월성해자 12호(1986)

(1행) • 4월 1일 典太 등이 敎하신 일(事)

(2행 이하 내용 불명)

이 목간은 典太 등이 내린 敎의 내용을 썼던 공식적인 문서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행의 목흔이 적의선 사진으로도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 파악은 어렵지만 1행의 四月一日 典太 等 敎 事는 매우 분명하게 목서했다. 이 敎 事의 주체가 典太 등인지 王 敎 事를 대행한 것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sup>32)</sup> 왕만이 敎의 주체와 권한을 오로지한 것은 아니었다. 왕을 포함한 상위 지배계급들이 共論하여 敎를 내리는 전통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를 전후해서 존재하였다. 『삼국사기』 素那 열전에는 아달성 태수인 급찬 한선이 城民들에게 敎하기를 어느 날 麻를 심을 것이니 畝를 어기지 말라는 내용이 보인다.<sup>33)</sup> 지방관인 郡 太守가 민에게 敎를 내린 사실에서 신라 관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典太 등 또한 예하 관인이나 연계된 관부에게 敎를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단적으로 월성해자 2호 목간 3면의 <牒垂賜敎在之>는 <牒<sup>34)</sup>을(으로) 내리신(드리우신) 명령(敎)이 있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2호 문서의 수신자인 大鳥知郎이 敎의 주체였다고 생각된다.<sup>35)</sup> 이렇듯 상하 관계의 관인들 사이에서 敎의 授受는 인정된다.

年干支 없이 4월 1일 날짜만 쓰고서 용도가 다하여 해자에서 폐기되었던 사실에서 이 목간은 품전 예하의 관인이나 품전과 관련된 주변 관인들을 대상으로 내린 敎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룬 목간1은 간지와 날짜 모두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목간1은 幢主가 있는 지방 행정단위에서 수취된 세곡의 수납과 보관 업무가 稟典太 등의 책임 아래 있었음을 전한다. 이는 稟主가 처음부터 국가정무 중 가장 중요한 재정 부문을 주로 맡았다는 지적<sup>36)</sup>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목간1은 수취했던 재정원의 납입 및 보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였으므로, 이것은 곡물의 수취와 보관·지출을 담당했던 창부의 업무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따르면 진덕왕 5년 창부 설치 이전에는 품주가 이 업무를 겸하였다.<sup>37)</sup> 이러한 직관지의 창부 기사와는 다르게 목간1에서는 稟典이 재정 업무를 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가재정의 관리는 稟典의 중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간2와 3의 검토에서 왕실의 內廷과 관계 깊은 寺典 大宮士, 沙喙宮 及 伐漸典 등이 稟典 혹은 典中大等과 직접적이며 상호적으로 문서목간을 매개로 한 公的인 의지의 교환이나 정보 전달 등 다양한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稟典이 적어도 진평왕 44년(622) 內省 설치 전후에 왕실 內廷기관들과도 행정 업무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32) 윤선태 2018, 90.

33) 『삼국사기』 열전 素那

34) 여기서의 牒은 월성해자 12호 같은 목간으로 제작되어 전달되었을 것이다.

35) 이경섭 2009 : 2013, 81~86.

36) 이병도 1954, 16.

37) 『삼국사기』 직관상 倉部.

이렇듯 稟典은 재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무 뿐만 아니라, 왕실과 관련된 내정의 업무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범위한 국가와 왕실의 업무를 주관했던 품전과 전대등은 신라 官制의 내부에서 목간<sup>4</sup> 典太等敎事와 같은 권위를 획득해 나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IV. 稟典의 구성과 典大等

지금까지 월성해자 목간의 내용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稟典과 典大 등이 신라 官制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품전이 관부로서 어떻게 기원하고 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품전에 대해서는 월성해자 목간 외에는 자료가 보이지 않지만, 해당 목간에서 稟典太等과 典中大等, 典太 등이 확인되므로 우선 전대등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執事省 본래 이름은 稟主<혹은 祖主라고도 한다.>이다. 眞德王 5년(651)에 執事部로 고쳤고, 興德王 4년(829)에 또 省으로 고쳤다. 中侍는 1명이었는데 진덕왕 5년에 설치하였고, 景德王 6년(747)에 侍中으로 고쳤다. 관등이 大阿滄<sup>⑤</sup>에서 伊滄<sup>②</sup>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典大等은 2명이었는데 眞興王 26년(565)에 설치하였고, 景德王 6년(747)에 侍郎으로 고쳤다. 관등이 奈麻<sup>⑩</sup>에서 阿滄<sup>⑥</sup>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大舍는 2명이었는데 眞平王 11년(589)에 설치하였고, 景德王 18년(759)에 郎中으로 고쳤다.<또는 진덕왕 5년(651)에 고쳤다고 하였다.> 관등이 舍知<sup>⑬</sup>에서 奈麻<sup>⑩</sup>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舍知는 2명이었는데 神文王 5년(685)에 설치하였다. 景德王 18년(759)에 員外郎으로 고쳤으나, 惠恭王 12년(776)에 다시 사지로 칭하였다. 관등이 舍知<sup>⑬</sup>에서 大舍<sup>⑭</sup>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史는 14명이었는데 문무왕 11년에 6명을 더하였다. 景德왕이 郎으로 고쳤으나, 惠恭왕은 다시 史로 칭하였다. 관등이 先沮知<sup>⑰</sup>에서 大舍<sup>⑭</sup>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집사부는 진덕왕 5년(651)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하면서 설치되었으며, 그때 장관으로 中侍 1명을 두었다. 이어서 典大等은 집사부 설치 이전인 진흥왕 26년(565)에 2명을 설치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전대등은 품주의 장관이었으며, 품주의 설치도 이때부터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었다.<sup>38)</sup> 이는 집사부가 본래 품주였고, 집사부의 차관인 전대등이 진흥왕 26년에 설치된 기록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 여기에서 품주의 장관인 典大等이라는 職名은 중고기의 大等 가운데 직임을 맡은 대등이 분화하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막연히 이해되었다. 전대등과 함께 소경의 장관인 仕大等이나 郡의 장관인 使大等은 해당 관부의 장이기 때문에 某大等이라고 이름하였다는 모호하게 언급하였다.<sup>39)</sup>

그러나 稟典 관련 월성해자 목간에서 보이는 典太 등이 典中大等이라고도 쓰였으며, 여기서 中은 ‘~의’ 의미이기 때문에 막연한 직명으로서의 典大 등이 아니라 ‘典의 大等’임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稟典太等은 典大 등이 ‘稟典의 太等’임을 말하는 확실한 자료일 것이다. 직관지 집사성 조에 품전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sup>40)</sup> 일찍이 품주에 대하여 관직의 이름으로 출발하였다는 지적이 있

38) 이기백 1964 ; 1974.

39) 이기백 1964 ; 1974, 145

었으며,<sup>41)</sup> 이는 신라 상고기의 軍主, 幢主, 州主, 郡主 등의 기록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某主’ 형태의 품주는 상고기 관직으로서 그 官名の 동질성에서 관부적 성격인 稟典의 기원이라고 할 것이다.[稟主→稟典]

결론적으로 품전은 전대등이 설치된 진흥왕 26년(565)에 존재했으며, 진덕왕 5년(651)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하면서 轉化했다고 보인다. 다만 품전의 설치 시기를 전대등이 두어진 565년으로 볼 것인지는 주저되는 지점들이 있다. 품전은 국가재정(목간<sup>1</sup>)과 왕실의 업무(목간<sup>2,3</sup>)까지를 주관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신라 國制에서 가장 중요한 관부였으며 많은 업무의 처리와 그를 위한 다수의 관인들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2명의 전대등은 단순히 탁부와 사탁부의 대등 1명씩을 임명했다기보다는 국가와 왕실 관련 업무의 분장과 같은 국정 운영의 요구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품전의 장관인 품전대등은 大等이었으며, 大等は 진골귀족이었음이 분명하다.<sup>42)</sup> 그렇다면 관등이 奈麻<sup>⑩</sup>에서 阿滄<sup>⑥</sup>까지인 자로 임명한다는 직관지 집사성 조의 典大等 관등 규정은 稟典大等に 적용할 수 없다. 이기백은 이 관등 규정이 품주의 창설 당시부터 적용되었다고 이해하였다.<sup>43)</sup> 그러나 품전대등이 전대등이라는 필자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직관지 관등 규정은 집사부의 설치 시기인 진덕왕 5년(651)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품전대등은 이기백이 설명한 품주와 같은 가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의문이 든다. 현재로서는 품전대등은 진골이었으며, 품전의 업무가 국가와 왕실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후대 집사부 중시의 前身으로서 신라 관제상의 위치를 전해가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두고 싶다.

다시 품전의 기원과 관련하여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삼국사기』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신라의 관부가 지증왕 9년(508)의 東市典이라는 사실이다.<sup>44)</sup> 이름이 알려진 관부 가운데 처음 설치된 관부가 某某‘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중고기 이후에 두어지는 ~部.府 이름의 관부보다 某某‘典’류의 관부들이 상고기 말 이후부터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東市典은 市肆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주관하는 관부인데, 그렇다면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부라고 할 수 있는 稟典의 설치 시기를 진흥왕 26년(565)으로 한정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대등 설치 이전에 품전이 존재했다는 자료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대등의 설치로 稟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해 두겠다.

이어서 품전의 관인으로 眞平王 11년(589) 관등이 舍知<sup>⑬</sup>에서 奈麻<sup>⑩</sup>인 자로 大舍 2명을 두었다. 이들은 2명의 전대등을 각각 보좌하는 실무 책임자였다고 보인다. 이 大舍에 해당하는 인물이 목간<sup>1</sup>의 喙部 弗德智 小舍일 것이다. 마침 경위 13등인 小舍는 3등관인 大舍의 관등 규정에 해당한다. 목간의 내용으로 弗德智 小舍는 □□村의 稅穀을 수납하는[得] 책임자의 역할을 맡은 듯하다.

4등관인 舍知는 통일 후인 신문왕 5년(658)에 두었으며, 史는 관등이 先沮知<sup>⑰</sup>에서 大舍<sup>⑱</sup>까지인 자를 처음 14명을 두었는데 그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문무왕 11년(671)에 6명을 더하였다. 처음 두었던 14명의 史는 전대등 2명이 설치된 진흥왕 26년(565)에는 稟典의 관원으로 존재했을

40) 어쩌면 『삼국사기』 직관지 편찬자들이 ~主의 개연성으로 품주와 조주만을 선택했거나, 품전을 품주와 같은 것으로 보고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41) 이병도 1954, 16.

42) 이기백, 1962 「大等考」 『역사학보』 17.18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43) 이기백 1964 ; 1974, 145.

44)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 신라본기에는 지증마립간 10년(509) 京都에 東市를 두었다고 한다.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월성해자 목간의 내용들로 보아서 관부의 운영은 문서행정을 근간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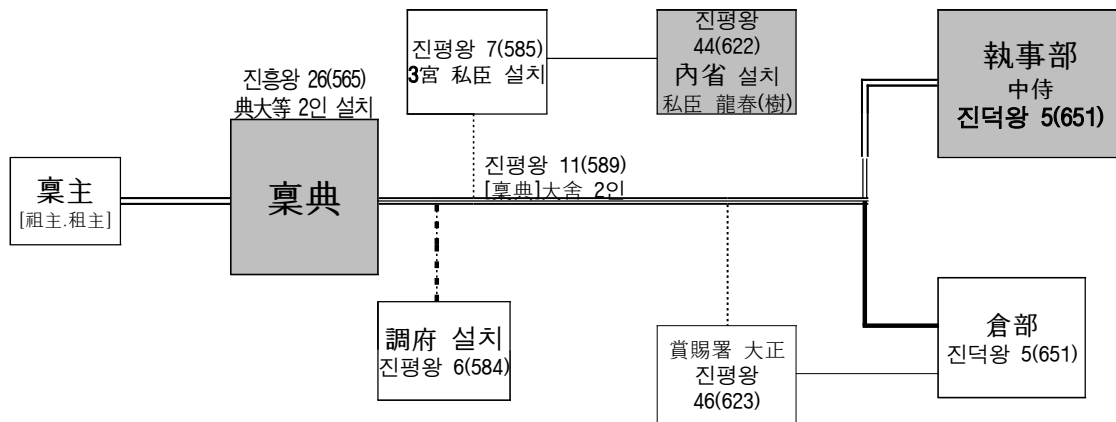
史는 중앙행정관부의 최하급 관원으로 해당 관부의 기본적인 書記 업무를 주요하게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중대등이 沙喙宮 及 伐漸典에게 보낸 목간<sup>3</sup>은 典中大等の 명으로 文人 周公智 吉士가 문서를 썼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목간은 발신자·수신자와 별도로 목간의 書者가 확인되는 경우인데, 문자로 남은 먹의 흐름이 날렵하고 경쾌한 것에서 書記 업무에 꽤 능숙한 관인이 썼음을 알 수 있다. 職役인 듯한 文人의 표현과 周公智라는 이름에서 중앙관부의 말단 관원임에도 문자생활에 능숙한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월성해자 목간의 稟典 관원들과 직관지 집사성 조의 관등 규정의 비교에서 품전 장관인 품전대등의 관등은 中侍에 대응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직관지 3등관 대사는 喙部 弗德智 小舍가 대응하여 그 역할과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품전의 말단 하급 관원으로 文人 周公智 吉士가 근무하였다. 아마도 집사부와 장부로의 轉換을 준비하던 당시 稟典의 모습 끝단을 오늘날 우연히 출토되어 공개된 몇 점의 목간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 V. 稟典 前後의 신라 官制－맺음말에 대신하여－

월성해자에서 출토한 몇 점의 목간을 분석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稟典이라는 관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목간의 稟典太等, 典中大等, 典太等を 통하여 그동안 품주의 장관으로 이해되었던 典大等이 ‘典의 太等’이며, 典은 바로 稟典이었음을 밝혔다. 이는 품주의 장관이 왜 전대등이라고 불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稟典의 장관이 典大等이었다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稟主는 稟典의 前身이자 기원이었다고 생각된다. 품주는 ‘某主’라는 官職적 성격에서 기원하였으며, 점점 국가적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주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관부 稟典으로 전환하였다. 稟典은 전대등이 설치되는 진흥왕 26년(565)에는 관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품전의 업무들을 놓고 볼 때 그 이전에 稟典이 두어졌거나, 稟主가 어떠한 형태의 관부적 모습으로 일정한 변화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목간의 내용을 분석해서 품전의 업무가 국가 재정을 관장하고, 왕실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알려졌던 품주는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것에서 집사부의 前身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전의 역사상이 稟典으로 대체된다면 국가 및 왕실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라적 官制로서의 稟典, 나아가 稟典大等を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국 품전과 품전대등은 재정기관의 전문적 분화와, 내성으로 현실화된 국왕 권력의 私的·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執事部和 中侍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稟典과 新羅의 官制

[참고문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I -고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신라 왕경 목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2024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IV』 1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2024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IV』 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2024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IV』 3  
박성현, 2018 「월성 해자 목간으로 본 신라의 왕경」 『목간과 문자』 20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윤선태,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이경섭, 2009 「신라 월성해자에서 출토한 '2호 목간'에 대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이경섭, 2021 「신라 문서목간의 話者와 書者」 『신라사학보』  
이기백, 1962 「大等考」 『역사학보』 17.18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이기백, 1964 「稟主考」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이기백, 1964 「新羅 執事부의 成立」 『진단학보』 25.26.27 ;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이병도, 1954 「古代南堂考」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1  
이 용, 2013, 「新羅吏讀 자료에 나타난 內의 용법」 『국어학』 66  
이흥직, 1955 「三國史記의 租의 用法」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2  
전경효, 2021 「2018년 출토 경주 월성 해자 삼면목간에 대한 기초적 검토」 『목간과 문자』 27  
전경효, 2024 「문자자료」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IV』 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주보돈, 1998 『신라 지방지배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주보돈, 2018 「월성과 해자 출토 목간의 의미」, 『목간과 문자』 20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20 「신라 문서 목간」, (심포지엄) '통일신라 문자의 세계' 발표자료집, 국립경주박물관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21 「신라 문서목간의 기초적 검토-신 출토 월성해자 목간을 중심으로-」 『영남학』 77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24 「신 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재검토」 『신라사학보』 62



# 新羅 西原小京의 입지와 관방체계의 활용\*

이 연 회 | 전쟁기념관

I. 서론
II. 西原小京의 입지 검토
III. 新羅의 서북방면 진출
IV. 西原小京의 설치 배경과 관방체계의 활용
V. 결론

## I. 서론

新羅의 5小京 체제는 685년(神文王 5) 西原小京과 南原小京의 설치로<sup>1)</sup> 완성되었다. 다섯 개의 소경은 9개의 州와 함께 신라의 통일 이후 지방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소경을 이름 그대로 ‘작은 王京’·‘작은 서울’로 인식하여 이 행정단위를 특수하고 특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발굴 성과가 축적되기 이전에는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소경의 위치, 설치 배경, 성격 등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가, 소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발굴 성과가 드러나면서 소경의 도시 구조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척되었다. 구체적으로 소경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sup>2)</sup> 기능 및 성격<sup>3)</sup>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소경은 원활한 지방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5年, “三月, 置西原小京, 以阿滄元泰為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2) 소경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통일 이후 동남편으로 치우친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견해(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報』 5, 朝鮮學會), 소경이 설치된 지역의 원 지배층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임병태, 1967, 「新羅小京考」, 『역사학보』 35:36, 역사학회), 새로 확보한 지역에 원활한 지방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강봉룡, 1990,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개편」, 『역사와 현실』 4, 한국역사연구회; 후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261~269쪽; 양기석, 2001a, 「신라 5소경의 설치와 서원소경」,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전덕재, 2002, 「신라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 93, 진단학회)가 있다.

3) 소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통치의 주요 거점이면서 지방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는 견해(藤田亮策, 1953, 앞의 논문)이 제기된 이후 대체로 州와 대비된 기능을 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한편 州의 행정 중심지인 州治와 도성을 잇는 길목 사이에 소경이 설치되었음에 주목하여, 도성과 주치를 연결함과 동시에 각 주에서 수취한 물품이 모이고 이를 소비하는 공간이었다고 보는 견해(여호규, 2002,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신라 5小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7 - 촌락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박성현, 2023, 「신라 소경의 기능과 공간 구조」, 『대구사학』 151, 대구사학회; 전덕재, 2023, 『신라지방통

으로 새로 확보한 지역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주와 대비되는 지방의 정치·문화적 중심지였으며,<sup>4)</sup>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주와 함께 지방통치의 거점도시로 인식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소경과 주치에도 왕경과 유사한 도로구획이 있었음이 확인되어,<sup>5)</sup> 적어도 소경이 계획도시임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소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소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 기록에서는 소경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三國史記』新羅本紀와 地理志 및 職官條의 기록에서 소경의 설치 시점, 일대의 행정구역 편제 내용, 그리고 행정체계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글에서는 입지에 주목해서 소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경의 입지, 즉 ‘어떠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 소경을 설치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왕경과 달리 소경은 특정한 목적성을 지니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도 소경에 부여한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소경이 설치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신라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역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소경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원소경의 경우 가장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며 이른바 「新羅村落文書」가 확인되며 내부 통치구조와 행정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서원소경은 685년(신문왕 5) 설치되어 5개의 소경 중 마지막 단계에 설치되었으므로, 소경의 설치에 있어 목적과 기능 등 가장 완성도 있는 모습을 갖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원소경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신라 정부에서 소경을 설치한 의도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소경이 설치된 청주는 도시가 갖는 천연적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통치와 교통에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소경이 설치됨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통일 이전 신라의 축성과 교통로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소경의 입지에 관방체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서원소경이 설치된 청주 지역과 그 주변의 자연 지형, 교통로, 접근성 등을 살펴볼 것이다. 입지가 가진 이 점은 바로 소경을 설치하는 목적성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라가 어떠한 이유로 청주에 소경을 설치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진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서원소경의 설치 당시 시대적 배경과 설치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소경의 기능과 성격 등에 대한 나름의 추론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소경의 입지 조건에 관방체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소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보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II. 西原小京의 입지 검토

서원소경이 설치된 청주는 한반도의 내륙이자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북으로 진천군, 남쪽으로 대전광역시·보은군, 서쪽으로 세종시·천안시, 동쪽으로 증평군·괴산군을 접한다. 또한 소백산맥과 차령

---

치제도사』, 학연문화사, 455~456쪽)도 있다. 소경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혹은 특별 행정조직의 성격으로 다른 지방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다.

4) 주보돈, 1998, 앞의 책, 97~98쪽; 여호규, 2023, 『시간이 놓친 역사, 공간으로 읽는다』, 푸른역사, 156쪽.  
5)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로구획을 바탕으로 왕경과 소경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도시 구조를 복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황인호, 2014, 「新羅 9州5小京의 都市構造 研究」, 『중앙고고연구』 15, 중앙문화재단연구원; 황인호, 2024, 「신라 왕경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산맥 사이에 자리한 산간분지로, 북동쪽은 우암산을 비롯한 산지로 이루어졌으며, 남서쪽은 충적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다. 청주의 중심을 관통하여 동서로 크게 구분 짓는 기준인 무심천(약 34.6km)은 《大東輿地圖》에 大橋川으로 기록된 금강의 제2지류이다. 상술한 대로 무심천의 하류를 중심으로 청주평야가 발달했다.<sup>6)</sup>

이 지역은 20세기 전반까지 錦江을 이용하여 세종시 부강면 방면으로 비교적 큰 선박이 운항하였고, 20세기 이전에는 미호천 상류 지역인 오근장까지 운항하였다. 즉 청주는 금강과 미호강 수로를 이용하여 웅주 일대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집하한 다음 화령과 추풍령을 통하여 왕경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로-육로의 결절점이었다.<sup>7)</sup> 교통의 요충지였던 청주는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산지와 평야가 있어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주의 교통로는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로는 외부 세력이 소경 중심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이다. 서원소경을 지나는 교통로는 『三國史記』에는 전하지 않지만, 고대의 교통로에 큰 변화가 없이 후대로 이어졌다면 《大東輿地圖》에 기록된 교통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大東輿地圖》에는 청주에서 뻗어나가는 7개의 교통로가 확인된다(그림 1). 북쪽의 鎭川 방면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木川, 全義, 燕岐, 文義, 懷仁, 延豐과 淸安 방면으로 향하는 길들은 청주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9)</sup>

먼저 현재 청주 시내에서 진천 방면으로 향하는 1번 교통로를 통하면 안성, 평택 방면으로 향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이천 및 여주로 향한다. 이 교통로는 서원소경에서 안성천, 남한강 수계로 향하는 요충지이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외적을 막아내야 하는 중요 길목이다. 현재 천안시 목천읍 방면으로 향하는 2번 교통로는 신라가 왕경에서 출발해 서해안 일대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이다. 또한 對중국 교역을 위해 중요하게 쓰인 길목으로도 추정된다. 세종시 전의면과 청주 시내를 연결하는 3번 교통로 역시 對중국 교역로로 생각된다. 두 교통로를 지나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중요한 항구 시설인 당은포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연기면 방면으로 향하는 4번 교통로는 미호강이 금강으로 연결되는 수계를 따라가는 길과 일치한다. 이 교통로는 熊川州의 주치이자 옛 백제 수도인 웅진으로 향할 수 있는 길목이다.

5번 교통로인 문의로 향하는 길목은 강안을 따라 대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이다. 문의면의 남쪽으로 대청호가 있고 이 일대의 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험하지만, 대전, 옥천, 영동 등으로 향할 수 있는 길목이기도 하다. 회인 방면의 6번 교통로는 왕경에서 출발하여 청주로 진입할 때 화령을 지나는 길목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길목엔 삼년산성이 있어 신라의 서북 방면 진출 당시 중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청주 시내에서 미원면을 지나 괴산으로 향하거나, 증평 방면으로 향할 수 있는 7번 교통로는 중원소경이 있던 충주시에 도달할 수 있는 길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7개의 교통로는 모두 청주에서 중원소경, 웅진 등 주변의 주요 도

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7, 『淸州市誌』 1, 청주시, 40~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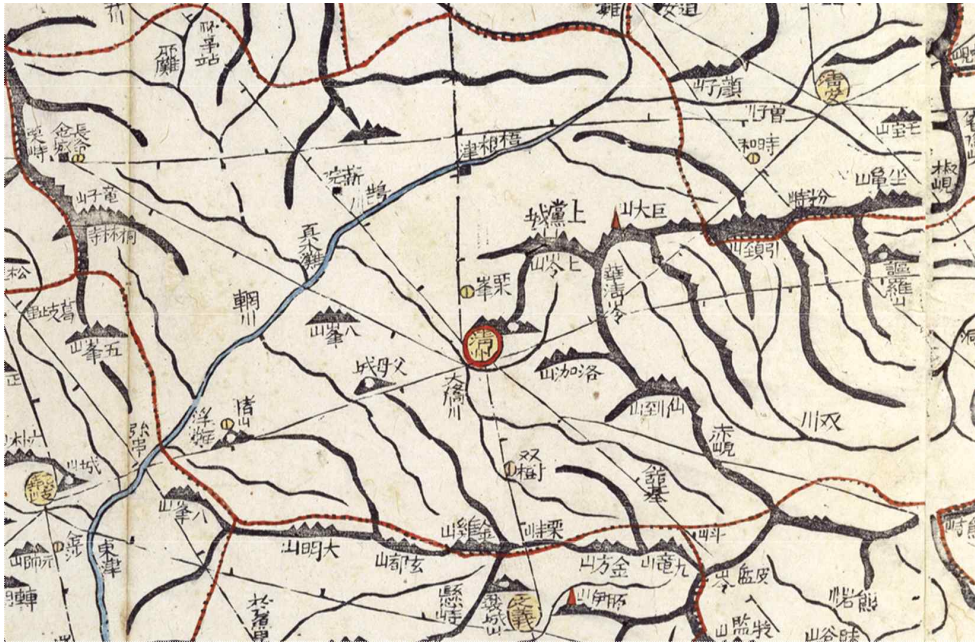
7) 여호규, 2002, 앞의 논문, 147쪽.

8) 《大東輿地圖》에 기록된 교통로에는 삼국시대부터 축조된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신라는 성곽을 축조하고 거점 삼아 영역을 확장했다. 즉 신라의 축성과 교통로 확보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통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드나들던 길목이 고착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교통로와 고대의 교통로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大東輿地圖》에 표시된 교통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9) 편의상 나열한 7개의 교통로를 1번부터 7번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시로 이동하고자 할 때 활용되었으며, 나아가 왕경에서 당과의 교역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림 1> 《大東輿地圖》에 표기된 淸州 지역 및 교통로



특기할 점은 이상의 교통로에 삼국시대부터 축조·운영되었던 관방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길목에 축조되어 있던 성곽은 外敵을 차단하고 소경을 방어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1>은 서원소경 일대 교통로에서 확인된 성곽을 나열한 것이다.<sup>10)</sup> 이에 따르면 축조(혹은 운영) 주체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등 다양하며, 더불어 신라의 통일 이후에도 축조·운영된 시설들이 확인된다. 이 성곽들은 청주와 그 일대를 중심으로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시점부터 축조되어 방어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연기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 가장 많은 수의 성곽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부여로 향하는 길목이다. 즉 성곽의 배치 양상을 통해 당시 백제와 신라가 인근에 거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각 성곽을 거점 삼아 방어체계를 구축하였을 것이다.

10) <표 1>의 성곽 유적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연구·보고서들을 참고하였다.

이경식, 2000, 「忠北地域 百濟山城의 調査 現況」, 『박물관보』 13, 청주대학교 박물관; 연기군·충남발전연구원, 2000, 『燕岐雲住山城』;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a, 『淸原 謳羅山城』;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b, 『淸原 壤城山城』; 노병식, 2005, 「淸州地域 古代 城郭의 性格」, 『충북사학』 14, 충북사학회; 차용걸, 2005,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주류성;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淸原 芙蓉面地域 山城 地表 調査 報告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중원의 산성』; (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 2008, 『燕岐 唐山城 정밀지표조사연구보고서』;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淸原 남성곡 고구려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성곽·봉수편』, 학연문화사; 차용걸, 2012b, 「淸州地域 築城의 系列順次」, 『한국성곽학보』 22, 한국성곽학회; 강민식·조록주, 2013, 「淸州 동림산성과 보루」, 『중원문화연구』 2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報恩 三年山城 -東門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4, 『淸州 父母山城』;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6, 『淸州 父母山城 II』; 충북대학교 박물관, 2022, 『淸州 정북동토성 VI』;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22, 『淸州 태성리토성』.

이상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 서원소경의 입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원소경은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지녔다.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인구가 모여 살되 자연 지형으로 일정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었다. 둘째, 금강의 지류를 끼고 있어 수로를 통해 주변의 여러 큰 도시로 이동이 용이하였다. 셋째, 서원소경을 지나는 여러 교통로는 왕경과 여러 지역을 잇는 길목이었다. 특히 당향성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나기 위해선 서원소경을 반드시 지나야 했다. 마지막, 서원소경을 지나는 여러 교통로에는 통일 이전부터 축조되어 운영된 다수의 성곽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다른 거점지역들과는 차별화된 서원소경의 입지적 특징으로 생각된다.

<표 14> 西原小京 일대 관방 시설 일람

연번	성곽명	지역	둘레 (m)	고도 (m)	형식	재료	축성법	출토(수습)유물
1	경덕산성	천안 동면 광덕리	300?	297	-	석축	-	격자문 토기편(삼국)
2	구라산성	청주 미원면 대신리	872	484	-	석축	협축	단각고배, 완, 선조문 기와편(신라), 기와·토기편(고려)
3	구룡산성	청주 문의면 덕유리	366	370	-	석축	-	
4	남성골산성	세종 부강면 부강리	360(내)	106	-	목책	-	토기(백제), 철축, 토기(고구려)
5	낭비성	청주 북이면 부연리	733	255	사모봉형	석축	-	회색 경질토기편, 이중반원문 토기편 등(삼국)
6	낭성산성	청주 미원면 성대리	575	346	테미식	석축	협축	적갈색·회백색·회청색 경질토기편, 적갈색 우각형 파수편(신라)
7	노고(봉)산성	세종 부강면 등곡리	196	305	테미식	석축	-	집선문·격자문 타날 회청색 경질 토기편(삼국시대)
8	당산성	세종 연기면 보통리	-	-	-	토축	-	
9	대모산성	진천 진천읍 성석리	827	50	포곡식	토축	판축	마제석기편·무문 토기편, 회백색 연질 타날문토기편·회청색 경질 타날문토기편(삼국), 선조문기와편(나말여초)
10	도당산성	청주 문의면 문산리 20-1	-	102	-	토축	-	선조문 기와편(삼국~통일신라)

11	독안산성	세종 부강면 산204	570	332.7	-	석축	-	격자문 타날 회청색 경질토기편(삼국시대), 배면에 선조문이 타날된 기와편(삼국~통일신라)
12	돌봉산성	청주 미원면 성대리~낭성면 관정리	200	479	테외식	석축	-	
13	동림산성	청주 옥산면 동림리 산33-1	819.5	457.3	사모형	석축	-	토기편(백제), 토기편 및 기와편(통일신라~고려)
14	매곡산성	보은 회인면 부수리	672	186.5	테외식	석축 토석혼축(일부)	외측내탁	무문토기편, 연질·경질 타날문 토기편(원삼국), 연질토기 저부편·회청색 경질토기편(삼국), 선문토기편 및 인화문 토기편(통일신라), 기와편(삼국~고려)
15	목령산성	청주 오창읍 주성리	390	229	테외식	석축	협축	회청색 경질토기편·적갈색 연질의 격자문·승석문토기편(삼국)
16	문암산성	보은 보은읍 학림리~산외면 아시리	150(내) 240(외)	410	-	석축	내탁	-
17	병마산성	청주 오송읍 정중리	496	160.4	테외식	석축	협축	-
18	복두산성	세종 부강면 문곡리	765	281	테외식	석축 (내) 토축 (외)	-	타날문토기편(~백제), 종집선문에 가로침선이 돌아가는 회백색 연질토기편(삼국), 경부 돌대옹편(나말여초)
19	부모산성	청주 흥덕구 비하동~지동동	1,131	175~ 231.6	사모봉형	석축	-	-
20	삼년산성	보은 보은읍 어암리	1,700	325	포곡식	석축	협축	암수 확보 및 철정
21	성산성	세종 부강면 등곡리	213	193	테외식	석축 (내) 토축	협축	격자문·집선문 타날 회청색 경질토기편(삼국시대)

						(외)		
22	성재산성	세종 부강면 행산리	270	103.5	테외식	석축	-	토기편(백제)
23	양성산성	청주 문의면 문산리	985	297	포곡식	석축	협축 내탁	단각고배편, 선문 기와편, 「官」銘 기와편, 이중반원 문·점열문 토기편 (신라~고려)
24	애기바위성	세종 부강면 등곡리	123.8	291	-	석축	-	격자·평행선문 토 기편, 고배·개배 편(백제)
25	운주산성	세종 전동면 청송리	543(내) 3,098(외)	460	테외식 (내) 포곡식 (외)	석축	내탁	토기편(백제), 토 기·기와편(통일신 라~조선)
26	작 두 산 성 (남)	청주 문의면 문산 리~두모리	260	378	테외식 (마안봉 형)	석축	-	회청색 경질·적갈 색 연질토기편, 선문기와편(삼국)
27	작 두 산 성 (북)	청주 문의면 미천 리~도원리~두모리	240	429.9	-	-	협축	-
28	저산성	청주 강내면 저산리	255	206	테외식	석축	-	타날문토기편(백 제), 토기편(신라)
29	정북동토성	청주 상당구 정북동	675	35	포곡식	토축	-	무문토기, 검파두 식, 토기편 (백 제), 기와·토기편 (신라 말~고려 초)
30	청개산성	청주 문의면 문덕리	291.6	165	-	토축	-	토기·기와편(삼 국)
31	추 성 산 성 (남)	증평 도안면 노암 리~증평읍 미암리	1,411	259.1	포곡식	토축	-	경질무문토기편, 승석문·격자문 타 날 토기편, 압인문 시문 토기(백제)
32	추 성 산 성 (북)	증평 도안면 노암 리~증평읍 미암리	429	259.1	테외식	토축	-	경질무문토기편, 승석문·격자문 타 날 토기편, 조족 문 시문 토기(백 제)
33	태성리토성	청주 강내면 태성리	248	55.6		토축	-	파상문·돌대를 돌 린 회청색 경질 옹편(나말여초)

34	테미산성	세종 부강면 부강리	600 (155)	62.8	테미식	-	-	적갈색 연질의 굽다리 접시편, 회청색 경질의 개배편, 회청색 경질의 옹 구연 부편, 격자문·승 문 타날 토기 등 체편 (4~5세기 백제)
35	학천산성	청주 비하동~강내면 학천리	325	191.5	테미식	석축	-	-
36	할미성	청주 북이면 영하리	738	170	사모 봉 형	석축	-	토기편 (삼국), 토기·기와편 (고 려)
37	화봉산성	세종 부강면 노호리	950	252.1	포곡식	석 축 + 토루	-	경부 파상문 옹 편, 청자편, 분청 사기·백자편
38	황성골산성	세종 부강면 금호리	220	214	-	-	-	격자문 타날 토 기편(백제)

### Ⅲ. 新羅의 서북방면 진출

경주를 중심으로 한 斯盧國은 4세기 이후 주변 小國을 통합하며 영유하는 지역을 점차 확장하였다.<sup>11)</sup> 이 과정에서 신라가 지방으로서 영유하게 된 소국과 그 주변 지역은 신라가 서북방면으로 진출할 때 복진 거점으로 활용되었다.<sup>12)</sup> 서원소경이 설치된 청주는 원래 백제의 영유권에 속했던 곳으로, 6세기 중반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 방면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sup>13)</sup>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으로 복진하면서 신라와 백제의 각축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신라의 진출 이후 청주 일대에서는 백제와의 전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이다.<sup>14)</sup> 신라는 각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성곽을 축성하고 교통로를 확보하였다. 5세기부터 백제 및 고구려가 영유권을 행사하던 서북방면을 공략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를 설치하거

11)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은 6세기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기틀은 4~5세기에 마련되었다. 한편 『三國志』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辰韓 내 사로국의 정치적 위상이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에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주보돈, 1998, 앞의 책, 25쪽.

12) 이때 복진 거점으로 활용된 지방 소국의 국읍이나 읍락은 6세기를 전후하여 신라의 행정촌으로 편제되어 지방을 구성하게 되었다. 전덕재, 2023, 앞의 책, 73~81쪽.

13)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 41, 호서사학회, 8~12쪽;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42쪽.

14) 박종욱, 2021, 「百濟 泗泚期 新羅와의 전쟁과 영역 변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1~45쪽.

나 군대를 이동시켰다.<sup>15)</sup> 5세기 중엽 이후부터 신라와 백제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영역의 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였다.

한편, 475년(자비마립간 18) 고구려에 의한 백제 한성 함락으로 삼국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롭게 영유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어시설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5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신라의 축성 행위는 단순히 새로운 거점 마련이라는 차원을 넘어, 영토 방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도 이해해야 한다.

신라의 북진은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4세기 후반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일정한 정치·문화적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다. 5세기 전반부터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라는 백제의 연결 통로이자 고구려의 공격이 집중되던 추풍령, 화령 방면을 통해 금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sup>16)</sup> 이후 5세기 중후반 보은과 옥천 지역에 각각 三年山城과 屈山城을 축조하며<sup>17)</sup> 소백산맥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를 확보하였다.<sup>18)</sup>

상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영역화는 교통로 및 거점의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19)</sup> 따라서 청주로 나아가는 추풍령과 화령 지역을 신라가 영역화하는 과정은 곧 신라의 거점성 축조 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신라는 처음 삼년산성을 축조함으로써 추풍령·화령 방면으로의 진출 의지를 보였고, 소백산맥 인근 지역의 요충지에 축성을 전개하였다. 이 축성은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축성 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

15) 강봉룡, 1990, 앞의 논문, 56~58쪽.

16) 서영일, 1999, 『신라 옥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80쪽.

17) 『三國史記』에는 470년(자비마립간 13) 보은 지역에 삼년산성을 축조하고 486년(소지마립간 8)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개축하였다고 전한다. 이때 굴산성은 축조 시점이 확인되지 않지만, 삼년산성과 비슷한 시기에 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옥천 이성산성은 조사 결과 5세기 후반~6세기대의 판축공법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 유물 역시도 6세기 초~7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은 백종오, 2022, 『沃川 已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의 意味』, 『한국사학보』 87 고려사학회.

18) 추풍령로 혹은 화령로를 지나 금강 중상류 지역까지 진출한 신라의 루트를 두 가지로 추정되었다.

첫 번째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백화산성→석문재→장군재→충북 옥천군 산계리토성→보은에 이르는 루트이고, 두 번째는 경북 상주시→화령→충북 보은군 관기면→옥천군 청성면→보은군 보은읍을 통하는 루트이다. 이 중 첫 번째 루트의 옥천군 산계리토성에 대해서는 486년(소지마립간 8) 정월에 개축되었다는 屈山城으로 비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양기석, 2001b,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17~19쪽.

19) 신라는 영역화 과정에서 군사적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함으로써 산성 중심의 거점지배를 확보하고, 이를 군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며, 이 지역에서 강고하게 잔존해오던 세력을 해체하였다. 또한 지배층을 왕경으로 이주시켜 중앙귀족으로 흡수하거나, 국왕의 순행을 통해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상의 내용은 양기석, 2001b, 앞의 논문, 23쪽.

이에 대해 성의 축조에 많은 인력과 물자가 소요되는 점에 주목하여 간선 교통로상의 성을 먼저 축조하고, 필요에 따라 지선로상의 성을 축조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62쪽.

20) 양기석, 2001b, 앞의 논문, 16~19쪽; 서영일, 1999, 앞의 책, 80~98쪽.

서영일은 신라의 북진 경략 방향을 추풍령로, 계립령로, 죽령로로 구분하였지만, 추풍령로 상의 신라 북진로를 보은시 보은읍→청주시 미원면→청주시 내수읍→증평군 증평읍을 통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경북 김천-충북 영동을 잇는 추풍령 고개를 통하는 길목이 아닌 화령로를 통하는 길이다.

한편 상주~보은~청주를 잇는 화령로, 김천~영동을 잇는 추풍령로, 합천~거창~함안을 거쳐 남원으로 나아가는 팔랑치로 중 추풍령로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 백제와의 접전에서 주로 이용되었고, 그 전후에는 사용 빈도가 낮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여호규, 2002, 앞의 논문, 140~142쪽.

21) 양기석, 2001b, 앞의 논문, 19~21쪽.

<표 15>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신라의 서북방면 진출과 추풍령로·화령로 방면의 축성 목록

연번	시기	내용	현재 지명
1	470년 (자비마립간 13)	三年山城 축성	충북 보은군 보은읍
2	471년 2월 (자비마립간 14)	箕老城 축성	위치 미상
3	474년 (자비마립간 17)	一牟城·沙尸城·廣石城·沓達城·仇禮城·坐羅城 축성	충북 청주시 문의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 충북 영동군 영동읍 경북 상주시 화서면 충북 옥천군 옥천읍 충북 영동군 황간면
4	486년 정월 (소지마립간 8)	三年山城·屈山城 개축	충북 보은군 보은읍 충북 옥천군 청성면
5	488년 7월 (소지마립간 10)	刀那城 축성	경북 상주시 모동면
6	490년 2월 (소지마립간 12)	鄙羅城 증축	충북 영동군 양산면
7	525년 2월 (법흥왕 12)	大阿滄 伊登의 沙伐州 軍主 임명	경북 상주시

<표 2><sup>22)</sup>는 470년부터 550년 전까지 신라의 서북방면 진출 과정에서 언급된 지역이다. 제일 먼저 축성된 곳은 보은군의 삼년산성으로,<sup>23)</sup> 5세기 중후반부터 신라는 경북 구미시와 상주시 일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영동·옥천·보은·청주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축성 과정을 따라 점차 북진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또한 청주 일대로의 진출에서 그치지 않고 진천 혹은 세종 방면까지 나아갔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錦峴城<sup>25)</sup>과 道薩城을 뺏고 뺏길 때<sup>26)</sup> 신라

22) 현재 지명 비정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서영일, 1999, 앞의 책; 양기석, 2001b, 앞의 논문; 전덕재, 2016,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전덕재, 2018,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국립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장창은, 2020, 앞의 책.

23) 삼년산성의 축성에 대해서, 축성 이전에 백제와 보은 부근에서 공방전을 벌였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보은 분지가 내려다보이고 주변 통제에 유리한 곳인 오정상 정상에 먼저 성을 쌓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김영관, 2024, 「옥천 굴산성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각축」, 『선사와 고대』 74, 한국고대학회, 375~376쪽.

24) 484년에 백제와 신라가 함께 母山城 아래에서 고구려를 물리쳤다는 『三國史記』 기록을 토대로 당시에 신라가 진천 지역까지 진출했지만, 청주는 백제의 영역으로 남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라경준, 2000, 「新羅 西原京 治址 研究」,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0~12쪽.

25) 금현성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으로 비정되거나(장창은, 2011,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7쪽), 혹은 충북 진천군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성호, 2017,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231~242쪽).

26)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1년,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滄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戍之.”

가 두 성을 장악하고,<sup>27)</sup> 그 기세를 몰아 10군을 공취하였다고 한다.<sup>28)</sup> 나아가 충북 북부와 임진강 이남의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역까지 진출하며 해당 지역을 망라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였다고 한다.<sup>29)</sup>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가 공취한 지역의 위치 비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도살성·금현성 및 고구려의 10군을 확보한 6세기 중반경에는 청주지역까지 진출하였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유물 양상이 일정 기간 공백으로 남아있다. 551년(진흥왕 12) 복진 경략 이후 685년(신문왕 5) 서원소경이 설치될 때까지 신라와 관련된 고고학적 근거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sup>30)</sup> 특히 고분군과 생활유적 같은 거주 흔적은 평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sup>31)</sup> 이러한 양상은 이 지역이 고구려·백제·신라의 접경지로 존재하면서 인구의 집중과 특정 세력의 지역 점유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표 16> 6세기 중반~7세기 중반 서북방면 일대에서의 신라와 백제의 각축과 관련 축성 목록

연번	시기	내용	현재 지명
1	554년 (진흥왕 15)	管山城 전투	충북 옥천군 옥천읍
2	577년 (진지왕 2)	백제의 신라 서쪽 변경 침입과 一善 북쪽에서의 전투 신라, 內利西城 축성	경북 구미시 선산을 충북 옥천군 청산면 ~보은군 마로면
3	578년 (진지왕 3년)	백제의 關也山城 공격	전북 익산시 낭산면
4	579년 (진지왕 4)	백제, 熊岷城·松述城 축성 신라 蒜山城·麻知岷城·內利西城 길이 막힘	경북 상주시~충북 보은군 웅현성과 송술성 인근
5	596년 (진평왕 18)	백제, 금산 栢嶺山城 축성 (~598년)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건천리
6	611년 (진평왕 33)	백제, 椴峯城 공취	충북 영동군 혹은 보은군 추정

27) 『三國史記』 卷第19 高句麗本紀 第7 陽原王 6년, “春正月, 百濟來侵, 陷道薩城. 三月, 攻百濟金岷城, 新羅人乘間取二城.”

2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년,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이때 10군의 위치는 경기 가평군·강원 화천군·강원 원주시·충북 제천시·충북 괴산군·경기 여주시·충북 진천군·경기 안성시 등으로 보거나(전덕재, 2009,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서울과 역사』 73, 서울역사편찬원, 9~11쪽) 우수주 관할의 충북 단양시·충북 제천시·강원 원주시·강원 홍천군·강원 춘천시·강원 화천군 등 보다 서쪽의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장창은, 2011, 앞의 논문, 12~14쪽).

29)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4년,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滄武力爲軍主.”

30) 이에 대해 양기석은 6세기 중반 이후 서원소경 설치 이전까지 신라의 對高句麗·對百濟 전선이 청주 이외 지역에 형성되어 이 지역을 경영하는 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양기석, 2001b, 앞의 논문, 53쪽.

31) 청주 분지를 남북으로 가르는 무심천의 서편에서 송절동고분군과 같이 대규모 거점지역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5세기 말 이후로는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은 윤여현, 2022, 「청주분지 내 원삼국~통일 신라시대 지역거점 형성과 변천 과정 연구」, 『중앙고고연구』 39, 중앙문화재연구원, 92~98쪽.

32) 윤여현, 2022, 앞의 논문, 102~105쪽.

7	623년 (진평왕 45)	백제, 勒努縣 습격	충북 괴산군 괴산읍
8	628년 (진평왕 50)	백제, 椴峯城 포위	충북 영동군 보은군
9	644년 (선덕왕 13)	신라, 加兮城·省熱城·同火城 등 7성 공취	경북 고령군 개진면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북 구미시 인의동
10	647년 (진덕왕 원년)	백제, 茂山城·甘勿城·桐峯城 포위	전북 무주군 무풍면 경북 김천시 개령면 경북 구미시 인의동
11	648년 (진덕왕 2)	신라, 嶽城·進禮城 등 21성 공취	충남 금산군 금산읍
12	649년 (진덕왕 3)	백제, 石吐城 등 7성 공취	충북 진천군 외

<표 3><sup>33)</sup>에 따르면 신라의 서북 진출 이후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의 관산성 전투 등 대규모의 전투가 발생했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지방제도의 변화가 빈번히 일어났다.<sup>34)</sup> 주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 것은 계속해서 군사 거점이 변동함을 의미한다. 청주 일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각축이 벌어지면서, 각국의 영역과 경계는 불투명해졌다. 불안정한 정세는 신라가 진출해서 확보한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권역을 조성하고 인구가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백제의 멸망 직전까지도 충북 일대에서 신라-백제 간 공방전이 지속된 것을 생각한다면, 인구 집중과 특정 국가의 지역 점유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는 추풍령과 화령로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통일 직전까지 접경지역으로 존재했다. 따라서 신라가 점유 이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관방 시설이 집중된 전략적 지역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상술한 이유로 인하여 통일 이전 행정구역이 설치되기도 무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신라

33) 현재 지명 비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王京과 州治·小京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장창은,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 67, 고려사학회; 전덕재, 2018, 앞의 논문; 장창은, 2019, 「7세기 전반~중반 백제-신라의 각축과 국경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3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박종욱, 2021, 앞의 논문.

34)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지방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557년(진흥왕 18) 沙伐州(경북 상주시)를 폐하고 甘文州(김천시 개령면)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新州를 폐하고 한강 이북에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8年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滄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② 565년(진흥왕 26)에는 比斯伐(창녕)에 설치된 完山州를 폐하고 大耶州(경남 합천군)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6年 “九月, 廢完山州, 置大耶州.”)

③ 568년(진흥왕 29) 북한산주를 폐하고 南川州(경기도 이천)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比列忽州(함경남도 안변)를 폐하고 達忽州(강원도 고성)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9年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④ 604년(진평왕 26)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26年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⑤ 614년(진평왕 36) 사벌주를 폐하고 一善州(구미 선산읍)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36年 “三十六年, 春二月, 廢沙伐州, 置一善州, 以一吉滄日夫爲軍主.”)

가 청주에 서원소경을 설치하였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 전까지 청주 일대에 기반과 세력권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 새로운 지방행정의 거점도시를 건설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IV. 西原小京의 설치 배경과 관방체계의 활용

676년(문무왕 16) 당과의 전쟁을 종식한 신라는 마침내 오랜 기간의 분란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뤘다. 이후 새로 영유하게 된 지역을 지방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와 소경 등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고, 685년(신문왕 5) 청주와 남원에 각각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신라의 5소경 체제가 완비되었다. 물론 신라가 지방에 소경을 설치한 사례는 통일 이전부터 확인되지만, 영역 확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경 설치와 통일 이후 영유하게 된 지역을 재편하는 소경 설치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소경 설치 배경과 기능, 위상 등에 대하여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공통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sup>35)</sup>

신라가 통일 이전에 설치한 소경은 총 세 곳으로, 각각 아시촌소경, 국원소경, 북소경이다. 이 소경들은 신라의 북방 전진 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sup>36)</sup> 통일 이후 설치한 소경은 총 네 곳으로, 순서대로 북원소경(678년), 금관소경(680년), 서원소경(685년), 남원소경(685년)이다.<sup>37)</sup> 대체로 동남쪽으로 치우친 수도의 편재성 보완과 전국적인 통제력 강화를 위하여 옛 고구려·백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의 소경은 북진을 위한 거점 기지로서의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성에 맞게 교통의 요충지에 소경을 설치하였고, 왕경과 여러 지역을 잇는 지점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적어도 서원소경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소경의 입지와 설치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서원소경이 설치된 685년은 신문왕이 재위 초기에 있던 두 차례의 큰 반란을 진압하고 지방제도 개편을 시작하던 때였다. 681년(신문왕 원년), 왕의 장인이었던 蘇判 金欽突이 波珍滄 興元, 大阿滄 眞功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첫 번째(이하 김홍돌의 난),<sup>38)</sup> 683년(신문왕 3) 報德國을 해체한 이후 잔존 고구려 세력이 金馬渚를 기반 삼아 반란을 일으킨 것이 두 번째이다.<sup>39)</sup> 위의 두

35) 양기석, 2001a, 앞의 논문; 전덕재, 2002, 앞의 논문; 전덕재,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역사학회;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신라문화』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덕재, 2023, 앞의 책 등.

36) 여호규, 2023, 앞의 책, 138쪽; 전덕재, 2023, 앞의 책, 437쪽.

37) 이 중 방위명을 지칭하지 않는 금관소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위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원경을 중심으로 각각 북쪽, 서쪽, 남쪽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은 장준식, 1998, 『新羅中原京研究』, 학연문화사, 128~129쪽;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7, 앞의 책, 220쪽.

38)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元年, “八日, 蘇判金欽突·波珍滄興元·大阿滄眞功等謀叛, 伏誅.”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元年, “二十八日, 誅伊滄軍官, 教書曰, “事上之規, 盡忠為本, 居官之義, 不二為宗. 兵部令伊滄軍官, 因緣班序, 遂升上位. 不能捨遺, 補闕效素, 節於朝廷, 授命忘軀, 表丹誠於社稷, 乃與賊臣欽突等交涉, 知其逆事, 曾不告言. 既無憂國之心, 更絕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弃, 以懲後進. 軍官及嫡子一人, 可令自盡. 布告遠近, 使共知之.”

39)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3年, “冬十月, 徵報德王 安勝為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4年, “十一月,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闖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為金馬郡. 大文或云悉伏.”

사건은 신라 정부에서 소경을 설치함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반란을 경험한 상황에서 비로소 지방제도의 개편을 시작하게 된 중앙의 입장에서는 새로 설치할 소경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입지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도시의 안정화라는 요소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청주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이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경으로 향하는 여러 길목에 다수의 성곽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소경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를 지키는 관방 시설을 새로 축성할 필요 없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관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소경의 관방체계는 왕경으로 향하는 길목의 차단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소경을 설치한 685년을 전후로 하여 이미 도시에는 일정한 도시계획이 구획되었거나 구획될 예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공간을 만들 때, 도시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소경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통일 이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 거점이자 왕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소경은 왕경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 이전 설치한 소경과 교통로 상의 성곽을 방어체계의 구축으로 바라본 연구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왕경 방어의 전략적 거점지역에 소경이 설치되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소백산맥 방면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교통로 상의 성곽을 따라 구축되었고, 이 방어체계를 망라할 수 있는 거점지역, 즉 경북 의성군에 아시촌소경이 설치되었다.<sup>40)</sup> 나아가 아시촌소경은 소백산맥 이북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을 지녔으며,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sup>41)</sup> 비록 통일 이전의 소경을 군사적 기능으로 바라본 접근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통일 이후 설치된 5개의 소경을 입지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소경이 설치된 모든 지역이 소백산맥 이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통일 이후 설치된 소경들 역시 왕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상술한 것처럼 서원소경을 통과하는 7개의 주요 교통로에는 통일 이전부터 축조·운영된 성곽이 여럿 존재했다. 축성 사업은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성곽은 한 번 축조할 때 많은 공력을 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후대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축조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경을 둘러싼 관방 시설을 소경 설치 이후 축조한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소경이 왕경을 보호하는 전략적인 거점지역으로 기능하려면, 새롭게 성곽을 축조하는 것보다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왕경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의 일환이 아니어도, 지방통치의 거점이 될 행정구역을 아무런 방어체계 없이 운영하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축조되어 있던 교통로 상의 성곽들을 소경의 관방체계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입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원소경의 설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정국의 안정화를 지향하던 신라 정부는 통치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에 지방통치의 거점인 소경을 설치하였다. 이때 서원소경은 왕경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당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였고, 또한 육로를 통해 북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맞이할 수 있는 청주에 설치되었다. 통일 이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라는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수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

40) 전덕재, 2023, 앞의 책, 289~293쪽.

41) 전덕재, 2023, 앞의 책, 292~293쪽.

를 지방행정구역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서원소경은 소백산맥을 넘기 전 지나야 하는 핵심적인 공간 중 하나였고, 또한 통일 이전부터 삼국의 각축장으로 존재하며 다수의 관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에 소경을 설치한다면, 새로 축성 사업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의 관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일 후 설치된 서원소경은 다수의 관방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입지는 곧 소경의 기능과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복진 거점으로 기능한 통일 이전과 비교한다면, 통일 이후의 소경은 계획적으로 도시를 설계하여 건설하였음이 확인된다.<sup>42)</sup> 소경이나 주치는 통일 이후 지방의 정치·행정의 중심지에서 나아가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았을 것이다. 또한 통일 전과는 달리 진골들을 비롯한 기존 6부인들이 소경이나 주치에 거주하면서 자연히 왕경의 문화가 지방에 이식되었을 것이고, 지방문화 역시 발달하였을 것이다. 인구 집중 현상과 물자의 집중 역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특히 왕경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 하였던 소경에서 더욱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상술한 바와 같이 소경이 있던 지역에서 확인 되는 시가지 구획이 왕경의 도시화 과정에서 확인되는 坊制와 동일한 수직로 확인된 점 역시 계획 도시임을 증명한다.<sup>44)</sup>

청주의 상당산성에서 출토된 「沙梁部」銘 기와 또한 서원소경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는 주요 요소이다. 이때 沙梁部는 왕경의 6부 중 하나이므로, 소경에도 왕경과 같이 6부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이른 시기부터 제기되었다.<sup>45)</sup> 이는 곧 통일 이후에 설치된 소경과 주치에 계획도시가 세워 지며 그 영역을 왕경과 같이 6부로 구분하였다는 견해였다. 왕경의 6부에서 생산한 기와를 지방까지 수급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다는 소경의 6부에서 기와를 생산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 왕경에 거주하던 6부인이 소경으로 이주한 이후, 자신의 소속을 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문와를 제작했다고 보거나,<sup>46)</sup> 소경에 사민된 왕경인의 후예들이 일부 축성에 참여했던 근거로 보기도 한다.<sup>47)</sup> 소경의 영역을 6부로 구분하였다는 추가적인 발굴 성과가 확인된다면 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우선 소경 내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6부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48)</sup>

결국 소경은 진골을 비롯한 왕경인이 이주한 지방의 계획도시로,<sup>49)</sup> 지방통치의 거점도시이자 정치·문화·사회적 중심지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도시를 보호할 관방체계는 반드시 존재하였을 것이다.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관방 시설은 고대부터 현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소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거점도시라면 반드시 일정한 관방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를

42) 라경준, 2000, 앞의 논문, 16~17쪽.

43) 전덕재, 2002, 앞의 논문, 49~50쪽.

44) 황인호, 2024, 앞의 논문, 209쪽.

45) 전덕재, 2005, 앞의 논문;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7, 앞의 책, 226쪽; 박성현, 2023, 앞의 논문.

46) 하일식, 2011, 앞의 논문.

47) 서영일, 1999, 「安城 飛鳳山城 수습 「本彼」 기와 考察」,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48) 전덕재, 2023, 앞의 책, 445쪽의 각주 245.

49) 소경에 진골을 사민시켰다는 기록은 『三國史記』 外位條에 등장한다(『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外官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 出居於五京·九州, 別稱官名, 其位視京位.”). 한편 외위조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외위조의 내용은 편찬자의 오류가 맞지만, 귀족의 지방 분산 조치라는 기록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통일 이전에 이미 6부인을 소경에 사민시킨 경험을 염두에 둔다면 진골의 사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은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12~217쪽.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라 정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에 서원소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신라의 통일 이후, 신문왕은 재위 초반 발생한 반란을 제압하는 동시에 새롭게 확보한 영역의 통치를 위한 지방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서원소경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이때 서원소경은 단순한 지방통치 거점을 넘어, 왕경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의 일환이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계획도시로 설치되었다. 통일 직후의 불안정한 시기에 왕경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 설치되었기에, 도시를 건설할 때 관방체계의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서원소경의 입지는 도시 발달과 방어에 모두 유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서원소경이 설치된 청주는 금강 및 미호강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주변 여러 지역과 왕경을 연결하는 핵심 길목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당 교역을 위한 당항성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나아가 북쪽에서 외적을 막아내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형적으로는 평야 지대와 산간지대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인구 집중이 용이하면서도 자연 지형을 이용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했다. 서원소경의 입지적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를 둘러싼 주요 교통로에 다수의 관방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주지역이 갖는 특징이자 강점이었다. 서원소경이 설치된 청주는 신라가 통일 직전까지 백제와 영유권을 두고 각축을 벌인 지역이었다. 신라는 서북방면으로의 진출 경험을 토대로 인근에 존재한 관방 시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 성곽들은 소경을 방어하고 외적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원소경의 교통로를 살펴보았을 때, 청주 인근에 설치되었던 관방 시설들에서는 소경 중심부 방면을 조망하면서, 더불어 주요 교통로 상에서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경의 관방체계에 편제된 성곽들은 통일 이전의 단순한 거점성 기능을 넘어, 이제 인근 교통로와 중요 지역까지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또한 소경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인근 지역의 방어체계로 편제되는 등 다양한 지역의 방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지역은 신라의 서북 방면 진출 과정에서 백제와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던 접경지였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신라의 축성 행위는 단순히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영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어 조치였다. 통일 이전, 교통로를 따라 축성된 성곽들은 일종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망라하기 위한 전략적인 거점에 소경이 설치되었다. 즉 당시 소경은 지방의 거점이자 別都이면서 동시에 왕경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반영하여 치밀하게 입지가 선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통일 이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원소경이 설치되었던 당시는 통일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정국의 안정화를 이뤄내야 했을 것이다. 더불어 나당전쟁까지의 경험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지방 거점도시의 설치와 운영도 빠르게 이뤄낼 수 있는 지역에, 즉 기존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소경을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관방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 속에서 지방통치와 왕경 보호라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에 소경이 설치되었다.

관방 시설은 결국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 그곳에 위치하는지, 어떤 것을 보호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경 인근의 관방 시설들은 소경의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또 이후 소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I. 사료

『三國史記』

### II.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성곽·봉수편』, 학연문화사  
서영일, 1999, 『신라 옥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여호규, 2023, 『시간이 놓친 역사, 공간으로 읽는다』, 푸른역사  
장준식, 1998, 『新羅中原京研究』, 학연문화사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전덕재, 2023, 『신라지방통치제도사』, 학연문화사  
주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차용걸, 2005,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주류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7, 『淸州市誌』 1, 청주시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 III. 보고서 및 자료집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중원의 산성』  
(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 2008, 『燕岐 唐山城 정밀지표조사연구보고서』  
연기군·충남발전연구원, 2000, 『燕岐雲住山城』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22, 『청주 태성리토성』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淸原 芙蓉面地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2008, 『淸원 남성곡 고구려유적』  
\_\_\_\_\_, 2013, 『報恩 三年山城 -東門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4, 『淸州 父母山城』  
\_\_\_\_\_, 2016, 『淸州 父母山城 II』  
\_\_\_\_\_, 2022, 『淸주 정북동토성 VI』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a, 『淸原 謳羅山城』  
\_\_\_\_\_, 2001b, 『淸原 壤城山城』

### IV.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강민식·조록주, 2013, 「청주 동림산성과 보루」, 『중원문화연구』 2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강봉룡, 1990,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개편」, 『역사와 현실』 4, 한국역사연구회  
김영관, 2024, 「옥천 굴산성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각축」, 『선사와 고대』 74, 한국고대학회  
노병식, 2005, 「淸州地域 古代 城郭의 性格」, 『충북사학』 14, 충북사학회  
라경준, 2000, 「新羅 西原京 治址 研究」,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23, 「신라 소경의 기능과 공간 구조」, 『대구사학』 151, 대구사학회  
박종욱, 2021, 「百濟 泗泚期 新羅와의 전쟁과 영역 변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종오, 2022, 「沃川 已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的 意味」, 『한국사학보』 87, 고려사학회
- 서영일, 1999, 「安城 飛鳳山城 수습 「本彼」 기와 考察」,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양기석, 2001a, 「신라 5소경의 설치와 서원소경」,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 \_\_\_\_\_, 2001b,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 여호규, 2002,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신라 5小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7 - 촌락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윤성호, 2017,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 윤여현, 2022, 「청주분지 내 원삼국~통일 신라시대 지역거점 형성과 변천 과정 연구」, 『중앙고고연구』 39, 중앙문화재연구원
- 이경식, 2000, 「忠北地域 百濟山城의 調査 現況」, 『박물관보』 13, 청주대학교 박물관
- 임병태, 1967, 「新羅小京考」, 『역사학보』 35-36, 역사학회
- 장창은, 2011,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 \_\_\_\_\_,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 67, 고려사학회
- \_\_\_\_\_, 2019, 「7세기 전반~중반 백제·신라의 각축과 국경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3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王京과 州治·小京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 전덕재, 2002, 「신라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 \_\_\_\_\_,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호서사학』 41, 호서사학회
- \_\_\_\_\_, 2009,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서울과 역사』 73, 서울역사편찬원
- \_\_\_\_\_,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역사학회
- \_\_\_\_\_, 2016,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 \_\_\_\_\_, 2018,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국립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차용걸, 2012b, 「淸州地域 築城의 系列順次」, 『한국성곽학보』 22, 한국성곽학회
-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신라문화』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황인호, 2014, 「新羅 9州5小京의 都市構造 研究」, 『중앙고고연구』 15,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24, 「신라 왕경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V. 해외논문

-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報』 5, 朝鮮學會

# 「新羅 西原小京의 입지와 관방체계의 활용」에 대한 토론문

최경선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본 발표문은 서원소경의 입지와 관방시설을 중심으로 서원소경이 왜 지금의 청주 지역에 설치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원소경은 왕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으며, 이에 관방시설이 갖춰진 지금의 청주 지역을 소경으로 선정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소경을 비롯하여 소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비교해 관방체계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소경의 입지와 관방체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은 2장 서원소경의 입지 검토, 3장 신라의 서북 방면 진출, 4장 서원소경의 설치 배경과 관방체계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청주 지역의 지형적 특징, 수로와 육로 교통의 편의성, 다수의 성곽 배치 등 서원소경의 입지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신라의 청주 지역 진출 과정을 살핌으로써 서원소경 설치 이전까지 청주 지역에 신라의 기반과 세력권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신문왕 재위 초기에 일어난 두 차례 반란 사건을 근거로 소경이 도시 안정과 왕경 방어의 목적에서 설치되었으며, 그러한 목적에서 관방시설이 많은 청주 지역에 소경이 설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장의 경우, 신라의 기반과 세력권이 없었던 청주 지역에 왜 소경이 설치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중간에 들어가기보다는 맨 먼저 들어가 청주 지역 진출부터 서원소경 설치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발표문에서는 서원소경과 주변 군현에서 확인되는 고대의 성을 정리하였는데, 성의 분포가 조선 후기 『大東輿地圖』에 표시된 교통로와 일치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교통로가 고대에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교통로를 따라 분포된 성이 서원소경의 관방체계와도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를 서원소경이 지금의 청주 지역에 소재한 이유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서원소경 관방체계의 공간 범위입니다. <표 1>에 정리된 성에는 서원소경 주변 군현에 위치한 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원소경을 설치할 때 <표 1>에 정리된 성이 모두 서원소경의 관방체계를 형성하는 데 고려되고 그 안에 포함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서원소경 관방체계의 공간 범위를 설정하였는지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서원소경과 주변 군현 성의 축조 및 활용 시점입니다. <표 1>에 제시된 성 중에는

685년보다 후대에 축조·운용된 성(태성리 토성)도 있고, 685년 무렵이나 그 이후에 더 이상 운용되지 않거나, 운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성도 있습니다. 특히 685년 시점에 사용되지 않은 성은 서원소경의 입지 선정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신라가 기존 성을 소경의 관방체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방시설이 집중된 청주 지역에 소경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의 축조 및 활용 시점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라통일기에 사용된 성을 각 방면별로 정리·분석해야 서원소경의 교통로와 관방체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신라의 교통로와 관련된 사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듯합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9년(487) 3월 기사를 통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官道가 존재하였으며, 관도를 따라 郵驛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三國史記』 잡지 ‘三國有名未詳地分’ 조에는 北海通, 鹽池通, 東海通, 海南通, 北徭通 등 이른바 신라 5통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견이 있기는 하나, 5통을 신라의 간선도로로 파악하고 그 경로를 추정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沙梁部屬長池駟’ 銘 기와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沙梁部屬長池駟’ 에서 사랑부와 장지역, 그리고 서원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장지역은 현재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장명부락에 위치하였으며,<sup>1)</sup> 이를 통해 신라통일기에 서원소경에서 장지역으로 이어지는 관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는 청주에서 전의로 가는 길에 ‘長命’ 이 표시되어 있으나, 장명부락의 위치가 현재 홍대용선생생가지 일대임을 고려하면,<sup>2)</sup> 장지역은 청주에서 목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부근에 위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sup>3)</sup> 그러면 청주에서 목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관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발표문에서 말한 2번 교통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원소경의 교통로와 관방체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료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관도와 역원, 5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표문에서 살펴본 청주 지역을 지나는 교통로를 모두 중요한 길목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신라통일기에 왕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경과 주치를 연결하는 5통과 같은 간선도로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支線으로, 도로마다 그 중요도는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도로의 등급을 구분하였던 사실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sup>4)</sup> 그러한 점에서 교통로마다 중요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서원소경과 여타 소경의 입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설치된 소경 중

1) 전덕재, 2005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湖西史學』 41, 20쪽.

2)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新羅文化』 38, 192쪽 각주 12번.

3) 팔도군현지도에는 수신면 장명역 부근으로 목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며, 해동지도에는 수신면에 천안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4) 『輿地圖書』에는 청주목 관할지역에 大路가 3개, 小路가 3개 분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輿地圖書』 청주목 도로조).

소백산맥 바깥에 위치한 복원소경·남원소경·서원소경은 모두 왕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원소경과 남원소경도 서원소경과 같은 입지상의 특징을 지녔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경의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왕경 방어체계의 수립에 있다고 추정할 경우, 관방시 설만이 아니라 군단의 배치를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살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6기정으로 왕경을 방위하듯 소경이나 그 부근에도 그러한 군단이 배치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라통일기에 지방에 배치된 10停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소경을 중심으로 왕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수립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5. 『대동여지도』에서 청주와 연결된 교통로를 7개로 파악하였는데, 9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인 방면의 교통로는 낙가산 부근에서 분기하여 보은과 연결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청안(지금의 괴산군 청안면) 방면의 교통로는 華淸峯에서 분기하여 연풍과 연결됩니다. 분기되는 교통로는 구분하여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목천읍으로 향하는 2번 교통로와 전의면 방면의 3번 교통로를 당은포로 향하는 교통로로 파악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주에서 진천, 직산, 평택, 안중을 거쳐 당은포(남양만)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sup>5)</sup> 기존 연구와 다르게 교통로를 파악한 근거가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7.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 이전 시기의 지형을 고려하여 서술해야 할 것입니다.
8. <표 1>의 도당산성의 지역이 청주 문의면 문산리 20-1로 정리되어 있는데, 진천의 오기로 보입니다.
9. 10쪽에서 신라가 550년 금현성과 도살성을 빼앗고, 그 기세를 몰아 고구려의 10郡을 공취하였다고 서술하여 금현성과 도살성 공략과 고구려 10군 공취를 마치 연속된 사건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10군 공략은 550년 금현성·도살성 공략과 시차가 있고, 백제와 연합하여 추진된 점에서 금현성·도살성 공략과는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

5)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27~129쪽.

10. 신라의 청주 지역 진출 시기에 대해 10쪽에서는 5세기 중후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주 일대의 진출에서 그치지 않고 진천 혹은 세종 방면까지 나아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쪽에서는 거꾸로 도살성·금현성 및 고구려 10군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6세기 중반 경에는 신라가 청주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서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6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원소경이 설치되는 685년 사이에 청주 지역에서 신라와 관련된 고고자료, 특히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청주 지역이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신라·백제 간의 공방으로 청주 지역의 인구 집중과 특정 국가의 지역 점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 부모산성에서는 한성기·웅진기 백제토기 → 6세기 중엽 신라토기 → 사비기 백제토기·인각와가 출토되어 6세기 중엽 이후에 백제가 청주 지역을 다시 차지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sup>6)</sup> 이렇듯 부모산성의 출토양상을 고려하면, 청주 지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지역 점유가 불가능하였다는 설명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 통일 이후 설치된 5개의 소경 → 통일 이후 설치된 4개의 소경

소경이 설치된 모든 지역이 소백산맥 이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 금관소경은 소백산맥 이남에, 남원소경, 서원소경은 소백산맥의 이서에 설치.

---

6) 김영관, 2010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20, 112~123쪽; 윤여현, 2022 「청주분지 내 원삼국~통일신라시대 지역거점 형성과 변천 과정 연구」 『중앙고고연구』 39, 96쪽.